헤르세인의 대관식은 역대 선왕들의 대관식보다 단촐 하게 진행되었다. 본래의 대관식은 새로운 왕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 왕실의 예산을 크게 쓰며 가장 화려하게 진행되었지만 헤르세인은 예전부터 이어져오던 관례를 없애듯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대관식을 진행했다.

그 첫째가 바로 대관식을 예전부터 진행하던 신전대신 왕성으로 옮겨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본래 대관식은 대체로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져 하늘의 신전에서 진행되었으나 대관식을 치루 고자 신전으로 향하는 인원은 상상할 초월할 정도였다. 예비 국왕을 호위하기 위한 상당한 숫자의 기사들은 물론, 병사들과 신전까지 이어질 레드카펫의 행렬. 그리고 낭비뿐인 종이꽃들.

헤르세인은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이번 대관식에서 없앤 것은 물론, 하늘의 신전에 서신을 보내 교황이 직접 왕성에서 의식구절을 읊어주길 부탁했다. 다행히 고지식할 줄 알았던 교황은 현재의 전란을 생각해서 인지 선뜻 받아들였고 대관식의 의식 문제는 비로소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분별이 수도에 있는 귀족들을 포함해 지방에 있는 귀족까지 불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례. 헤르세인은 지방 귀족까지 포함하여 대관식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을 부르는 것도 인력의 낭비였으며 그 인원을 감당할 대관식의 장소는 협소했기에 그레이스 후작의 조언에 따라 헤르세인은 선별된 귀족들로 인원을 감소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필요한 대관식 이후의 무도회를 없애는 것. 새로운 왕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는 필요할지 몰라도 헤르세인에겐 당장 필요한 연회는 아니었다. 귀족들의 배를 채울 예산과 오랫동안 왕성을 경비할 인력까지. 음식만 해도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연회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폐왕 위스턴으로 인한 백성들의 민심이 현재 바닥인 이상, 연회는 더더욱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모든 예산을 측정하고 감소하며 대관식을 단출하게 진행한 헤르세인에게 불만을 비친 귀족들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은 없었다. 이제는 저들조차 함부로 의사를 비칠 수 없는 그녀의 존재가 너무나 높았기에, 또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는 그레이스 후작과 라인하르트 가문이 있기에 불만 있는 귀족들은 그것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왕녀전하.”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라즐리는 물론, 함께 따라온 아이르리스와 엘리카가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헤르세인은 작위 계승을 끝내고 후작으로서 자리에 선 클로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라인하르트 후작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게 낫겠지요?”

“아닙니다, 편히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이 대관식이 끝나면 곧 다른 호칭으로 또 바뀔 텐데… 정 그러길 바라면 그때까진 편히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전하.”

“그보다… 정말로 나와 함께 대관식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왕성을 점령하기 전, 헤르세인은 그가 제게 전달한 서신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충성을 받치겠다는 것. 하지만 헤르세인의 전력에 도움을 주고 충성을 받치며, 공작 작위를 받겠다는 것과 다르게 클로드는 헤르세인이 말한 또 다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정말로 공작의 작위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나의 옆자리… 국서만 된다면 라인하르트 가문은 지금보다 더 크게 될지도 모를 텐데요?”

헤르세인은 여전히 표정에 변화가 없었지만 클로드는 미미할 정도의 입꼬리를 올리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전하의 말씀처럼 제가 국서의 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분명 라인하르트 가문은 더 커지고 왕실의 핏줄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 아버지가 원한다 해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의 동생을…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인가요? 아님… 내가 그 사람을 벼랑으로 내몰았기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는 헤르세인의 시선이 닿자 클로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우가 사랑했던 여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도, 아우의 못난 형으로도 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랑 없는 정치적인 정략혼인일 뿐임에도 말인가요?”

“예, 그게 저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몇 년이지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후회할 수도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클로드가 저를 존중해주는 그가 헤르세인은 고마웠다.

“고마워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을 위해 선택해줘서. 정말로….”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클로드를 지나쳐 헤르세인은 대관식이 열릴 굳게 닫힌 문 앞에 멈춰 섰다. 이곳에오기까지 손끝을 떨리게 하던 긴장감. 하지만 그 긴장감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클로드를 만난 덕분에 헤르세인은 온몸을 감싼 긴장을 서서히 풀어낼 수 있었다.

“후우...”

아무것도 아닌 깊게 뱉어낸 호흡. 그리고 다시 숨을 길게 들이쉬며 헤르세인은 꼿꼿이 허리를 피고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는 정면을 향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문지기들에게 신호를 알렸다.

“열어라.”

그 순간, 굳게 닫힌 문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면서 실내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헤르세인을 감쌌다. 아주 잠깐 빛에 적응하기 위해 눈을 감았던 헤르세인은 천천히 눈을 떠 아래로 향해 있던 눈동자를 움직였고 완전히 빛에 적응된 순간, 헤르세인은 셀 수 없는 시선이 오직 저에게만 향해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숨을 죽인 대관식의 실내. 헤르세인은 그 누구의 얼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교황의 옆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대한 왕좌만이 또렷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상에, 전하께서 입으신 드레스 좀 봐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보세요. 저 자태를! 연회용 드레스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고 심지어 카리스마가 있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드레스일까요? 저런 대관식 드레스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대관식에 참석한 소수의 귀부인들과 공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눈을 빛내며 헤르세인의 대관식용 드레스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던 그 누구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헤르세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길만 걷고 있는 레드카펫의 길과 한 사람만이 앉을 왕좌를 향해 헤르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누님….”

“전하.”

“왕녀전하.”

왕자로서의 제복을 갖춰 입고 제일 앞줄에 선 빈센트의 모습과 그레이스 후작, 그리고 아이르리스와 길버트, 또 엘리카까지 익숙한 얼굴들이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잘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언제 서있었는지 모를 클로드와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은퇴한 라인하르트 후작까지 눈이 마주친 순간 헤르세인은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려 어느새 올라가야할 계단이 눈앞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레스를 살짝 들어 한발, 한발 밟아 올라가는 헤르세인의 모습은 점점 왕좌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왕좌가 바로 눈앞에 닿은 순간, 오랫동안 헤르세인을 기다린 교황이 엄중한 목소리로 헤르세인에게 의식을 시작을 알렸다.

“왕녀 헤르세인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게 고개를 숙이시오.”

교황을 말대로 헤르세인은 한쪽 무릎을 굽혀 교황이 아닌 신을 향해 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교황은 마치 신이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의식의 구절을 외쳤다.

“왕녀 헤르세인은 만백성의 태양이 되어 그들을 보듬을 것이며 하늘은 언제나 태양을 가릴 수도 더욱 밝게 비칠 수 있음을 잊지 마시오. 또한 왕녀 헤르세인은 새로운 태양이 되어 사브레 왕국을 태양의 품으로 지켜낼 것을 하늘에 맹세하겠는가?”

“맹세합니다.”

“왕녀 헤르세인은 피로 물든 왕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에 배인 철의 왕관을 써 사브레 왕국의 영원한 안녕을 맹세하겠는가?”

“맹세합니다.”

“이로서 왕녀 헤르세인은 새로운 태양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췄음을 하늘이 인정하니 새로운 왕은 낡은 왕관을 버리고 하늘이 내린 왕관을 머리에! 그리고 사브레 왕국의 축복을!”

머리에 씌어져 있던 티아라가 교황의 손에 옮겨지고 새로운 왕관이 머리 전체를 덮은 순간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교황의 작은 눈짓에 따라 헤르세인은 뒤를 돌아 여전히 저를 올려보고 있는 귀족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눈앞으로 내밀어진 황금빛의 왕홀과 보주를 본 순간, 헤르세인은 그것들을 양 손에 각각 들어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모두! 새로운 태양께 예를 갖추시오!”

그 누구도 헤르세인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이는 없었다. 정확히 왼 가슴에 손을 올려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은 헤르세인의 눈에 전부 담겼으며, 제일 시야에 닿는 빈센트조차 어린 손을 올려 예를 갖췄음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제가… 두 분의 복수를 이루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 부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길...’

왕홀과 보주를 손에 쥔 채, 헤르세인은 차갑고 딱딱한 황금빛의 왕좌에 앉았다. 죽은 윌리스 왕태자와 폐후 카타리아가 그토록 원하던 단 한사람을 위한 자리.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치워내고 힘겹게 얻은 제 아버지의 피와 조부, 또 어머니의 피가 묻은 피의 자리. 헤르세인은 무릎 위로 살짝 보주를 내려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꼬옥 붙잡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작은 결의를 속삭였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되돌려 놓겠어.”

눈 아래로 짙은 다크 서클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른 채, 케시아는 모르가나의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르가나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져온 케시아는 당장 모르가나에게 의식을 요구했지만 망할 노친네가 무얼 그리 준비할 것이 많은지 하필 대관식 날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관식이든 모든 이제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 지금 내게 당장 중요한건 이 의식뿐이니까.”

“저, 전하… 그래도 왕후폐하의 소식은...”

“지금 그게 중요해? 헤르세인이든 어머니든 내가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했잖느냐! 더 이상 날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나 있어!!”

오히려 구박만 들으며 루네즈는 어떤 말도 해보지 못한 채, 조용히 근처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루네즈가 어떤 표정을 짓던 케시아의 눈은 온통 모르가나가 만지고 있는 의식용 제단에 향해 있었다. 동그랗게 가축의 피로 하여금 크게 그려진 거대한 문양과 그 한 가운데를 차지한 하얀 단지.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심장까지.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전하의 피를 살짝 하얀 단지 위에 떨어트려 주시겠습니까? 죽은 이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선 전하의 피가 필요합니다.”

케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는 제 손에 상처를 내는 것조차 스스럼없이 날카로운 단검을 가지고 단숨에 손가락을 베어 핏방울을 떨어트렸다. 케시아의 피까지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서 모르가나는 음습하게 올라간 입꼬리와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정확히 거대한 문양을 향해 내리찍어 소환의 주문을 읊었다.

“빛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여! 부디 가엾은 처녀의 소원을 들어 이 자리에 어둠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가축의 피로 하여금 바닥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양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다. 옅었던 빛이 붉은 광채를 뽐내며 원형그대로 지붕을 뚫을 정도의 빛 무리가 솟아났고 케시아는 그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서서히 흔들리던 하얀 단지. 그리고 빛 무리가 더 붉어지고 강렬해질 때, 하얀 단지의 덮개가 저절로 열리면서 그 속에는 케시아가 단 한 번도 볼 수 없던 검붉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저건...”

검붉은 연기는 하늘로 솟는 것이 아닌 마치 먹잇감을 찾듯 단지 옆에 있던 심장을 향해 뿌연 연기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기처럼 서서히 공중으로 솟아오르던 심장이 검붉은 연기에 완전히 감싸진 순간, 마치 사람의 손이 심장을 움켜쥐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어그러지면서 심장 속에 고여 있던 핏물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자! 어둠의 존재이시여! 그 심장을 움켜쥐고 원념과 집념의 피를 마시어 이곳에! 내 앞에! 어서! 강림하소서!!”

공중에 흩어진 핏방울들이 바닥을 전부 적시기 전에 검붉은 연기가 파도처럼 둥근 문양을 전부 덮어냈다. 오싹하면서도 스산한 기운의 소리가 케시아의 귓가를 스치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발자국 물러나 떨리는 눈동자를 움직여 바닥을 흘끔 보고 말았다.

“이, 이게 뭐야...”

둥근 문양 주변을 머물던 검붉은 연기가 모르가나의 지하실을 전부 덮어낼 생각인지 어느새 전체적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케시아의 발밑은 마치 검은 안개가 낀 것 마냥 자욱하게 검붉은 연기로 덮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케시아가 너무 놀라 한발자국 또 물러나기 전에 곁에 있던 모르가나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이제부터 그 검붉은 연기가 전하의 몸을 뒤덮으실 겁니다.”

“...뭐?”

“안심하십시오. 그 연기는 전하를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전하의 순수한 정기와 집념을 조금 가져갈 뿐이지요.”

“그게 무──! 헉!!”

모르가나의 말처럼 순식간에 검붉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느새 케시아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연기로 감싼 순간, 케시아는 아주 잠깐 동안 연기 속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을 뿐, 검붉은 연기는 순식간에 둥근 문양이 있는 제자리로 찾아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허억… 허억….”

“괜찮으십니까?”

“괜찮을리... 아니… 괜찮아… 이 정도라면 괜찮아...”

걱정하나 묻어있지 않는 모르가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케시아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어떡해서든 쓰러지지 않고자 힘을 주었다. 처음에는 모르가나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정기란 것이 정말로 있기야한 건지 검붉은 연기가 온몸을 덮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은 순간 케시아는 정신이 혼미해짐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오늘 하루의 체력을 다 쓴 사람마냥 케시아는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검붉은 연기가 점점 피의 색깔처럼 붉어지고 연기가 형태가 있는 액체처럼 변하자 케시아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서서히 피부가 닭살이 돋고 뒷목이 서늘해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분명, 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 액체는 무언가로 변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드디어… 드디어!!”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케시아와 달리, 이 의식을 진행하는 모르가나의 얼굴은 이미 황홀감에 물들어있었다. 설마 했지만 정말로 소환의식이 성공되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은 제물에 있어 부족할 수 있으나 모르가나는 이번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물에 사용된 하얀 단지도, 왕녀가 가져온 심장도, 왕녀 본인도 대악마를 소환하는 것에 있어 이보다 더 최적일 수가 없는 조건들이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검붉은 연기는 이미 짙은 피의 색처럼 액체가 된지 오래였다. 그리고 완전한 액체 형태가 된 순간 핏물처럼 보이는 액체는 한껏 하늘로 솟아올라 한줄기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둥근 문양의 전체를 붉게 적셨다.

“저것은─!”

모르가나가 외친 동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둥근 문양 위로 새까만 스파크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전체를 퍼지면서 마치 날카로운 칼로 천 조각을 뚫어 찢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찢어지면서 그 안으로 날카로운 손톱을 지닌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불쑥 튀어나온 손이 강제로 공간을 넓히려는지 또 다른 손이 튀어나면서 찢어진 공간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고 사람으로 착각할만한 누군가의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까지 전부 공간을 찢어 나온 순간, 케시아도, 모르가나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루네즈도 그 어떤 한 마디 조차 꺼낼 수 없었다. 숨을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건지 처음부터 잊은 것처럼 세 사람은 저마다 제 목을 부여잡으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에 숨을 꺽꺽 들이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날 깨운 것이 누구냐."

사람의 말인지 동물의 말인지 세 사람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등장이 주변 공기를 전부 태워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무지 호흡할 수 없는 환경에 세 사람 모두 끅끅 거리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정체불명의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자가 없는 공중에 다리를 꼬고 앉아 뾰족한 손톱이 돋보이는 손가락을 튕겼다.

"감히 인간 따위가 겁도 없이 날 소환하다니. 지금 너희들이 숨을 못 쉬는 것은 그 대가를 잠깐 치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걸 아마 공포… 라고들 하지? 그러니 내가 소환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게 좋을 거다. 내 구미를 당길 이유를 대서라도."

고작 손가락 한번 튕겼을 뿐임에도 주변 공기가 되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 사람은 길게 공기를 들이켜 점점 호흡을 편히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호흡문제와 별개로 상대는 정말로 소환된 악마. 그것도 보기도 끔찍한 소악마의 존재가 아닌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지닌 대악마였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실타래처럼 시선을 빼앗길 만큼 공중에 흩날리는 은빛의 머리칼은 무척이나 눈이 부셨고 인형보다 더 인형 같은 새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사이로 힐끗 보이는 송곳니는 그가 사람이 아닌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케시아는 그 어떤 것보다 피처럼 새빨간 눈동자로 오직 저를 보고 있는 대악마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아름다움이란 단어만으로도 부족할 만큼 감히 악마라고도 부를 수 없는 미모.

케시아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주저앉던 제자리에서 일어나 악마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한발자국 나아가던 순간이었다.

“케시아 왕녀전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상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악마. 더욱이 대악마는 보시다시피 저런 외모만으로 사람을 홀려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정신을 붙들어 매십시오.”

"시체를 인형처럼 부리는 강령술사 따위가 잘도 악마를 안다는 듯이 지껄이는 군.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 그 눈으로 익힌 세월의 지혜대로 우리는 그저 짐승처럼 욕구를 채우는 존재. 쾌락과 욕구가 전부이고 유혹이 우리들의 지략이지."

“...”

"그래서? 함부로 대악마 따윌 소환하지 않을 강령술사가 무슨 이유로 나를 소환했지?"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으나 입술을 열지 않음에도 신기하게 들리는 악마의 목소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홀릴 만큼 무척이나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케시아가 정신을 빼앗기려던 찰나,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지 모르가나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소환의 이유를 밝혔다.

“그것은 제 뒤에 있는 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 언제나 침묵이 답인 것 마냥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신이 아닌, 나 같은 악마에게 소원이라..."

흥미가 생긴 걸까? 요염이 눈웃음을 지으며 더욱 짙게 입꼬리를 올린 악마는 마치 눈앞의 먼지를 치워버리기라도 하듯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오른 손을 슬쩍 휘저었다.

“억──!”

단순히 손을 휘젓는 흉내만 냈을 뿐인데 케시아의 시야를 가로막고 선 모르가나는 악마의 손짓에 따라 공중에 몸이 띄워지면서 바로 옆 벽면을 향해 하나의 물건처럼 몸이 부딪쳐졌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악마의 행동에 모르가나는 신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악마는 봐줄 생각이 없는지 시선은 여전히 케시아에게 향한 채로 손가락을 까딱하며 모르가나를 공중에 포박시켰다.

"방해물은 일단 저렇게 두고… 인간계집이여. 네가 직접 설명해라. 내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소…원…?”

"그래, 소원. 내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그토록 소원에 집착하게 만들었지, 또 무엇이 그토록 너를 애달프게 하며 비틀린 집착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마."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홀린 듯이 악마를 보고 있던 케시아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를 그토록 애달프게 한 것. 그리고 오직 한사람만을 향한 집념이자 집착일지 모를 애증. 케시아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다시 들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깨끗함의 눈빛은 빛을 바랜지 오래. 케시아의 눈빛은 전혀 다른 눈빛으로 바뀌어있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악마조차 움찔할 만큼 집착과 비틀린 사랑에 물든 그런 광기에 찬 눈동자였다.

악마는 진하게 미소를 덧그렸다. 수많은 인간을 보았지만 그녀만큼 욕망이란 광기에 집착이란 광기에 물든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이 그녀를 저토록 비틀리게 만들었지 알 수 없으나 흥미로운 것은 사실. 악마는 그녀가 무슨 소원을 말하지 무척 궁금했다.

“내 소원은...”

"..."

“내 소원은, 그 사람을… 루드비카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 그러니 내 소원을 들어줘. 당장! 루드비카를 살리는 게 내 소원이야!!”

"흐음, 루드비카라..."

무엇이 그녀를 저리 몹쓸 게 만들었는지 궁금했으나 기껏 나온 소원이 결국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이라니. 어쩐지 흥미가 조금 식어가는 악마였다. 하지만 수 백 년 만에 뚫고나온 인간의 세상. 이대로 돌아가기엔 무언가 아쉬웠다. 거기다 그냥 돌아가기엔 그녀의 광기가 악마를 조금, 아주 조금 갈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굳이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 악마인 그는 그저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그 뿐이었다.

단, 소원을 들어주기 전 악마 같은 방식이 조금 필요할 뿐.

"인간계집이여, 네 소원 들어주도록 하겠다."

“저, 정말로?”

"하지만 그전에..."

“...그전에?”

"나는 몹시 배가고프다. 나의 갈증을 채울 처녀의 피와 배를 채울 처녀의 육체가 필요하지. 한명이든 두 명이든 좋아.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처녀를 내게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갑자기 그런 억지가 어디에──!”

그 순간, 소리를 빽 지르던 케시아는 목소리를 멈춰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악마의 말을 듣자마자 처음에는 그 제물을 어떻게 당장 바쳐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나 오히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처녀 두 명을 찾을 것도 없이 바로 근처에 있지 않는가?

“와, 왕녀전하...?”

무언가를 느꼈는지 루네즈의 떨리는 음색이 들렸지만 케시아는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르가나는 볼 필요조차 없이 케시아는 악마를 향해 일말 죄책감조차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그 두 사람을 가리켰다.

“저 두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 한쪽은 오랫동안 내 수발을 든 시녀. 그리고 한쪽은 노파. 만약 노파가 처녀가 아니라면 그까짓 거 당장 나가서 데려오겠어.”

"대단하군. 저 둘을 논외로 치거나 감쌀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이 영략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보다 더한 악마라고 해야 할까? 뭐, 나쁠 것 없겠지. 어차피 갈증과 잠깐의 배만 채우면 될 뿐. 내 먹잇감이 처녀이든 계집이 아니든 상관 따윈 없지만."

그 순간, 한참 동안이나 눈웃음을 짓고 있던 악마는 핏빛의 눈을 떠 공중에서 발이 닿는 바닥으로 조용히 착지했다. 그리고 핏빛의 눈동자와 미간에 힘을 주는 동시에 악마는 케시아에게 검지손가락을 입가에 올리며 한 가지 주의를 주었다.

"내가 먹이를 먹을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평생, 악몽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악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케시아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우지끈하는 무언가 부러지는 소름끼치는 소리와 비명이 채 나오기도 전에 끊겨버린 두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지하실의 가득 채우는 비릿한 피 냄새는 역겨울 만큼 케시아를 청각, 후각을 괴롭게 만들었다.

“우욱...”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턱에 힘을 주고 어떡해서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가까스로 인내하고 있을 쯤, 악마의 목소리가 케시아를 나직이 불렀다.

"눈을 떠라, 인간계집.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마. 그리고 네가 살리고 싶은 인간의 이름을 읊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영혼을 신의 품으로부터 떼어 줄 테니."

“루드비카… 루드비카를 다시 내 눈앞에… 루드비카를 영원히 내 곁에─!!”

어두컴컴한 지하실과 다른 바깥의 푸른 하늘이 점점 먹구름이 짙어지며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청명한 하늘의 모습에 밖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곧 놀라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 하늘 좀 봐! 태, 태양이!!”

하늘과 태양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손가락. 멀쩡히 하늘에 솟아 있던 태양 사이로 마치 검은 기운이 스며들 듯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양을 가린 검은 달. 그리고 지하실 곳곳을 부수는 검은 기운. 악마가 소환된 것처럼 검게 타버린 둥근 문양에서 칠흑의 안개가 퍼져나갔다. 악마는 자신을 소환시킨 모르가나처럼 특정한 주문 없이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는 것으로 하얀 단지 속에 깊이 묻어 있는 원념과 죽은 이의 생명이 묻어 있는 흙과 유골을 전부 꺼내 한명의 지휘자처럼 손가락을 유연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 악마는 뾰족한 손톱을 이용하여 단숨에 손목을 그어 공중에 떠 있는 모든 것에 제 피를 적신 순간, 검은 안개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 아주 잠시 동안 주변을 새까만 암흑으로 물들였다.

“이게 대체...”

서서히 그치는 검은 안개 속, 케시아는 흐릿한 눈으로 악마의 존재를 찾으며 몇 번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완전히 안개가 그치고 주변이 다시 피어오른 촛불로 시야가 또렷이 보인 순간, 케시아는 숨을 멈추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다.

“루드… 비카...?”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바닥에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이는 틀림없는 루드비카였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기사의 제복을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모습.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케시아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미처럼 붉었던 그의 머리칼이 새하얀 장미마냥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비어버린 핏빛 눈동자를 본 순간, 케시아는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악마를 향해 다급히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째서 루드비카의 머리색이랑 눈동자가... 혹시 당신이 무슨 짓을 한건─!”

"내 피로 하여금 지상에 다시 재창조된 인간의 몸이다. 한마디로 난 그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조물주이자 인간의 말을 따라하자면 어버이인 셈. 그러니 머리색과 눈동자색이 나와 똑같은 건 어쩔 수 없군."

“그럼 눈을 떴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건 대체 왜...”

왜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간단했다. 살아생전 루드비카란 인간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그 영혼의 반은 방금 만들어낸 육체에 깃들어있지만 나머지 반쪽은 어딘가에 얽매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소원은 오직 루드비카란 인간을 되살리는 것 뿐. 되살린 인간이 인형마냥 움직이지 않던 정신이 어떻든 악마는 제 본분을 다했을 뿐,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인간계집이여, 네 소원은 오직 그를 되살려달라는 요구뿐이었다. 이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줘야 하는 거지?"

“하, 하지만…!”

"내게 또 다른 소원을 빌고 싶거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테고."

그토록 원하던 인간을 손에 넣어서 일까. 악마는 그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에 만족하는 케시아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아직은 인간계를 떠나기엔 아쉬웠다. 악마는 품에 남자를 끌어안은 케시아를 흘끗 보고는 미련 없이 검은 안개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악마가 떠났든 떠나지 않았던 오직 루드비카 밖에 보이지 않던 케시아는 흡사 광인과도 같은 음산한 웃음소리를 내며 인형처럼 눈만 멍하니 뜨고 있는 루드비카를 품에 끌어안은 채 나직이 속삭였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상관없어. 당신은 이제 내꺼야. 그 누구에게도 못줘. 인형마냥 움직이지 못하는 겉껍데기여도 상관없어. 당신은 내가 살렸고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 절대로 못 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사브레 왕국의 건국 이래 최초의 여왕이자 여인의 몸으로 왕좌를 쟁취한 40대 국왕 헤르세인 루 에른스트 베르제데스 2세. 그녀는 왕좌에 올라 권력을 잡은 즉시 본격적인 물갈이와 칼바람을 일으켰다. 그 첫 번째는 바로 39대 국왕이었던 폐왕 위스턴을 역대 선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역사에서 이름을 말끔히 지워냈고 폐왕 위스턴으로 인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에른스트 왕태자를 복귀시킨 것은 물론, 더 높게 격상시켜 에른스트 왕태자가 본래 앉았어야 할 국왕의 자리를 십 수 년 만에 국왕으로서의 이름을 새길 수 있었다.

폐왕 위스턴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다시금 새겨진 39대 국왕, 에른스트 칼 레자르 베르제데스 1세. 죽은 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왕의 이름과 함께 헤르세인은 폐왕의 왕비였던 어머니 또한 작위를 복귀시킨 것은 물론, 왕후로서 격상시켜 새로운 기록을 새겨 넣었다. 또한 그녀의 유골을 하늘의 신전이 아닌 역대 선왕들과 왕후들이 잠들어 있는 지하묘지에 옮겨 작은 제단을 만들어냈다.

왕후, 아라네아 뷘 라니아 베르제데스. 오랫동안 폐왕과 왕태자를 지지한 힘을 잃은 왕당파의 몇몇 세력은 헤르세인의 행동에 불만을 나타냈지만 결국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헤르세인이 휘두르는 검은 매서웠고 왕태자는 물론 폐후 카타리나와 연관된 왕당파들은 전부 봐주지 않고 3대가 멸할 숙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에른스트 왕태자를 몰아내고자 폐왕을 도왔던 귀족들이란 귀족은 전부 찾아내어 어디까지 도움을 줬는지에 따라 헤르세인은 지독한 형벌을 내리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교수형에 처하거나 작위를 격하시키거나, 쉴 틈 없이 라인하르트 가문과 그레이스 가문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가장 카타리나에게 힘을 주었던 다빈느 후작을 직접 두 눈으로 처형한 것은 물론, 그 어떤 귀족도 다빈느 후작의 ‘다’자 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다빈느 가문은 모든 재산몰수와 함께 3대가 멸문 당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으면 새로운 등용도 있는 법. 헤르세인은 왕태자와의 싸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각 귀족들에게 포상을 내렸고 가장 많은 사병과 힘을 써준 그레이스 가문과 라인하르트 가문은 작위 상승과 함께 가장 거대한 공작 가문으로서의 현 귀족들의 실세가 되었다.

또한 헤르세인이 그 다음으로 움직인 것은 빈센트의 작위. 헤르세인이 왕좌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빈센트는 서열 2위가 되었지만 헤르세인과 빈센트가 가진 혈통은 똑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었다. 직계이자 정통성의 핏줄을 지닌 헤르세인, 그리고 폐왕의 핏줄을 이은 빈센트. 온건파는 물론 귀족파의 다수 귀족들이 손을 들어 빈센트의 처우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빈센트의 문제는 무척이나 복잡한 핏줄이나 다름없었다.

폐왕의 핏줄을 생각하면 빈센트의 몸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왕후로 격상된 아라네아의 핏줄이었으며 폐왕의 핏줄임을 걸고넘어지기엔 빈센트는 헤르세인의 지대한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도 했다. 같은 생모의 핏줄, 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생부의 핏줄.

하지만 왕좌에 오르기 전, 헤르세인은 이미 오랫동안 생각한 계획이었으며 빈센트와 논의한 이야기였기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는 귀족들은 헤르세인의 선언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왕자, 빈센트 드 레이람 미르세니안은 오늘부로 왕자의 작위를 박탈하고 그에 알맞은 작위로 격하하겠소. 하지만 폐왕과 전혀 다른 인품을 가진 왕자로서의 지난날과 선대 아라네아 왕후의 핏줄임을 감안해, 왕자 빈센트에게 백작의 작위를 줄 것이며 또한 라즈니엘의 성을 내리겠소."

왕자의 신분에서 라즈니엘이란 성의 백작이 된 당시의 빈센트는 어린나이 답지 않은 겸손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어 헤르세인의 명을 철저히 따랐다. 하지만 빈센트가 혹시라도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수도에 있는 땅과 저택을 내어주었고 그때부터 헤르세인은 빈센트에게 위협될만한 인물들과 폐왕의 핏줄인 것을 이용하려는 불온의 싹들을 전부 가려내고 제거했다.

그렇게 대대적인 물갈이와 피의 숙청이 2년 만에 끝나고 사브레 왕국에 평화가 온지도 5년. 시간은 순식간에 총합 7년의 시간이 흘렀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의 정세는 격변하듯 많은 것이 바뀌었고 헤르세인 역시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독히 저를 옭아매는 귀족들과 가끔씩 골머리를 썩게 하는 변덕적인 날씨. 왕이 되고서나서 과연 이 많은 일들을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공작과, 라인하르트 공작의 도움으로 세간을 넓히고 지식을 쌓으며, 또 정치를 알아가며 그렇게 나 홀로 걷는 고독의 싸움을 시작했다.

“폐하, 하루라도 빨리 국서를 들이시옵소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폐하의 빈자리를 채울 국서가 필요하옵니다!”

“부디, 폐하를 위한 소신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옵소서!”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하나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국서란 이름으로 가려진 반려일지도 몰랐다. 7년 동안 헤르세인은 일에 미친 사람 마냥 정무에 열중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신경을 긁는 건, 귀족들이 하나가 되어 똑같이 외치는 국서라는 단어일지도 몰랐다.

국서.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첫 제안한 것이 바로 라인하르트 공작. 그가 아니던가. 하지만 그의 배려로 헤르세인은 지금까지 국서의 자리를 비웠지만 그 자리를 오래 비운만큼 귀족들은 저마다 불안한 건지도 몰랐다.

아무리 왕이 건재하다 해도, 결국 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건 후계자의 존재.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헤르세인은 더 이상, 애틋하고 절절했던 첫사랑의 감정 따윈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오랜 추억처럼 어쩌다 한번 떠올리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뿐. 하지만 국서의 빈자리가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라인하르트 공작에게 처음 제안했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내키지 않았다.

결국, 헤르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늘 그랬던 것처럼 귀족들의 외침을 무시하며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것 뿐 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양가 없는 회의를 끝내며 먼저 회의장에서 빠져나온 헤르세인은 바로 뒤쫓아 온 프레이 백작을 볼 수 있었다.

“폐하.”

“프레이 백작.”

한때는 공녀라는 이유로 백작의 작위를 물려받을 수 없던 엘리카는 헤르세인의 집권과 동시에 무사히 작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단알은 이젠 거의 예전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안정적이고 왕성에 단알의 토산물을 납품할 정도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수도에 진출까지 해, 가끔씩 귀족회의에 참석하는 그녀였지만 엘리카는 아직까지 정치 쪽은 어려운지 중요한 귀족회의가 아니면 단알로 내려가 그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이번엔 무슨 일인지 중요한 귀족회의가 아님에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그녀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회의장에서 줄곧 바뀌지 않던 서늘한 무표정을 풀어 인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전보다 얼굴이 탄 것 같군.”

“요즘 단알에서 타국에서 수입한 특수 작물 재배 연구로 제가 주도하여 돕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서신은 무시했던 거로군.”

“아, 아닙니다! 폐하!”

엘리카는 그런 게 아니라며 격하게 양손을 들어 손 사례를 쳤지만 헤르세인은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보일 듯 말 듯한 입꼬리를 올리며 먼저 자리를 이동했다. 헤르세인의 움직임을 따라 바로 곁을 쫓아 이동하던 엘리카는 어느새 산책로로 들어선 것을 깨달으며 푸른 하늘을 보곤 평소엔 휘하의 부하들에게 꺼내지 않을 평범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르리스 부인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들었네. 오히려 그대에게 가는 소식이 느린 거겠지. 그보다 공작부인의 아이가 벌써 여섯의 나이가 되다니… 이럴 때보면 시간이 무척 빠르게 느껴지네. 엊그제만 해도 부인의 곁에서 하루 종일 울던 핏덩이가 재잘재잘 떠들고 두 발로 벌써 뛰어다닐 줄 누가 알았겠는가.”

헤르세인의 말처럼 시간은 눈 깜짝 할 사이였다. 아이르리스가 임신을 하고 그레이스 가의 또 다른 후계자가 태어났던 축복의 6년 전. 헤르세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르리스의 품에 색색 숨을 쉬며 아주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물거리며 잠을 자던 새빨간 핏덩이를. 물론 이제는 소가주가 아닌, 완전한 가주가 된 길버트와 아이르리스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저를 향해 걸어오던 그들의 아이를 계속 지켜보았기에 헤르세인은 아이의 성장속도가 그토록 빠르게 흘러갈 줄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다시 보았을 땐, 어느새 아이는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으며, 또 심지어 그 작은 다리로 뛰기까지 해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3년 전, 중년의 나이임에도 아직까진 젊은 나이인 그레이스 공작은 돌연 헤르세인에게 은퇴를 보고했다. 아이르리스와 길버트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손주를 제 손으로 키우고, 할아비로서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헤르세인은 처음엔 그의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를 결심한 공작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 이미 공작은 자신에게 충분한 조력자이자 힘이 되어주었고 공작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헤르세인은 감사함을 담아 명예 기사직의 훈장과 함께 왕실 서고에 방치되었던 몇몇의 귀한 보물들을 덤으로 그에게 선물을 보냈다. 은퇴한 공작은 나름 감동을 했는지 몇 통의 편지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스 가문의 작위 계승은 소가주이자 데릴사위인 길버트에게로 돌아갔다.

헤르세인이 왕권을 잡게 되면서 귀족들의 작위계승 기준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본래 공녀만이 있는 집안은 데릴사위나 방계 쪽의 친척을 들여 가문을 잇겠끔 법이 정해져 있었으나 헤르세인은 오랜 법들을 개정해 공녀들도 작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었다. 물론 처음에는 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으나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듯, 생각이 깨어있는 귀족들이 직접 나서게 되면서 현재 회의장에는 엘리카 뿐만이 아닌 가주의 작위를 물려받은 젊은 여인들이 정치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또한 원래라면 법이 개정되기 전, 그레이스 가주의 자리는 데릴사위인 길버트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하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이르리스는 그것을 거부하고 공작부인 자리에 남을 것을 선택했다.

"죄송하지만, 폐하. 저는 계속 귀부인 자리에 머물까합니다. 폐하께서 법의 개정하시고 덕분에 많은 공녀들이 가주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본디 공녀이기 이전, 정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녀로서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저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 재능이 되지 못하고 제가 가주 자리에 앉아 과연 그레이스 가문을 올바르게 다스릴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 면에서는 저보단 제 남편인 길버트가 더 가주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폐하,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내로서 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선택에 헤르세인은 그저 선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든 가문의 작위 승계의 일은 가문내의 일이지 저가 굳이 끼어야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일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르리스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쩔 땐, 그 모습이 조금 부럽기까지 할 만큼 아이르리스는 정말로 행복해보였다.

그녀를 떠올릴 때면 아이의 포동포동한 뺨을 맞대고 꺄르르 웃는 그 모습이 제일먼저 떠올라 헤르세인은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며 어느덧 하얀 장미가 활짝 핀 따뜻한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치안이 좋지 않는 어느 낡은 2층의 집. 하지만 겉은 음산한 분위기를 보이는 낡은 집이나 실내는 어느 정도 사람내음이 나는 꾸며진 집인지 굴뚝에서는 한창 요리가 볶아지는 연기가 뭉개 뭉개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손에 드문드문 난, 작은 상처를 여실히 보여주듯 볼품없는 옷을 입은 채 한창 칼질을 하고 있던 케시아는 끓여지고 있는 묽은 수프에 큼직한 당근을 쏟아내며 묽은 수프요리가 완성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냄비를 끓는 불을 끄고 손에 대지 않도록 두꺼운 장갑을 끼어 냄비 째로 식탁에 옮긴 케시아는 콧노래를 흥얼거린 채, 수프를 담아 먹을 접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탁에 놓아진 접시는 총 2개. 마지막으로 국자와 수저를 각 자리에 놓은 케시아는 손뼉을 치며 서둘러 계단을 타고 2층으로 향했다. 끼익끼익 요란스러운 소리가 날법함에도 케시아는 개의치 않는지 어느새 굳게 닫힌 문 앞에 도착하자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진 열쇠를 꺼내 하나의 자물쇠를 풀어냈다.

자물쇠의 잠금장치가 풀렸음을 알리는 달칵 소리와, 문을 완전히 개방한 낡은 문소리를 들으며 케시아는 햇볕이 내리쬐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

이름을 불렀음에도 여전히 인형처럼 반응이 없는 그의 모습. 7년 전 그는 분명 케시아가 대악마로 하여금 살려낸 루드비카가 틀림없었다.

“아이참, 루드비카. 일어났으면 일어났다고 말했어야지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제는 붉은 장미 꽃 색으로 변하길 포기한 흰 장미색의 머리칼. 가끔씩 루드비카의 은발을 볼 때면 7년 전 소환의식에 나타난 대악마의 반짝이던 은발이 떠올리곤 했다. 물론 붉은 장미처럼 새빨갛던 그의 머리색이 그리운 것은 틀림없으나 7년 동안이나 계속 지켜봐서 인지 이젠 그의 머리가 적발이든 은발이든 케시아는 아무래도 좋았다.

“루드비──.”

하지만 익숙히 알고 있던 그의 호박 빛의 눈동자가 아닌,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비어버린 핏빛의 눈동자와 마주할 때면 케시아는 저도 모르게 입을 쉽게 열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겉껍데기의 텅텅 빈 인형. 7년이나 지났음에도 케시아는 루드비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물며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어디를 보아도 그저 살아있는 인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 그러나 아주 가끔씩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핏빛 눈동자를 볼 때면 온몸에서 느껴지는 낮선 소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저도 모르게 마주칠 때면 느껴지는 그 오한이 소름이 가끔씩 케시아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제 손에 들어온 운명. 과거 따윈 더 이상 중요치 않았다. 그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과정역시 중요치 않았다.

그가, 제 손에 제 품에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할 뿐. 케시아는 빙긋 눈웃음을 지으며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를 일으켰다.

“자, 루드비카. 우리 아침식사 하러가요. 어서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요? 응?”

서로가 볼 수 있도록 마주 앉은 식탁. 그리고 각자의 앞에 놓아진 묽은 수프가 담긴 그릇. 케시아는 만개한 미소를 그리며 수저를 들어 저가 만든 수프를 입에 넣었다. 하지만 입에 넣자마자 어딘지 부족한 미묘한 맛에 케시아는 그만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다.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왜 이러지?’

분명 시답지 않은 레시피로 만든 묽은 수프였다. 하지만 케시아는 지난 7년간 직접 요리를 만들었음에도 본인은 느낄 수 없었다. 요리에 재능이 없음을. 특히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도 똑같은 맛을 만들어낼 수 없던 케시아는 이만 수저를 내려놓았다. 물론 수저를 내려놓는 것은 저 혼자 뿐. 케시아는 어느새 맛 따윈 잊어버리고 멍하니 인형처럼 수프가 담긴 그릇을 보고 있는 루드비카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루드비카, 어서 수저를 들고 내가 만든 요리를 먹어봐요. 아니면 내가 먹여줄까요?”

“...”

무슨 말을 하던 전혀 반응이 없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케시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옮겨 루드비카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저를 든 케시아는 그릇에 담긴 수프를 한 수저 떠, 혹시라도 뜨거운 것에 혀가 데지 않도록 후후 불며 지극정성을 몸소 실천했다.

“자, 루드비카. 아─ 해봐요. 어서, 아─.”

“...”

입술 가까이 바짝 수저를 붙였음에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의 입술. 케시아는 몇 번이고 루드비카의 입이 열리도록 갖은 고생을 했지만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랐다. 결국 먼저 포기를 해버린 케시아가 더 이상 수프에 관심두지 않을 때, 의자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의 모습이 보인 건 그때였다.

“루, 루드비카?”

“...”

또 다. 벌써 7년째 루드비카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케시아는 가끔씩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지금 같은 상황. 아무리 그가 대악마가 되살린 육체라 해도 결국 식욕을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몸. 하지만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입에 무언가가 씹히고 목구멍으로 넘어간 것을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7년째 아무것도 먹지 않음에도 비쩍 마르기는커녕 체격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케시아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 어떤 음식이든 루드비카가 무언가를 먹고 배를 채우지 않음에도 멀쩡히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형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에 끌리듯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에 케시아는 나지막한 한숨을 뱉어내며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루드비카를 따라, 도착한 그의 개인 침실. 이미 도착하고 침대위에 누워 눈을 감은 그의 모습에 케시아는 손톱을 저도 모르게 물어뜯으며 불안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악마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면 케시아는 또 다른 소원을 빌고 싶을 정도였다. 이번엔 그의 정신이 말짱히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소원.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기억을 몽땅 잃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령술사인 모르가나는 이미 대악마의 배를 채운 제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 거기에 제물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해도, 케시아는 대악마를 소환할 주문 따위를 알지 못했다. 대악마를 소환할 방법이 없는 이상,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할지도 모를 운명.

루드비카가 완전한 인형처럼 행동하는 것이 케시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벌써 7년이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그를 재우고 씻겨주고 그와 어울리는 옷을 입히는 것까지 케시아는 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즐겁기까지 했다.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이 행복한 삶을.

물론 텅비어버린 인형마냥 루드비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제일 아쉬웠으나 케시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것. 루드비카는 여전히 저와 함께 있고 그가 정신을 차려 제 곁을 먼저 떠나지 않는 이상, 그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다. 아니, 설사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케시아는 그를 떠나보낼 생각 따윈 없었다.

그가 어디에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트려서라도 루드비카는 제 손에서 떠날 수 없었다.

‘당신은 온전히 내 꺼야. 내 꺼라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한 나의 것!’

불안의 증세가 심각히 도져서일까. 케시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갔다.

“...루드비카.”

잠에 든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을 감았음에도 죽은 시체마냥 미동조차 없는 그의 모습에 케시아는 손끝을 옮겨 그의 코끝에 대보았다.

“...”

죽은 시체처럼 보일지 몰라도 확실히 루드비카는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기엔 어느새 턱 끝까지 차오른 욕망이 케시아의 불을 지폈다. 서서히 굳게 다문 입술을 향해 거리를 좁히는 입술. 뺨에서 느껴지는 루드비카의 미약한 숨결이 케시아를 더욱 갈증 나게 만들었다.

조금 만 더….

조금 만 더...

저도 모르게 꿀꺽 삼켜진 갈증과 욕망. 그리고 그를 향한 애타는 마음까지. 케시아는 스르르 눈을 감아 제 숨을 멈추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만끽하려던 순간이었다.

“컥──! 루… 루드… 비... 카...!”

턱, 하고 정확히 케시아의 목을 움켜쥔 루드비카의 손. 그리고 번쩍 눈을 뜬 핏빛 눈동자는 여전히 텅 빈 인형과도 같았지만 그녀의 목을 움켜쥔 루드비카의 손은 케시아의 숨을 앗아 갈만큼의 강한 악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루… 드... 커억!! 제… 제… 발... 이… 손... 컥컥!”

한계에 다다른 듯 살기 위한 본능이 케시아에게 우선이었는지 제 목을 움켜쥔 루드비카의 손과 팔을 케시아는 몇 번이나 할퀴고 때리며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더 큰 몸부림으로 완전히 루드비카의 손에서 벗어난 순간, 케시아는 벌게진 얼굴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일그러진 표정을 그린 채, 호흡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헉… 헉… 헉...”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랫동안 참아온 욕망을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을 뿐인데, 마치 그 욕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언제나 인형처럼 있던 루드비카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다. 그것도 제 입술이 닿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처럼 목을 옥죄면서까지.

왠지 모르나 케시아는 오소소 닭살이 돋아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루드비카에게서 알 수 없는 공포가 느껴졌다. 물론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제 목숨을 위협할 만큼 목을 옥죄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다 가끔씩 그의 뺨을 건들기라도 하면, 루드비카는 케시아의 손목에 강하게 붙잡아 마치 제지라도 하는 것처럼, 제 몸을 건들지 않기 위한 것처럼 보랏빛의 멍 자국을 남기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 케시아가 그 일을 잊을 때면 루드비카가 다시 상시 키시곤 했지만, 오늘 같이 목숨을 위협한 일은 처음이었기에 케시아는 저도 모른 공포감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떠는 손과 입술. 주저앉던 그 상태로 케시아는 뒷걸음을 치다, 결국 루드비카에게서 도망치듯 침실을 벗어나고 말았다.

케시아가 사라진 고요한 침실. 핏빛의 눈동자를 그대로 뜬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루드비카는 다시 잠에 빠진 듯 스르륵 눈을 감았다.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에 빠진 수면상태에 들어섰을 때, 루드비카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검은 안개가 완전히 침실을 에워싸고 짙은 형태를 드러내 안개가 걷힌 순간, 그곳에는 루드비카와 똑같은 은발을 지닌 대악마가 공중에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괴며 루드비카를 관찰하고 있었다.

"이 인간의 몸에 깃든지 벌써 7년이 된 건가."

케시아가 그토록 찾던 대악마. 사실 그는 루드비카의 육체를 살리면서 두 사람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루드비카의 육체에 깃들어 인간의 숙주로 하여금 대악마는 인간세계를 즐길 생각이었다. 자신의 피로 하여금 되살아난 한 남자의 육체. 물론 거기에는 죽은 인간의 유골과 혼이 묻은 흙이 결합되어 그야말로 잘 만들어진 인간의 되살아난 육신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7년 전, 그는 분명 인간의 육신에 깃들 영혼을 신의 품에서 빼앗아 저가 재창조시킨 육체에 영혼을 집어넣었었다. 그리고 본디 영혼이 깃든 육신이라면 정신이 돌아오거나 스스로 움직일 법도 하지만, 그가 재창조한 인간은 텅 비어진 그릇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그저 숨쉬기만 할 뿐인 살아있는 인간. 물론 영혼의 반이 깃든 것이 틀림없으나 영혼의 반쪽만으론 살아있는 육신은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나머지 반쪽의 혼은 어디에 얽매여 있을까."

영혼이란 것은 대체로 하나의 혼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 실체는 달랐다. 인간이 죽어 신의 품으로 가는 것은 본디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선. 인간은 대체로 악만이 존재할 수 없었다. 신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으며 선과 악이 있기에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거나 또는 선량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신의 품으로 가는 선의 혼과 달리, 악의 혼은 그야말로 정신채 같은 것이기에 지상에 남아 있으려는 집념이 상당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특히나 눈썰미가 좋은 인간들이 간혹 유령을 봤다고 떠는 소수의 인간이 있으나, 인간은 모순적이게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별개로 인간은 결코 신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없는 법. 그것은 신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에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악마를 신을 볼 수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뚜렷하기에 인간은 악에 가장 물들기 쉽고 악에 깊이 물 들을수록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기엔 이미 늦은 후였다. 때문에 악마는 그런 인간을 가장 좋아했고 또 가장 순수한 인간을 제일 먼저 유혹하는 건지도 몰랐다.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가장 검은 유혹이 잘 통하는 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깃든 인간은 무언가 달랐다. 본래 그의 목적은 자신이 재창조한 인간의 육체에 깃들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세계를 즐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인간계집의 소원? 물론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저가 살린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온전히 제 마음이 아닌가? 살린 건 살린 거고 그 육체를 어떻게 할지는 자신의 마음. 악마라는 건 대개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악마로 태어나고 인간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유혹하며 가장 처절하게 빼앗는 것이 악마가 할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쪽의 혼이 어디 있는지 대충 감은 오지만…."

인간계집이 그토록 닳고 닳아 부르는 루드비카란 이름. 처음에는 그저 몸을 빼앗아 주도권을 장악하고 반쪽짜리 혼을 흡수한 채, 그대로 계집 곁을 뜰 생각이었으나 대악마는 재창조한 루드비카의 통제할 수 없었다. 빌어먹게도 7년씩이나 육체에 깃든 채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무것도 아닌 반쪽 혼 주제에 원념과 집념, 그리고 저조차 감탄할 집착이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는지 가끔씩 대악마는 반쪽짜리 혼과 맞붙을 때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만약, 나머지 반쪽짜리 혼을 도로 찾게 되어 온전한 하나의 혼이 된다면 이 혼은 어떻게 변할지. 이 루드비카란 남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는 인간계집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악마든 간, 악마의 피로 되살아난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이 뚜렷한 인간이 아닌 오직 악만이 가득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특히나 하나인 혼에서 떨어져 나와 지상에 오랫동안 붙어 있는 반쪽 혼의 집념과 원념은 거의 타락에 가까워질지도 몰랐다.

아직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살아있는 인형. 하지만 반쪽짜리 혼을 찾고 완전한 악으로 물든 혼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볼만할지도 몰랐다. 오히려 궁금하기까지 했다. 완전한 악으로 물든 루드비카란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또 그의 오랜 집념과 원념을 만든 집착의 원인을 찾아 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락 끝까지 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랐다. 오히려 제 힘을 보태 도와주기까지 하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하지만 일에 있어 모든지 때가 있는 법. 7년이란 시간이라 해봤자, 그에겐 기껏해야 7일밖에 불과하지 않은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물론 이 이상 지루해진다면 완전히 육체의 주도권을 빼앗아 인간계집을 죽이고 이곳을 떠나면 그만인 상황. 그러나 그는, 대악마는 아까 전의 일을 분명히 보고, 기억까지 하고 있었다. 한창 육체에 대한 주도권 싸움 중, 입술을 부딪치려던 인간계집을 향해 목을 조르던 그의 강한 증오와 거부의 본능을.

"이래서 악마가 사는 곳보다 인간세상이 더 재미난 법이지."

누구를 향한지 모를 비웃음과 함께 대악마는 다시 검은 안개가 되어 잠이 든 루드비카의 육체로 깃들었다. 처음부터 악마 따윈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한 침실.

땅거미가 지고 달이 차오른 그 순간까지 루드비카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여섯 살의 생일을 맞이한 그레이스 공작가의 어린 공자. 공작가에서 귀족들을 초대해 아들을 위한 생일파티를 연 아이르리스와 길버트는 하루 동안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해야만 했다. 특히나 귀족들이 건네는 선물공세와 또래의 공자, 공녀들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음을 쯤, 헤르세인은 시종을 통해 그레이스의 어린 공자를 위한 선물을 보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린 공자는 그녀가 보낸 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요즘 어린 공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하는지 라즐리를 통해 알아본 헤르세인은 장인들의 왕국, 또는 장난감의 왕국으로도 유명한 세레네스 왕국에서 직접 공수한 태엽 장난감을 선물했다.

태엽을 감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치 사람마냥 짧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네모난 직사각형의 상자. 거기에 얼굴까지 덧그린 것은 물론,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린 이빨과 네모난 눈을 보석으로 장식한 태엽 장난감은 또래의 공자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아이르리스도 길버트도 헤르세인이 그것을 어떻게 공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장난감의 모습이나 장난감에 박힌 보석을 보면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과연 그녀의 선물을 좋아해야할지 돌려보내야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섯 살의 생일파티가 끝난 이틀 후. 아이르리스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직접 왕성을 방문했다. 현재 그녀들이 있는 곳은 왕성에서도 가장 조용한 레인 궁의 정원. 본래 헤르세인이 왕녀이던 시절, 본궁으로 쓰던 장소였으나 그녀가 왕좌에 앉은 이후로 레인 궁을 다시 재건축하여 현재 이곳은 헤르세인이 생각을 정리하거나 쉬고 싶을 때 찾는 유일한 휴식장소나 다름없었다.

“폐하,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대의 아들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선물이거늘… 사양 말고 그대의 아들에게 돌려주게.”

“하오나 폐하,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비싼 것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선물을 제 아들에게...”

헤르세인은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뿐인 생일. 더욱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아이르리스이기에 헤르세인은 그 어떤 값비싼 것도 그녀에게나 어린 공자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리고 저 나이 때의 아이들은 특이한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었네.”

“하지만...”

“귀족들의 시선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네.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그대도 그대의 가문에도 통 신경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런 것이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주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번뿐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값비싼 선물을 보내신다면 그때는 제 화를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래, 알았네.”

결국 아이르리스가 졌다는 표정을 짓자, 차를 한 모금 마신 헤르세인의 입가도 어느새 잔잔히 웃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소하고도 담백한 담소를 나누고 있을 쯤, 저도 모르게 어린 공자에게 시선이 간 헤르세인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기억나는가? 그대가 아이를 낳고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를 데리고 내게 왔었던 그날. 그때만 해도 그 어린 핏덩이가 어떻게 성장하나 했는데… 벌써 말도 할 줄 알고, 저리 뛰어 놀 줄 아는 어엿한 여섯 살의 공자가 되다니.”

“예, 폐하. 시간이 참 빠르지요?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레이든의 핏덩이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시도 제 품에 떨어지지 않던 갓난아기였는데 어느새 저리 뛰어노는 것을 보면 시간이 빠르긴 빠르다 생각됩니다.”

레이든 벤 스완 그레이스. 그레이스 가의 장자이자 어쩌면 길버트의 뒤를 이어 차기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어린 공자. 물론 어린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레이스 가의 뒤를 잇는 다는 것은 벌써 시기상조이나 아이르리스도 길버트도 둘째에 대한 큰 욕심이 없는 것을 보면 레이든이 차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될지 모를 머나먼 미래.

지금 당장 헤르세인이 눈에 담긴 레이든의 모습은 하얀 나비를 쫓아 꺄르르 웃으며 쫓아가는 순수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런 공자의 곁에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 조마하는 전담 호위기사의 모습 역시 화목함의 그 자체였다.

화목함의 상징이자 모든 귀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레이스 가문. 평민의 신분임에도 데릴사위가 되어 그리고 가주로서 작위가 상승한 길버트를 향해 좋지 않은 험담이나 시선을 보낸 이들도 있으나 아이르리스의 내조와 길버트의 타고난 능력 덕분인지 그레이스 가문은 은퇴한 전 공작, 아치발트가 이끌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가문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는 왕당파의 큰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그레이스 가문과 또 하나의 거대한 가문 라인하르트 가문. 현재 헤르세인의 큰 힘이자 절대적인 왼팔이자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두 가문이 버티고 있기에 왕권은 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강해진 왕권과는 별개로 다음 대를 이을 후계자의 부재는 역시 지나칠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길버트도, 아이르리스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어, 폐하...”

“혹시 혼인 얘기를 할 생각인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듭니다. 폐하께서 제 속을 꿰뚫는 천리안을 가지신 게 아닌지 말입니다.”

그 어떤 질문조차 꺼내지 않았음에도 단번에 저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맞힌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늘 귀족들에게 혼인문제로 시달리는 그녀이기에 직감만으로 알아맞힌 건지도 몰랐다.

“송구합니다, 폐하. 제가 감히 그 문제를 꺼내선 안 되는 건 알지만… 저는 혼인 문제보다 단지 폐하의 걱정이 큽니다.”

“…걱정?”

“오랜 시간 폐하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 오랜 시간 함께한 것만으로 폐하의 모든 면을 전부 파악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아온 폐하께서는 표현이 서투시지만 그럼에도 따뜻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폐하께서 왕녀시절의 모습일 뿐,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 고독의 길을 걸으신 폐하의 모습을 볼 때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실까… 혼자 걷는 그 길이 힘드시지 않으실까… 누구라도 좋으니 폐하의 안정이 될 사람이 폐하의 곁에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지요.”

외로움. 지난 7년 동안 헤르세인은 외로움은커녕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새 없이 일에 치인 것과 별개로 모든 감정을 죽여야만 했다. 그래야 손에 그 어떤 피가 묻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왕이란 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헤르세인의 각오이자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길이기도 했다.

덕분에 피도 눈물도 없는 국왕이란 소리와 각종의 말도 안 되는 호칭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헤르세인은 그들이 저를 향해 무슨 말을 하던 상관치 않았다. 그들이 부르는 호칭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었고 결국 그들의 피가 손에 묻을지 안 묻을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왕으로서의 자비심을 보일 뿐.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이 되, 자비심을 베풀 줄 아는 왕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

그래서 일까. 혼인, 그리고 국서란 자리는 그 자리에 맞는 적합한 사람만 온다면야 헤르세인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아니, 누가되었든 그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다만 누구라도 상관없는 마음과 별개로 여전히 내키지 않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있었다. 또한 1년, 2년이야 왕권을 안정시킬 시기이니 모두가 강제적으로 침묵했을지 몰라도 7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귀족들은 여전히 비워지고 있는 국서에 자리에 더욱 서서히 탐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아뢰옵기 송구하나, 루드비카라면 폐하께서 평생 혼자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문득, 전에 만난 라인하르트 공작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평생 저 혼자이길 원치 않을 거라던 루드비카를 빗대던 그의 말. 어쩌면 공작의 말처럼 루드비카라면 충분히 그 말을 남겼을지도 몰랐다. 그 사람은 루드비카는 제게 있어 그런 사내였으니까.

‘국서의 자리라...’

이제는 정말로 매듭지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랐다. 이 자리에, 왕좌의 자리를 떠나기 전까진 평생을 비워둘 수 없는 국서의 자리. 헤르세인은 다시금 뛰어놀고 있는 레이든에게 시선이 갔다. 뭐가 그리 즐거운 것인지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는 청명하기까지 해 줄곧 헤르세인이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사로잡기까지 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 자식이든 아니든 분명 닮았을 텐데.’

그를 닮은 붉은 장밋빛의 머리칼을 가진 어린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든 사내아이든 분명 그 어느 곳 하나 못나지 않고 그를 빼다 박은 만큼 어여쁠지 모를 아이의 얼굴. 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아이도 그처럼 아름답게 성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한 한계. 이미 그는 과거의 사람이었고 7년의 시간은 헤르세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루드비카.’

한 글자, 한 글자 그 어느 곳 하나 소중히 그리고 애절히 부를 수밖에 벗는 한 사람의 이름.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흔적조차 볼 수 없는 새파랗기만 한 하늘의 색. 저 끝 어딘가 그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헤르세인은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하지만 그를 온전히 생각하기엔 7년이나 지난 시간의 흐름. 그를 잊은 것도 외면하는 것도 여전히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 아픔을 잊은 건 아니었다. 단지, 여인으로서의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왕으로서의 판단이 그녀에겐 제일 우선순위가 되었을 뿐.

오랫동안, 헤르세인은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르리스가 레이든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 줄곧 혼자의 시간에 갇혀 있던 헤르세인은 드디어 결심한 마음의 가짐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흔들릴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것도 없었다. 그저 왕으로서의 결단만 남았을 뿐. 그렇게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던 레인 궁을 떠나 본궁으로 되돌아갔고 얼마 후, 모든 귀족들이 모인 그들 앞에 헤르세인은 선언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귀족들에게 알리겠소. 그대들의 과업이라 생각한 나의 혼인을, 즉 국서를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으로 맞이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선언하겠소.”

목이 졸린 그날 이후. 케시아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음에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척 루드비카의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바뀐 점이 있다면 평소에 드러냈던 맨 목이 아닌, 낡은 스카프로 목을 가린 옷차림이었으며 목이 졸린 공포감 때문이었는지 케시아는 전보다 루드비카를 함부로 건들이지 못했다.

“루, 루드비카?”

“...”

그의 손에 목이 졸린 일이 마치 악몽인 것 마냥 현실은 없던 일처럼 다시 인형처럼 되돌아온 루드비카의 모습에 케시아는 아주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텅 비어진 껍데기와도 같았다. 하지만 고작 입술을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루드비카를 케시아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루드비카가 그런 짓을 저지를 리 없다는 현실을 부정한 채, 케시아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루드비카, 간만에 우리 밖에 나가 산책할래요?”

“...”

“이참에 공기도 쐬고 기분도 전환할 겸 나가봐요. 응?”

루드비카에게선 그 어떤 반응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꿈쩍 않을 그녀가 아니었다.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팔을 잡고서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끌어낸 다음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의 시선에도 띄지 못하도록 보석을 꽁꽁 숨기듯 허름하고 우중충한 긴 로브를 씌어주었다. 한눈에 보아도 수상쩍은 것 같으면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음습한 모습.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 케시아 역시 그나마 평범한 로브를 뒤집어 쓴 채, 루드비카의 팔에 제 팔을 끼어 넣어 오랫동안 나가지 않던 집밖을 나섰다.

루드비카의 느릿한 보폭에 맞춰 케시아가 향한 곳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의 중심인 광장. 물론 광장까지 가는데 있어 낡은 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루드비카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 케시아에게 있어 이동시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았다.

한참을 이동하여 드디어 도착한 광장. 케시아는 여전히 멍 한 채로 제 손에 이끌리는 루드비카를 단단히 팔짱에 끼고서 본격적으로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국서의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헤르세인의 선언은 귀족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그녀의 선언은 안심이 되는 한편으론 또 다른 욕심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혼인을 치루지 않은 제 아들을 국서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욕심과 젊은 나이에 가주가 되어 국서가 되겠다는 젊은 미혼 귀족들의 야심. 물론 당장 혼인을 하겠다, 선언한 것이 아니지만 그날 이후부터 헤르세인의 집무실은 닫힐 틈도 없이 수많은 귀족들이 거쳐 가기 바빴다.

“하아… 당장 혼인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부터 떠는 건지….”

그레이스 공작가의 기사였다가 소속을 옮겨 헤르세인의 직속 호위기사가 된 라피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함께 곁을 지키는 라즐리에게 불평을 토해냈다. 하지만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며 헤르세인이 부를 때까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라즐리는 그런 라피스에게 따끔히 한 소리를 건넸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본분에 충실해. 호위기사로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폐하께서 그날 선언하신 이후로 귀족들이 너무 대놓고 이곳을 찾아오잖아.”

예전의 그 착하던 동생은 어디 갔는지 라즐리는 성격이 변한 라피스를 볼 때면 그때가 그리웠다. 오랫동안 그레이스 공작가의 기사로서 굴려진 탓에 안변해야 안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라피스는 그나마 말투를 빼곤 심성이 착한 것은 여전하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즐리가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모른 채, 미간을 좁히며 헤르세인을 귀찮게 하는 귀족들을 안 좋게 보던 라피스가 다시 불만이 담긴 입을 열던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열리면서 라피스도 라즐리도 곧바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늙은 귀족이 아직 혼인을 치루지 않은 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야기가 잘 통한 것 마냥 허허 웃으며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인 채, 사담을 나누며 눈 깜짝 할 사이 복도에서 멀어지자 그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던 라피스는 작게 혀를 찼다.

“아무리 욕심나도 어린애는 아니지 않아?”

“라피스.”

“아, 알았어. 입 다물고 있을게.”

라즐리의 한 마디가 결국 라피스가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가 해야 할 일이 왔음을 직감한 라즐리는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폐하, 시녀장 라즐리입니다.”

라즐리의 목소리가 조금 늦게 닿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몇 초가 조금 지나서야 들어오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라즐리는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라피스에게 제대로 하라는 눈치를 주곤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폐하.”

“...”

일일이 귀족들을 상대하느라 피곤해진 건지 헤르세인이 눈가를 꾹꾹 누르며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웬만하면 집무실에서조차 피곤해진 티를 내지 않는 그녀였던지라 라즐리는 걱정과 함께 일단 그녀의 피로를 풀 차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뗐다.

“폐하, 차를 올릴까요?”

라즐리의 마음과 달리 차 생각이 전혀 없던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어 다음 일정을 물었다.

“아니, 되었다. 그보다… 방금 나간 귀족이 마지막이었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약속된 일정도 이제는 없으십니다.”

조용히 라즐리의 말을 듣고 있던 헤르세인은 꾹꾹 눈가를 누르던 손짓을 멈추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입가와 입술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지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라즐리에게 간만의 외출을 알렸다.

“오랜만에 외출을 해야겠다.”

“예? 외출이라 하시면...”

“잠행이 될 테니, 눈에 띄지 않는 평복으로 준비토록.”

“알겠습니다.”

삼십분 후. 라즐리가 준비한 평복으로 갈아입어 잠행 준비를 마친 헤르세인은 저와 똑같이 평복을 갈아입은 라즐리와 라피스 남매를 볼 수 있었다. 잠행이란 것은 곧 누구의 눈에도 띄어선 안 되는 특별한 외출과도 같은 것. 때문에 늘 그렇듯 호위 기사를 라피스로 만족한 헤르세인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반쯤 가릴 로브를 뒤집어 쓴 채, 왕성내의 비밀통로를 통하여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루드비카를 꽁꽁 로브로 가린 채, 적당히 광장을 배회하던 케시아는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몇 달마다 한 번씩 찾아가는 평민전용 부티크. 그것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루드비카를 위한 목적의 걸음이었다. 루드비카와 함께 산지도 7년. 아무리 왕녀로서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어도 죽지 않고자 왕실에서 뛰쳐나온 이후, 케시아는 도망치면서 함께 챙긴 보석들을 당장 보석상에 팔 수 밖에 없었다.

당장에 먹고 살 음식과 옷, 그리고 몸을 숨기며 살 집이 그녀에겐 가장 중요했고 특히나 헤르세인의 눈을 피해 살아야하는 위조 신분이 필요했었다. 케시아는 보석상에 바꾼 돈을 가지고 당장 위조신분을 샀고 당시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루드비카를 어떡해서든 숨겨야 했기에 케시아는 그 다음 순번을 집사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일까? 현금으로 바꾼 돈을 사기꾼에게 속아 으리으리한 저택은커녕 낡고 유령이라도 나올 수도외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의 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케시아는 눈이 뒤집혀졌음에도 이미 도망쳐버린 사기꾼을 붙잡을 수 없었다.

사기꾼을 붙잡기도 전에 수도 전체로 퍼진 제1왕녀 수색 명령. 대놓고 저를 찾는 병사들의 움직임에 케시아는 싫어도 꽁꽁 그 집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1년 가까이 제1왕녀를 찾고자 광장에 퍼진 병사들을 멀리 숨어서 지켜볼 때면 케시아는 불안한 한편으론 저를 찾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헤르세인이 저를 잊어주길 바랐다.

그래야 온전히 루드비카의 곁에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루드비카가 또 다시 헤르세인의 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결국 하늘은 제 편이 되기라도 한 건지 케시아는 해가 바뀌면서 광장에서 그리고 수도 전체에서 물러나는 수색 병사들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 헤르세인이 수색을 포기했음을. 수색하는 병사들이 그렇게 완전히 물러났을 때, 케시아는 그때부터 마음껏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몸을 숨긴 채 수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수색명령이 끝났음에도 케시아에겐 또 다른 난관이 봉착했었다.

바로 돈의 문제. 지금까지 왕실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라온 케시아는 제 손으로 일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선 일을 해야만 했고 케시아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하녀의 일을 지원할까 싶었으나 하녀의 일을 구하는 순간 그것은 저의 얼굴을 아는 귀족에게 잡아가라는 뜻과도 같았기에 케시아는 금방 하녀 일을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저가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찮은 평민들 속에 섞여 잡일을 도맡아 돈을 버는 것. 물론 그 첫발이 상당히 힘들었으나 일을 한다는 자체가 루드비카를 위한 것임을 떠오르니 케시아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평민으로서 일을 하며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벌 때마다 케시아는 화가 치밀었다. 이딴 코 묻은 돈으로 누구의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인가? 배를 채우긴 커녕 입고 싶은 옷조차 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당장에라도 케시아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인형처럼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는 루드비카를 본 순간, 케시아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다. 현재 루드비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임을.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저가 유일함을 다시 깨닫게 된 순간, 케시아는 평범한 일을 그만두고 그나마 야간 중에 돈을 많이 받는 술집의 서빙 일을 하게 되면서 전 보다 큰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고역 아닌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틈마다 주제도 모른 채, 제게 더러운 손을 뻗는 사내는 물론, 한껏 오른 취기로 껄껄 웃으며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는 손버릇을 지닌 사내들이 술집에 한 가득이었다. 그러나 케시아는 경멸어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볼 뿐, 당장 사장에게 그만둔다는 소리를 할 순 없었다. 그 어디보다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술집이었고 추잡한 손을 뻗어도 그것을 꾹 참으며, 영업용 미소만 지었다하면 기분 좋아 팁을 주는 취객들이 있기에 케시아는 오기로라도 버티고 또 버티며 그렇게 돈을 벌었다.

만약 루드비카가 곁에 없었다면 케시아는 그 돈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펑펑 썼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있기에 케시아는 저를 위한 지출 대신 술집에서 번 모든 돈을 루드비카에게로 지출했다. 특히나 루드비카의 외견을 아름답게 가꾸어줄 옷.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루드비카를 위한 옷만큼은 케시아의 욕심이자 자존심이기도 했다.

평민마냥 그의 옷걸이는 하찮은 천 쪼가리로 때워질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직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만이 루드비카의 옷걸이에 걸릴 자격이 있기에, 또 죽기 직전의 루드비카는 가장 화려했기에 케시아는 제 욕심을 채워서라도 루드비카를 평민마냥 아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존심에 걸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지금. 줄곧 술집에서 번 돈으로 루드비카에게 최고급의 옷만을 입힌 케시아는 몇 달 전, 거금을 들여 제작한 루드비카의 맞춤옷을 찾기 위해 현재 단골이 된 부티크로 향하는 중이었다.

문을 열자 자연스럽게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가 실내를 울리자, 한참 손님들을 위한 카테고리를 정리하던 남직원이 단골인 케시아의 모습을 알아보고 서둘러 다가왔다.

“손님! 어서 오세요!”

“몇 달 전에 맞춤 제작한 옷을 찾으러 왔습니다만.”

“아, 맞춤 정장 말이죠? 일단 저쪽에 앉아계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직원이 사장을 부르러 간 건지 다급히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직원이 안내한 소파에 앉아 여전히 루드비카의 손을 꽉 붙잡은 채, 직원을 기다린 케시아는 곧바로 2층에서 내려오는 여사장을 볼 수 있었다.

“올리비에님!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맞춤 정장이 완성되어 마침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오늘도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군요?”

현재 케시아가 위조신분으로 쓰는 가명은 올리비에, 그리고 루드비카의 위조신분 가명은 미하엘. 케시아는 철저히 신분을 꽁꽁 감춘 채, 특히나 루드비카와 함께 광장에 왔다하면 남편을 내조하는 부인으로서 연기행세를 했다. 물론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명목상에 불과하나 케시아는 루드비카와 광장에 올 때면 그 누구보다 가슴이 떨렸다. 그 어떤 이들이 보아도 루드비카와 함께하는 제 자신을 타인이 아닌, 그의 하나 뿐인 반려이자 부부로, 또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는 부인으로서 보아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를 부인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사장을 향해 케시아는 뻔뻔한 미소를 그리며 루드비카의 어깨에 기대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였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마침 맞춤 정장이 다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이도 내색은 안하지만 어서 입어보고 싶을 거예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용 미소를 보이는 여사장과 남직원은 부티크의 중요 단골인 케시아가 흡족할 수 있도록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직원의 안내를 따라 탈의실로 들어간 루드비카를 기다리길 십 여분. 아무리 남직원이 그의 옷을 입혀준다 해도, 케시아는 불안하기만 했다. 타인의 손이 그의 몸을 멋대로 만지기에? 아니, 아주 잠깐 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혹시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제 곁을 도망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더 증폭되기 전에 남직원의 손에 이끌려 함께 탈의실에서 나온 루드비카를 본 순간, 케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얌전히 모을 수밖에 없었다.

“...”

평범한 옷을 입었을 뿐인데도 루드비카는 그 외모가 돋보일 만큼 그 아름다운 외모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제작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를 본 순간, 케시아는 생전에 살아있던 루드비카를 다시 본 것 만 같아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귀족이 아닌 평민을 상대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 따위 눈에 찰리는 없었다. 하지만 평민 중에서도 상위 직업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 정장을 만들어낸 이 부티크의 솜씨는 케시아를 만족시켰고 현재 거울에 비치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단순히 상위 직업을 가진 평민이 입는 옷이라 불리기엔 어색할 정도였다. 마치 귀족 전용 부티크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우아하면서도 돈을 상당히 들인 티가 나는 그런 자태에 여사장은 입을 벌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머나 세상에… 처음 남편 분을 봤을 때도 생각 한 거지만… 정말로 옷걸이도 그렇고 남편분이 무척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여사장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저도 모르게 나온 감탄어린 말이 질투로 눈이 뒤집힌 케시아의 불씨를 지피게 될 줄은.

남직원은 대체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골손님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무슨 일인지 단골손님이 여사장의 감탄 어린 말을 들은 직후, 이중인격마냥 사람이 변한 것이었다.

“당장 말해! 감히 그 눈으로 내 남편을 마음에 품기라도 한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소, 손님! 아니라니까요?! 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눈! 내가 똑똑히 봤어! 누가 봐도 내 남편에게 반해서 유혹하려는 눈이었잖아! 설마, 이런 식으로 사내들에게 추파를 날리는 거야?! 감히 천 쪼가리나 파는 계집 주제에! 넘보길 어딜 넘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례하시군요!!”

남직원은 어떡해서든 두 사람의… 아니 일방적으로 여사장을 몰아붙이는 단골손님을 뜯어 말리려 했지만 한번 눈이 뒤집힌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남직원은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저, 저기 손님 이러지 마시고...”

“이거 놔! 넌 저리 빠져 있어!!”

아무리 뜯어 말리려 했지만 우악스러운 힘으로 또다시 밀려난 남직원은 이내 이마에 손을 얹고는 가장 힘든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이번엔 부인 좀 어떻게 뜯어 말려보라는 심정으로 남직원은 손님의 남편에게 부탁할 생각으로 루드비카에게 다가갔다.

“저, 저기 손님. 아내 분을 말려 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러다 큰 싸움이라도 나면...”

하지만 남직원은 끝내 말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전시된 유리창을 통해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마치 혼자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존재와도 같았다. 남직원은 그런 루드비카를 보며 딱 한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알 수 없으나 그를 보고 있자면 그야말로 영혼 없는 인형 같았다. 물론 흔히 생각하는 비스크 인형과는 달랐지만 옷 하나하나를 입힐 때까지 인형처럼 제 손을 따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어떨 땐 꺼림칙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오늘로서 두 번째 보았을 때도 케시아는 루드비카를 꼭 끌어안으며 감정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잘 내색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남직원이 보기엔 마치 그녀에게 끌려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물론 그녀는 부티크에 있어 상당한 매출을 지대하는 단골손님이기에 단순히 혼자 느낀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지만 오늘 다시 두 부부를 본 순간, 남직원은 확신할 수 있었다. 저 아내라는 여자에게 그는 틀림없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님을.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부인을 말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부인을 말리기는커녕 멍하니 바깥 구경만을 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남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신경이 사라질 쯤 이었다.

여전히 인형마냥 멍하니 바깥을 보던 루드비카의 시선. 하지만 그때, 오랫동안 아무것도 담기지 않던 루드비카의 시선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마치 반쪽의 영혼이 이끌리듯 제 눈에 담긴 붉은 빛의 반짝임을 본 순간, 루드비카는 이끌리듯 붉은 반짝임을 쫓아갔다. 그리고 그 누구도 루드비카가 부티크를 빠져나갔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얼마 만에 나온 지 모를 외출이었다. 흔한 평복에 평범한 로브를 뒤집어 쓴 헤르세인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광장을 산책했다. 분수대 주변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싱싱한 과일이나 또는 입맛을 돋울 간식거리를 팔고자 호객행위를 하는 판매상까지. 7년 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수도도 지방도 나라 전체는 완전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가끔씩 매년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가뭄이 골머리를 썩이나 가뭄 문제는 늘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기에 특정 문제를 빼면 저가 굳건히 왕좌를 지키는 이상, 나라가 흔들일 일은 결코 없을 것이었다.

“폐… 아니, 아가씨.”

한참을 걷다가 저를 아가씨라 부른 라즐리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춰 라즐리에게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렸다.

“아가씨라 불릴 나이는 지나지 않았을까?”

“예? 그, 그래도… 감히 존함을 부를 수는...”

“괜찮아. 여기서 날 알아볼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알아봐도 입을 다물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마지막 말이 상당히 매섭게 들렸으나 라즐리는 몇 번이나 불렀음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금 조심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헤, 헤르세인님.”

“그래.”

“이번 잠행은 어디로 향하실 생각이세요?”

왕실에서 지겹도록 쓰던 딱딱한 말투가 아닌, 오랜만에 부드러운 말투로 뒤바뀐 라즐리와 헤르세인. 그리고 조심스럽게 목적지를 묻는 라즐리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딱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고개 짓으로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걷고 있을 뿐이었다.

“글쎄. 목적지를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라서. 그보다 라피스는 여전히 잘 따라오고 있겠지?”

살풋 웃음기가 섞인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라즐리는 슬쩍 고개를 돌려 어디선가 잘 쫓아오고 있을 라피스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잘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걸음을 맞춰서 따라와도 상관은 없는데… 라피스는 이상한 곳에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던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걸까?”

라즐리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지만 그녀가 말하는 의미는 알 것 같았다. 그녀의 말처럼 라피스는 견습 기사시절만 해도 병아리 마냥 제 말이라면 꿈뻑 죽는 동생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레이스 공작저에서 정식으로 기사가 되고 기사들 틈에 험하게 굴려져서 인지, 아니면 그들이 라피스를 바꿔 놓은 것인지 공작의 부탁으로 헤르세인의 호위기사가 된 라피스는 어느새 완전한 성인이 되었지만 성격은 예전과 다른 남동생이 되어 있었다.

물론 착한 성격은 여전하다 할 수 있지만, 이상한 곳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며 거칠어진 말투를 쓰는 라피스를 볼 때면 라즐리는 예전의 라피스의 모습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건 라피스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라즐리는 알고 있었다. 저가 모시고 있는 주군, 헤르세인 역시 7년 전과 현재를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의 주군. 그러나 앞만 보고 달리고 있음에도 그녀는 제 사람이 된 사람들은 끔찍이 아끼는 주군이었었다. 하지만 왕좌에 앉은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져야만 했다. 복수의 길을 끝내고 고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주군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매사 냉정해야 했으며 제법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자리란 것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부정할 순 없었다. 하지만 라즐리는 아주 가끔씩 7년 전의 주군의 모습이 그리웠었다. 7년 전의 피 튀기는 과거가 그리운 것이 아닌, 그래도 그때까진 제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하던 주군이기 때문이었다.

“라즐리?”

“…예, 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 아니에요. 다른데 정신이 팔리느라… 죄, 죄송합니다.”

헤르세인은 라즐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나온 외출에 그녀 역시 광장에 잔뜩 모인 사람들로 인해 정신이 없을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그러다 살짝 얼굴을 간질이는 미풍에 헤르세인은 귓불에서 짤랑이는 루비귀걸이의 작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대관식 이후로 한 번도 귀에서 떼지 않은 루비 귀걸이. 헤르세인은 루비귀걸이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루비귀걸이도 올해 안에 국서를 맞이하게 되면 영영 케이스 안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헤르세인님?”

그때, 라즐리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생각에 빠져 있던 헤르세인을 다시 현실로 이끌어냈다. 헤르세인은 내리깔고 있던 시선을 들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티크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려던 찰나였다.

“꽃 사세요! 특별한 날이나 연인 선물, 또는 소중한 분에게 마음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꽃을 선물해 보세요!!”

헤르세인은 호객행위 하는 꽃 가게에 시선을 두다가 절반 가까이 몸을 돌려 어느새 왕성과 멀리 떨어진 거리를 볼 수 있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라 그런지 전의 외출보다 상당히 왕성과 거리가 벌어졌음을 느낀 헤르세인은 다시 꽃 가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유독 눈에 밟힌 푸른 꽃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망설이지 않고 꽃 가게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꽃 사시려고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새벽 일찍 들어온 싱그러운 꽃들이 무척 많아요!”

꽃을 파는 주인의 말처럼 색색의 꽃들은 하나같이 싱그럽고 물기를 머금은 채 제각각의 향기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유독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푸른 꽃에 오랫동안 시선이 간 헤르세인은 정확히 물망초를 가리키며 입술을 뗐다.

“물망초로… 꽃 한 다발 부탁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돈주머니를 꺼내 적당히 계산을 하고 한아름 꽃다발을 품에 안은 헤르세인은 물망초 특유의 싱그러움과 은은한 물 내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꽃 가게를 지나치기 전, 라즐리가 목적지를 묻기 전에 헤르세인이 먼저 마지막 목적지를 알렸다.

“하늘의 신전으로 가겠어.”

“하늘의 신전이요?”

“응. 꼭 가야할 이유가 생겼어.”

광장에서 하늘의 신전까지의 거리는 조금 많이 걸렸었다. 그리고 당연히 마차를 타고 이동한 것을 생각한 라즐리가 마차를 부르기 위해 움직였지만 헤르세인은 라즐리의 행동을 막아섰다.

“마차는 부르지 않아도 돼. 걸어갈 생각이니까.”

“예? 하지만 걸어 가시기엔 거리가...”

그러나 라즐리가 말릴 새도 없이 먼저 앞서가는 그녀의 뒷모습에 라즐리는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이냐는 멀찍이 떨어진 무슨 일이냐는 라피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라피스가 무슨 표정을 짓든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더 멀어지기 전에 바짝 뒤를 쫓아 하늘의 신전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하늘의 신전을 향해 걸어가는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뒤를 이끌리듯 쫓는 인물이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존재를 감춘 것처럼 뒤를 쫓는 인물이 존재함을 하늘의 신전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세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다.

하늘의 신전에 도착해, 교황과 이야기를 나눈 헤르세인은 자신이 이곳에 왔음을 비밀을 붙인 뒤 추기경인 로하네까지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익숙한 걸음으로 들판위로 차가운 비석들이 세워진 묘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 백 개의 죽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회색빛깔의 비석. 그리고 라즐리와 라피스를 신전에 기다리게 한 채, 홀로 묘지를 찾은 헤르세인은 십 여분을 걸어 하나의 비석 앞에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 반 가까이 가리고 있던 로브를 완전히 벗어 비석에 새겨진 익숙한 이름을 두 눈에 담아낼 수 있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곳에 잠들다.』

7년 전 그날. 이 자리에서 맹세한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의 묘비 앞. 오래전 묘비 위에 둔 꽃들은 전부 신관들이 치우고 매번 묘비를 닦는지 묘비에는 먼지 한 톨 조차 보이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 품에 한 아름 안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 묘비위로 내려놓은 뒤, 다시 한발자국 물러나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 불러보았다.

“루카...”

그의 이름은 언제나 머릿속에서 맴돈 적은 있지만 애칭으로 부른 것은 7년만이기에 헤르세인은 이제 그의 애칭을 부르기가 어색할 만큼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애칭으로 불러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를 알기에 헤르세인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던 슬픔과 그리움이 젖은 표정을 드러내며 힘겹게 입술을 떼어냈다.

“기억해? 내가 당신의 묘비 앞에서 했던 맹세의 말들. 나는 분명히 당신의 앞에서 맹세 했었어.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당신만큼은 날, 잊어달라고...”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리움과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복수를 담았던 그날과 7년이 지난 지금의 헤르세인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그리움과 미안함, 죄책감이 가슴 깊이 담겨져 있으나 복수를 담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복수대신 왕으로서의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바뀌어 있을 뿐.

“내 사랑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야.”

그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도 변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루드비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아릿할 정도였다. 하지만 7년 전 그날. 그를 향한 사랑을 이곳에 제 마음까지 묻어두면서 헤르세인은 7년이란 시간을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풋풋했던 지난날의 기억들과 감정들.

이제 사랑하나로 목매기엔 자신은 더 이상 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내 모습을 만약… 당신이 본다면 날 경멸할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이곳에서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제 사랑을 그의 무덤과 함께 같이 이곳에 묻어버렸으니까.

"당신을 사랑한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갈게. 그러니 루카… 당신은 부디 날 잊고 편히 눈을 감기를… 나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리고 나의 연인. 루드비카."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생에 다시없을 유일한 연인. 온전히 제 마음은 루드비카의 것이기에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옆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헤르세인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윌리스 왕태자와의 싸움으로 헤르세인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사랑이든 권력이든 결국 힘을 차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힘이 될 귀족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함을. 아무리 복수에 혼자 칼을 간다 해도, 그것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는 것임을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공작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귀족의 힘을 빌리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거래역시 필요함을. 승리를 할 수 있는 큰 패가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이상, 큰 패만큼 값어치가 될 패가 헤르세인에겐 당장 필요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자신의 옆자리. 특히나 왕이 된 이후, 자신의 옆자리는 더 값어치가 올라갈 것임을 헤르세인은 부정할 수 없었다.

왕녀였을 때라면 몰라도 헤르세인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 감정적으로도 선택할 수 없었다. 제아무리 귀족보다 고아하고 가장 정점에 오른 자리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겐 귀족이 있어야 했고, 그들이 있어야 왕은 비로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

설령, 정략혼인이 아닌 애정이 있는 혼인일지라도 왕의 자리에 앉은 이상 왕은 고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외로움과의 싸움을 걸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길.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자신이었고 헤르세인은 이 길을 걷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단,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의 옆자리를 줘야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헤르세인을 내키지 않게 하고 있었다.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얘기를 하러 찾아왔어. 당신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은 온전히 당신만의 것임을 알아주길 바라며.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차가운 비석을 쓸어내렸다. 온기나 따뜻함 따윈 전혀 느낄 수 없는 딱딱한 비석임을 알고 있음에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느껴질 때면 헤르세인의 입가는 어느새 씁쓸히 올라가 있었다.

“루카… 미안해, 당신을 두고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앉게 해서...”

미안해, 당신을 두고 다른 사내와 혼인을 해서...

미안해,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내의 이름을 부르게 돼서...

미안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내와 몸을 섞을 나를... 그러니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이런 내 선택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루카.

더 이상 난… 헤르세인이 아니니까.

7년 전의 어리숙하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내가 아닌 그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고독의 길을 걷는 왕일뿐인 헤르세인이니까….

그의 무덤을 향해 헤르세인은 말없이 몇 번이고 외쳤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의 정적에 헤르세인은 살짝 숙이고 있던 허리를 세워 비석을 쓸어내리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눈물 한줄기 흘러내리는 슬픔은 더 이상 없었다. 그저 씁쓸히 비석을 향해 이별을 고하는 옅은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

“당신을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지금도 영원히. 루드비카...”

“크윽!!”

루드비카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제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을 토했다. 붉은 반짝임을 한참동안 쫓아와 어딘지도 모른 채 멈춰 섰을 때, 루드비카는 멍하니 한참동안 그 반짝임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반짝임 속에 마치 하나의 환청처럼 마치 주문을 거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진 순간, 루드비카는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다.

“아아아아악──!”

"설마 했는데… 반쪽짜리 혼이 설마 저런 곳에 있을 줄이야."

루드비카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대악마는 가는 눈을 한 채, 루드비카를 이곳까지 이끈 붉은 반짝임을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여인이 귀에 걸고 있는 루비귀걸이였다. 어째서 반쪽짜리 혼이 그곳에 깃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의 육체에 있는 혼은 결국 반쪽의 혼에 이끌린 것이었다. 그리고 선과 악의 혼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순간 루드비카의 혼은 드디어 하나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그… 그만... 아… 아파...”

"..."

“제… 제발... 그… 그만...!”

"..."

“아프… 단 말이야… 아프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만해! 그만! 그만! 그만! 그마아아안──!”

본격적으로 혼이 하나가 되면서 텅 비어진 육체가 기억을 되찾는지 루드비카는 피눈물을 흘린 채 여전히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의 비명소리나 존재감을 일찍이 대악마가 지워냈기에 들키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이나, 설마 이 이탈이 루드비카의 나머지 혼을 되찾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거기에 이제는 제대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본격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이 생각보다 가관이었던지라 대악마는 핏빛눈동자를 내리깔아 흥미로운 눈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서 대악마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크으윽──! 아아아아악──!”

『──카─.』

생소하면서도 낯익은 감각이, 처음 들어봄에도 왠지 익숙하고도 청아한 목소리가 루드비카의 머릿속을 토할 정도로 헤집어 놓았다. 뇌가 녹아버릴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두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이 머릿속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기를. 이 고통이 끝나기를. 제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내 사랑은──지금도 변함없이 온전히──것이야.』

“누구… 야… 대체 누구인데... 내 머릿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누구냐고!! 그만해─!!”

머리를 쥐어뜯듯 움켜쥐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도 머릿속을 울리는 환청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없어보였다. 아무리 애원해 봐도 소리를 쳐다봐도 그럴 때마다 다시금 머릿속을 울리는 환청에 루드비카는 눈이 뒤집히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만! 그만! 내 머리에서 나가! 나가! 나가!! 닥쳐!! 시끄러워!!! 아아아아아악!!”

『이런──모습을──만약──본다면──날 경멸할까?』

누구의 모습인지 경멸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머릿속의 고통이 환청과 혼동되어 루드비카는 제대로 된 판단도 해석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머릿속을 울리는 고통이 사그라지기를 바라며 루드비카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어째서인지 환청은 자꾸만 루드비카의 머릿속을 괴롭혔다.

『이 얘기를 하러──왔어. ──이 혹시라도──하지 않기 위해, 내──은 온전히──만의 것임을──주길 바라며. 그리고… 내가──리지 않기를 바라며.』

환청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꾸만 중요한 단어만 쏙쏙 빠지는 환청의 목소리는 마치 이별을 고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쩐지 그 목소리에는 결심과 슬픔까지 묻어 있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점점 그 목소리가 제 곁을 떠나려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아…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는 이를 악물며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저 어둠 속에 드높이 뜬 강렬한 빛이 제 머릿속을 아프게 하는 건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는 마치 그것이 하나의 생명줄 마냥, 또는 제 손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지독한 집념을 드러내며 또 다시 들리는 환청에 이번에는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커억──!”

『──… 미안해, ──을 두고 다른 ──을 내 옆에 앉게 해서...』

환청이 제게 말한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환청이 제게 왜 미안한지 루드비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 앉는 다는 게 무슨 말인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 옆에 앉는다는 그 말이 루드비카에겐 지독히 좋게 들리지 않았다.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핏방울이 공중으로 흩뿌려지는 동시에 오랫동안 깊숙이 숨어 있던 집착과 집념, 원념이 한 번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라도 하듯 그 순간, 루드비카의 입에선 지독한 광기가 토해졌다.

“누구─ 마음대로──! 인정 못해─ 내가──! 그렇게 안 둬!! 그 자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도대체 누구를? 또 그 자리는 무엇이고? 더욱이 무엇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루드비카는 그 말을 뱉어냈음에도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울컥 이는 분노는 무엇이란 말인가. 루드비카는 가까스로 바닥에 누워 있던 몸을 뒤집어 한 손은 여전히 머리를 움켜쥔 채 후들거리는 다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허리를 세워 환청이 들린 그곳을 향해 광기를 담아 노려본 순간, 루드비카는 그동안 새카맣던 시야가 걷히고 비로소 깨끗하게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었다.

“하아... 하아...”

원인을 찾아야만 했다. 시야가 미치도록 맑아진 이상, 이 빌어먹을 환청의 주인을 찾아 제 손으로 죽여야만 이 끓어오르는 분노도 환청도 고통도 전부 끝날 것 같아 루드비카는 흔들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발, 두 발… 수많은 묘비들 중 단 하나의 비석을 보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다. 아직은 스무 보 이상 떨어진 거리.

그리고 그 여인이 제 머릿속을 아프게 하는 원인임을 찾았을 때, 루드비카는 거의 여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렇게 한발 나아가던 순간이었다.

『당신을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또 다시 들린 환청. 하지만 이번 환청은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고 머릿속을 고통을 지울 맑은 목소리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대체 누구를? 저 환청의 주인은 대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것을 몰라 루드비카의 발걸음이 다시 멈춘 순간, 환청은 최후의 속삭임처럼 이번엔 상냥하게, 하지만 이별을 담은 영원의 작별이 루드비카를 간신히 지탱하던 팽팽한 실을 완전히 끊어냈다.

『지금도 영원히, 루드비카...』

“헤… 세...? 아… 아아... 아아아아아악──!”

검붉은 빛이 루드비카의 몸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 대악마는 황홀한 미소를 그려냈다. 인간세계에선 아무 보기 드문 광경. 아니, 악마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긴 드물지도 몰랐다. 서로의 이끌림으로 드디어 제 반쪽을 찾은 영혼. 그렇게 선악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지상에 머물러 완전한 악으로 타락한 영혼은 선의 영혼을 집어삼켜 신조차 품을 수 없는 새까만 하나의 영혼이 되어버렸다.

광기, 집념, 집착, 원념, 그리고 비틀린 사랑까지. 인간에겐 전부 요구할 수 없는 불길한 것들이 새까만 영혼에게 흡수되어 루드비카의 몸으로 완전히 되찾아갔다. 만약 이 자리에 신이 있었다면 크게 진노하고 타락한 혼이 되어버린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태워버릴 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신을 위해 인간들이 만든 신전. 거기에 새카맣게 타락한 영혼의 주인이 된 인간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어찌 황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크크큭. 아아, 이래서 아무리 천해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인간을… 이제부터 비틀려진 욕망을 본능으로 살 인간을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어? 역시 재밌는 곳이야. 이곳은."

대악마는 여인이 잠시 머물다 어느새 자리를 피하는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루드비카에게 있어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루드비카의 반쪽 혼이 깃들어 있던 여인의 귀걸이. 그리고 여인을 보던 루드비카의 눈빛과 수많은 감정들까지. 흥미가 돋기 시작했다.

그 여인에게 있어 루드비카는 과연 어떤 존재일지. 또 제정신을 차린 루드비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대악마는 가볍게 검은 안개로 몸을 움직여 루드비카의 앞에 마주섰다.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악마다운 유혹적인 미소를 덧그리며 루드비카에게 자신의 소개를 건넸다.

"가엾은 인간,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여. 내가 누군지 알고 있겠지? 난 너를 신의 품에서 끌어내려 내 피로 직접 되살린 ‘대악마 바엘’이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자신의 소개는커녕 이름조차 언급한 적이 없던 대악마 바엘. 그는 어디에서 볼 수 없던 순수한 호의를 루드비카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순간이었다.

“루드비카! 루드비카!! 루드비카!”

격렬히 흔들리는 눈동자와 파르르 떨고 있는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불안에 감싸진 몸은 케시아의 감정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버렸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방심한 사이 사라져버린 루드비카의 모습. 맞춤 정장을 제작한 여사장과의 입씨름 보다 케시아에겐 루드비카의 존재가 더 중요했었다. 어떻게 부티크에서 나왔는지 케시아는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루드비카를 찾겠다는 일념 하에 그를 반드시 되찾아야한다는 지배만이 케시아의 정신을 더욱 극심한 불안에 떠밀어냈다.

“안 돼… 당신이 없으면 난… 난...! 루드비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루드비카… 루드비카!”

로브를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일 때면 무작정 뛰어가 케시아는 예의 불문하고 제 앞으로 끌어당겨 루드비카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다.

“루드비카!”

“뭐야! 이 여자는! 다짜고짜 사람을 붙잡고!”

“루드──.”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확인할 때마다 매몰차게 손을 휘젓는 타인의 거부와 멋대로 로브를 벗겨다는 이유로 욕을 퍼붓는 말까지. 케시아는 근 7년 만에 욕이란 욕은 전부 들었지만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욕을 했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조차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을 붙잡고 루드비카임을 확인한 순간, 제가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실망감만이 남아있을 뿐.

“어디있는거야… 설마 나를 두고…?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두고 어딜 가버릴 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신이 돌아오기는커녕 그 징조조차 보인 적이 없던 루드비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떠난다? 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되는 건 누군가 루드비카를 꼬드겨 어디론가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 더 얘기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일까? 한참을 광장주변으로 달리던 케시아는 뛰던 다리를 멈춰 머릿속을 스친 의심을 품었다.

“혹시... 헤르세인이?”

어떡해서든 부정하고 싶으나 부정할 수 없는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의 관계. 그리고 루드비카를 향한 헤르세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케시아는 불현 듯 헤르세인을 떠올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헤르세인은 광장주변으로 저에 대한 수색명령을 거두어 버린지 오래. 그리고 루드비카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장에라도 기사들을 풀어 그를 왕성으로 끌고 갔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왕성에도 헤르세인에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헤르세인은 여전히 루드비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

케시아는 그렇게 생각하니 안심이 됐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다. 헤르세인이면 몰라도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보기 위해선 당장에라도 왕성으로 갈 사내였으니까.

“그년이 루드비카가 살아 있을 거라 생각할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가 그를 살렸고 그를 살린 건 오직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불안의 증세가 더 심각해졌는지 케시아는 엄지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양손을 벌벌 떨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제 곁에서 사라진 루드비카. 어쩌면 그가 멀리 떠난 것이 아닌 잠깐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스스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 케시아는 머리를 움켜쥐며 사라진 루드비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루드비카...”

마음 같아선 당장에라도 광장 주변을 경계하는 경비병들에게 달려가 사람이 사라져 찾아달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케시아는 빌어먹게도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경비병을 찾아가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물론 루드비카의 존재 역시 헤르세인의 귀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임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텅비어버린 껍데기마냥 인형 같은 루드비카를 데리고 있음에도 7년 동안 그를 보살필 것에 있어 케시아는 늘 진심이었다. 대악마에게 소원을 빌었던 그날. 인형 같은 그를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의 겉껍데기라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곁에 있으면 모든지 상관없었으니까.

하지만 처음으로 제 손에서 떨어진 인형. 그 인형이 어디에 있든 포기할 생각 따윈 결코 없었다. 그곳이 지옥이든 벼랑 끝이든 어떡해서든 제 손으로 찾아 다시 손에 넣겠다는 집념이 케시아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다.

“이대로 못 보내. 보내지 않아. 당신은 내꺼야. 죽어서라도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 루드비카, 당신은!”

루드비카와 대악마 바알. 두 사람은 판박이라 할 만큼 닮아 있었다. 똑같이 은은한 빛을 내는 은발과 피를 머금은 듯한 핏빛의 눈동자. 그리고 그저 스쳐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외모까지. 하지만 판박이라 할 만큼 두 사람은 닮았음에도 분위기는 성격을 나타내듯 확연히 달랐다.

죽지 않는 오랜 불사의 시간으로 권태로움과 단순한 손짓만으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바알. 반대로 죽기 진적의 생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루드비카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악마의 피로 하여금 케시아가 받친 제물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루드비카. 고혹적이면서도 언뜻 바알의 모습이 겹쳐 보일 만큼, 시선이 가는 것만으로도 본능과 욕망에 눈 뜰지 모를 강렬할 자태가 루드비카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그 어디에도 예전처럼 금욕 따윈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광기와, 집착, 욕망에 물든 핏빛의 눈동자는 사납게 번득이며 노골적으로 바알을 향해 노려보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내 육체임을 모를 것 같아?”

"흐음, 그런 쓸데없는 부분까지 잘도 기억하는 군."

아무리 반쪽짜리 영혼이라도 주도권 싸움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는 인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루드비카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덕분에 대놓고 노려보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악마여도 인간마냥 그 눈빛을 피하는 건 악마가 할 짓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게 노려보면 쓰나. 이래보여도 널 신의 품에서 끌어내어 내 피로 되살린 위대한 존재인데 말이지. 아니면 어버이라 말해줘야 하나?"

“닥쳐.”

"허..."

바알은 틀림없이 그를 살린 지대한 공헌자임을 어필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바알은 저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다. 이 상황이 재밌는 것과 별개로 역시 새까맣게 타락한 영혼이 깃들어서 일까? 생전의 모습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루드비카 모습은 그야말로 건들면 언제 터질지 모를 마법의 상자와도 같았다.

‘여기선 한발 물러나야겠군.’

바알은 루드비카를 반 강제로 억누르기보단 그의 감정 그대로 이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롭게 태어난 인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삭이고 유혹하며 악마로서의 본능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이 상황을 즐기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썩 유쾌하기까지 해, 바알은 처음으로 루드비카에게 아량을 베풀기까지 했다.

"아무튼, 널 살린 건 나이지만 네가 육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게 된 이상, 내가 무얼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 쉽게 말해서 네 육체의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포기… 하겠다고?”

"물론이지. 단, 내가 그 육체를 포기하는 대신 우리 거래를 하는 건 어떨까?"

처음엔 들을 가치도 없어 이 상태로 루드비카는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굳이 ‘우리’라고 표현하며 거래하자는 바알의 요구에 눈을 가늘게 떴다. 무엇이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아직까지 루드비카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헤르세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당장에라도 그녀의 뒤를 쫓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떠날 수 없던 건, 바로 눈앞의 바알의 존재. 이미 악마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지배했는지 거래라는 단어가 누가 봐도 의심이 되면서도 루드비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뜬 루드비카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바알은 서둘러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기 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일단 거래를 하기 전,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알고 있나? 뭐, 나에겐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희 인간에겐 아주 긴 시간이나 다름없으니까."

“시간? 그러고 보니… 여긴 대체...”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 루드비카는 바알을 향해 가늘게 뜨던 눈을 제대로 떠 처음으로 저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푸른 하늘 밖에 없는 뻥 뚫린 주변의 공간. 그리고 푸른 잔디 위로 가득 세워진 회색빛의 비석. 루드비카는 단번에 이곳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긴... 묘지?”

그때, 마치 정답에 맞춰 칭찬하는 선생님 마냥 두 손뼉을 친 바알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곳은 인간들이 신 따위를 위해 제물을 바친 답시고 세운 하늘의 신전. 그리고 정확히 네가 있는 곳은 죽은 인간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묘지이지."

“묘지...”

"그리고 이곳엔 루드비카, 네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존재하는 곳이다."

“내… 이름...?”

"그래, 네 이름. 가까운 곳에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이 감정이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루드비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 있는데 대뜸 악마라는 자식이 제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고 하는 말이.

하지만 루드비카는 붉은 반짝임에 이끌린 것처럼 또 다시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많은 묘비들을 하나, 둘 지나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푸른 꽃다발이 놓인 묘비를 발견한 순간, 루드비카는 조금씩 떨리는 눈으로 비석에 새겨진 제 이름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곳에 잠들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이곳에… 잠들다….”

"어때? 이제 좀 뭔가 더 기억나는 거 같나?"

“크윽──.”

바알의 목소리는 분명 유혹적이었지만 루드비카는 그 유혹 속에 깃들어 있는 빈정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가 떠오르는 동시에 또 다시 지끈거리는 머릿속의 두통이 루드비카의 고운 얼굴을 삽시간에 일그러트렸다. 하지만 정신을 찾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전혀 생각나지 않던 과거의 기억이 물밀 듯이 쏟아지는 순간, 루드비카는 비로소 저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기 직전의 과거는 어땠는지 온전히 기억해낼 수 있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여전히 두통어린 이마를 붙잡은 채, 루드비카가 현재의 시간개념을 묻자 바알은 송곳니가 보일 듯한 입꼬리를 올리며 나직이 속삭였다.

"7년. 정확히 말하자면 네가 나의 피와 제물로 하여금 되살아난 시간은 7년 전이지만, 네 혼이 반쪽인 탓에 7년 가까이 넌 그야말로 누가 조종하지 않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빈껍데기나 다름없었다."

“7년... 이라고?”

"그래, 7년. 더 궁금하면 알려줄까? 누가 널 살렸는지. 정확히 너를 살리고자 한 인간이 누구인지."

“네가 날 살렸다고 하지 않았나?”

바알은 피식 웃고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소원을 들어준 입장일 뿐임을 설명했다.

"내 피로 널 되살린 건 내가 맞지만, 나를 소환하고 내게 소원을 빈 건 인간이다. 정확히 그 소원을 빈 인간은 내게 바랐지. 죽은 너를 되살려 달라고."

“그 인간이… 누구지?”

핏빛 눈동자를 움직여 싸늘히 저를 보는 루드비카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짜릿하게 느껴진다면? 바알은 송곳니를 드러낸 채, 긴 손톱이 돋보이는 손가락 끝으로 제 입술을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인간계집이라 딱히 이름을 외울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이름이었지, 아마?"

“...”

"…케시아. 그래, 분명 이런 이름이었다."

“케시아...”

바알은 순식간에 검은 안개가 되어 마치 똬리를 튼 뱀의 형상마냥 루드비카의 주변을 감싸 다시금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래, 그 케시아라는 인간계집이 널 살렸다. 그 계집이 어떻게 너를 살렸는지 알려줄까? 땅에 묻힌 네 유골을 훔치고 너의 온기가 깃든 흙을 가져가 강령술사에게 맡겼지.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를 젊은 처녀들을 제물로 바쳐, 그녀는 계속 널 살리기 위한 제물을 모았지.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제 아비의 가슴까지 도륙 내어 살아있는 심장을 훔친 채, 널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제물로 내게 바쳤지."

“...”

"어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아무리 널 사랑하고 되살리기 위해 벌인 일이라지만 그 인간계집은 악마보다 더한 악마이다. 지금에라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걸? 그 계집은 분명 너를 다시 죽여서라도 시체를 끌어안고 네 입술에 입을 맞출 그런 사악한 계집이니까. 그러니 어때? 그 계집을 죽이고 자유가 되는 것이.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난 너에게 조건 없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왜냐면 난 네가 무척 마음에 들었으니까."

뱀의 새치 혀에 넘어가 따서는 안 될 금단의 과일을 따버린 태초의 인간처럼 뱀의 형상이 된 바알의 속삭임은 이보다 더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알의 속삭임보다 루드비카를 더욱 유혹하는 것은 오직 하나. 케시아의 손을 떠난 자유가 아닌, 여전히 가슴속 깊이 사랑해 마지않은 자신의 하나 뿐인 연인. 헤르세인을 다시 이 두 눈으로 보고 그녀를 제 품에 안는 것이었다.

손 틈사이로 가려진 루드비카의 핏빛 눈동자가 번득였다. 방금 전까지 싸늘하게 식어 있던 감정은 화산처럼 뜨겁게 되살아나 지독한 집착과 광기를 일으켰고 목구멍에서부터 타는 갈증은 강한 욕망과 욕구를 원했다. 마셔도, 마셔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싹 말라버린 사막. 이 사막을 적실 유일한 빗줄기는 오직 헤르세인 뿐이었다.

“자유 따위 상관없어.”

"...뭐?"

“헤세를 내 품에… 이 손에 붙잡을 수만 있다면...”

검은 안개 상태임에도 바알은 루드비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광기와 집착을 볼 수 있었다. 안개임에도 피부가 오소소 닭살이 돋을 만큼 루드비카에게서 느껴지는 그 비틀린 감정들이 바알을 더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하하하! 그래! 넌 자유보다 쟁취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인가?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내 힘을 나눠주마! 악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인간 루드비카여! 어디 한 번 네 힘을 보여 봐라! 그리고 손에 넣어봐라! 오직 본능대로! 악마처럼 욕망에 충실해진 네 모습을 마음껏 펼쳐봐라!!"

바알은 검은 안개인 상태로 루드비카의 몸속에 스며들어갔다. 그리고 혼이 하나가 되어 정신을 찾았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 루드비카에게 찾아왔다.

“크으아아아아아악──!”

루드비카는 물론 묘지 전체로 검게 물들여진 검은 안개. 그리고 오랫동안 평범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한 남자의 고통어린 비명이 한 시간 동안 이어졌을 쯤, 주변에 펼쳐있던 검은 안개가 사라지고 묘비는 말끔하게 제 모습을 찾아갔다.

목이 쉴 만큼 고통의 비명으로 안개 속에 모습이 감춰져 있던 루드비카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 따윈 없었던 사람처럼 루드비카는 자신의 묘비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푸른 꽃잎을 어루만지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독히도 매혹적인 입꼬리를 끌어 올렸다.

이제 자신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을 가로막고 방해할지라도 이제 눈앞에서 치우면 그만인 것.

“헤세, 기다려줘요, 내가 곧 당신에게 갈 테니.”

달콤하기 그지없는 하나 뿐인 연인의 이름.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애가타면서 한편으론 사랑스럽기 그지없어 루드비카는 떨리는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심장이 뛰는 왼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 이내 루드비카는 만족의 미소를 덧그리곤 그렇게 제 이름이 새겨진 묘비에서 무심히 자리를 떠났다.

루드비카가 떠난 묘비 위에 남겨진 푸른 꽃다발의 존재. 하지만 루드비카가 어루만진 꽃잎은 더 이상 싱그럽게 제 색을 뽐내며 향기를 내고 있지 않았다. 마치 죽음이 지나간 자리처럼 푸른 꽃다발은 바싹 메마른 꽃이 되어버린 채, 묘비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뿐이었다.

분명 왕성 밖으로 나갔을 때만 해도 해가지지 않던 조금 늦은 낮의 오후였지만 다시 왕성으로 돌아왔을 땐, 저녁이 사라진 밤이 찾아온 하늘이었다. 검푸른 색으로 물이든 밤이 찾아온 하늘의 색. 헤르세인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미처 챙겨먹지 못한 간단한 저녁을 챙겨먹고서 어느새 비가 내리는 창밖을 무심히 보고 있었다. 추위가 딱히 생각나지 않음에도 비가내린 서늘함 때문일까. 적당한 숄을 찾아 어깨에 걸친 헤르세인은 이제 막 차를 내오는 라즐리를 향해 나직이 입술을 떼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 같은 건 내리지 않을 날씨였는데…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하지?”

“폐하께선 비오는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밖에 있을 때만 해도 부드럽게 풀린 두 사람의 말투는 다시 왕성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다시금 딱딱하게 바뀌어 있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찻잔에 뜨거운 김이 폴폴 나는 다홍색의 찻물을 따라낸 라즐리는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소소한 질문을 건넸다. 어쩌면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 라즐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건넸지만 한참 동안 대답이 없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고개를 살짝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폐하?”

“아니, 비오는 날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헤르세인에게 있어 비오는 날씨는 감상에 젖을만한 추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슬럼가에서 살았던 그때도 비오는 날씨는 그녀에게 있어 추위만 가져올 날씨에 불과했고 또한 루드비카와 함께 도망치던 그날도 헤르세인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져다준 최악의 날씨에 불과했다.

스스로 아무런 생각 없이 건넨 질문이었음에도 어쩐지 기분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헤르세인은 더 이상 비오는 창밖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뜨거운 차가 따라진 테이블로 다가가 푹신한 소파에 앉은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려 뜨거운 한입으로 목을 축이곤 아주 작게 혼잣말을 속삭였다.

“내일도 오늘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예? 폐하?”

“아니, 아무것도. 그저 혼잣말이었을 뿐이다.”

다시금 찻물로 목을 축인 헤르세인은 더 이상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잠에 빠질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숄을 벗어 완전히 눕기 전 몸을 덮어줄 이불을 끌어올려주고자 곁에서 준비하고 있는 라즐리에게 헤르세인은 내일은 좀 더 일찍 깨워줄 것을 부탁했다.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깨워주렴.”

“예, 폐하.”

어쩌면 오늘보다 더 빠듯할지 모를 내일의 일정들일지 몰랐다. 라즐리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잠깐이라도 쉴 수 없는 왕의 자리임을 알기에, 또 하나 뿐인 주군을 생각해 내일은 고기들이 좀 더 포함된 식단을 요리사에게 부탁할 생각으로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서 조용히 움직였다.

차가운 빗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고요한 침실. 라즐리는 빛을 가릴 암막커튼을 전부 내리고서 마지막 은은한 빛을 꺼버릴 촛불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작은 입김으로 흔들리는 촛불을 완전히 끔으로서 헤르세인이 눈을 감을 것을 확인한 라즐리는 그렇게 조용히 침실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촛불하나 가지고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사라진 루드비카를 기다린 케시아. 아무리 루드비카를 찾아도 광장에 보이지 않던 그의 모습에 케시아는 결국 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그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케시아는 어느새 어두컴컴해진 밤까지 기다렸으나 도통 열리지 않는 집안의 문을 볼 때면 불안이 더욱 커져갔다.

그렇게 루드비카를 기다린 지 몇 시간이 흘렀을까. 달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케시아는 수 시간 만에 루드비카를 볼 수 있었다.

“루드──!”

당장에라도 루드비카를 향해 달려 나갈 걸음이었다. 하지만 한발자국 채 걷기도 전에 제자리에 완전히 멈춘 케시아는 흔들리는 눈으로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지 그의 모습은 홀딱 젖어 있었으나 케시아에겐 그건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빈껍데기 마냥 표정하나 없이 인형처럼 있던 그가, 혼을 쏙 빼놓을 만큼 매혹적인 미소를 그리며 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왕녀전하.”

그리고 그 미소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순간, 케시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더 이상 인형이 아님을. 제정신이 돌아온 완전한 루드비카임을.

“루드… 비카…?”

“지금까지 날 기다린 건가요?”

당신이 사라졌으니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당신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케시아는 이런 제 마음을 바로 알아준 루드비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쏜살같이 뛰어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루드비카!!”

“네, 전하.”

“정말… 당신이 맞는 거죠? 당신이 맞는 거죠?! 정말로 루드비카 당신이 맞는 거지요?!”

“예, 전하. 당신이 알고 있는 루드비카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다리고 있을 당신께 돌아온 것이지요.”

아아, 이품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생전에는 제대로 안겨보지 못한 품이었으나 케시아는 오늘만큼 제대로 안긴 그의 품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인형과는 달랐던 따뜻하지 않은 그의 품.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온 루드비카의 품은 누구보다 사람냄새가 나고 그의 향기가 나며 따뜻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내의 품이었다.

“루드비카…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당신을 이렇게나 아직까지도 사랑하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밖에 모르는데! 당신이… 당신이 혹시라도 헤르세인에게 향했을까봐… 내가 얼마나… 얼마나...”

토닥토닥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고 다독여주는 어른스러운 손짓이, 다정한 손짓이 케시아를 더욱 칭얼거리는 아이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품에 안긴 케시아는 눈치 챌 수도 볼 수도 없었다. 제 등을 다독여주는 루드비카의 표정이 얼마나 다정하지 못 할 만큼 무표정하고 싸늘한지를. 그리고 다정함이 가득 묻어 있는 목소리 또한 얼마나 겉껍데기를 씌우고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케시아는 알아차릴 수 없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헤르세인 왕녀에게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버렸고 당신이 이렇게 저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온전히 전하의 것입니다.”

“뭐… 라고요?”

그 순간, 울음을 뚝 그친 케시아는 저가 잘못 들었나 싶어 루드비카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케시아의 눈에 비치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는 고개를 기울인 그의 모습은 되려 케시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저가 알고 있는 루드비카는 그 계집을… 헤르세인을 누구보다 맹목적으로 사랑한 사내였으니까.

“헤르세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녀에게선 제대로 된 사랑조차 받질 못했습니다. 늘 상처뿐인 저만의 사랑이었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제 죽음이 되었고 저는 영원히 눈을 감았지요.”

“...”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되살린 당신이… 전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임을. 그러니 용서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어리석은 나의 과거를.”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살아났는지...”

여전히 믿기지 않다는 표정으로 케시아는 제 입술을 가리며 사시나무 떨 듯 온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은 공포와 불안이 아닌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은 희열과 기쁨이 섞인 떨림이었다. 마치, 거부당했던 제 사랑이 드디어 보답을 받는 그런 기분. 어느새 케시아의 눈 끝에는 또 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조금 만 더 눈꺼풀을 깜박였다간 툭 떨어질지 모를 눈물방울이었으나 그 눈물을 루드비카가 손끝으로 닦아내주며 어느새 케시아는 다시 루드비카의 품에 안겨 있었다.

“예,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떤 무모한 일을 벌였는지, 또 당신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왕녀전하… 아니 케시아. 나를 살린 건 오직 당신이고 지금까지도 나를 오롯이 사랑해준 건 당신뿐입니다.”

“루드비카...”

불안했던 모든 감정들은 순식간에 봄처럼 녹아내리듯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달콤한 말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완전히 허물어진 그의 마음. 케시아는 루드비카를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듯 그의 목에 제 팔을 두르며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그의 가슴에 제 얼굴을 파묻어버렸다.

“루드비카! 루드비카!”

“예, 전하.”

“전하라고 부르지 마요!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호칭보다, 케시아… 계속 다정하게 케시아라고 불러줘요!”

“예, 케시아.”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죠? 당신이 말했듯, 정말로 당신은 내 것이지요?! 빨리 대답해줘요!!”

고개를 들어 저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그녀의 외침에 루드비카는 제 목을 옥죄는 그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힘이 무식한지 보통 사람이라면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를 압박이었으나 루드비카는 더 이상 보통의 사람이 아닌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에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표정을 다정히 숨기며 조용히 케시아를 제 품에 끌어 당겼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과 달리, 그녀의 귓가에 바싹 붙은 입술은 한 없이 다정함이 담긴 악마 같은 속삭임으로 루드비카는 그렇게 케시아를 안심시켰다.

“네, 저는 온전히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곁에 떨어질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나의 사랑스러운 케시아.”

“루드비카…! 루드비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연기를 내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역겨우면서도 루드비카는 제 속의 울렁거림을 억눌러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고를 들인 연기를 해줘야 그녀를 눈앞에서 완전히 치울 절호의 기회였다. 행복이란 단꿈에 빠져 최고의 기쁨을 맞이한 케시아. 그러나 그 단꿈이, 행복이 제 목숨을 앗아갈 악몽인지도 모른 채 절망을 맞이할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루드비카는 무척이나 내일이 기대되었다.

‘헤세,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향하기 전, 나와 당신을 갈라놓은 이 추악한 계집을 내 손으로 없애고 당신에게로 온전히 향할 테니까.’

그러니 이까짓 제 품을 내주는 것 쯤, 루드비카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가 품은 집착. 그리고 루드비카의 비틀린 애정과 집착은 이제 케시아를 가뿐히 넘을 만큼의 광기와도 다름없었다. 제 목숨이 그의 손에 움켜쥐고 있음을 전혀 모른 채, 루드비카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내어준 케시아.

케시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루드비카의 품에서 비가 게인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서서히 해가 떠오르는 아침. 그리고 열린 창문의 틈으로 짹짹 울며 날아든 작은 새까지. 이불속으로 파고들려던 케시아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몽롱한 정신인 채, 얼굴 위치를 바꾸며 옆자리를 더듬던 순간이었다. 손에서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 마치 찬물에 정신이 번쩍 뜬 것처럼 케시아는 눈을 크게 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루, 루드비카?”

케시아가 기억하는 어젯밤. 혹시라도 그가 또 제 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케시아는 루드비카를 껴안으며 간절히 호소했었다.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의 온기가 있어야 잠이 올 것 같다는 간절한 호소에 루드비카는 그렇게 케시아와 함께 잠이 들었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맞대고 잠이 들어서였을까. 아주 작은 욕망이 꿈틀댔으나 이제는 루드비카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짐을 알기에 케시아는 제 욕망을 억누르며 그렇게 루드비카의 품에서 그의 팔을 베개 삼아 그 어떤 행위도, 손짓도 없이 순수하게 잠이 들었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당연하게 있을 거라 생각한 그의 빈자리에 케시아는 또 다시 물밑 듯 쏟아지는 불안을 느껴야만 했다.

‘설마, 나를 두고 떠난 건 아니겠지? 분명히 어제 나랑 약속했었는데!’

잠결에 망가진 엉망진창인 몰골로 후다닥 침대에서 빠져나온 케시아는 세수를 할 새도 없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엌에 발을 들이민 순간, 케시아는 비로소 불안이 사라지고 안심할 수 있었다.

“루드비카...”

언제 일어나서 준비 중이었는지 편한 튜닉차림으로 팔을 걷어붙여 식칼을 들고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던가. 그가 여전히 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심된 나머지 케시아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채소를 썰고 있는 루드비카에게 달려가 그의 허리를 꽉 껴안았다.

“루드비카!”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당신이 옆에 없어서… 나는 또 당신이 사라진 줄 알고...”

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는 케시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어제처럼 다정히 그녀를 달래주었다.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설마… 어제 제 얘기 거짓말로 생각하신건가요? 분명히 저는 당신의 곁에 남아있겠다고 말했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그, 그게 아니에요! 난 그저… 너무 불안해서… 당신이 없으면 도저히 안 돼서...”

그때, 한참 채소를 썰고 있던 루드비카는 식칼을 내려놓고서 몸을 완전히 돌렸다. 여전히 허리를 바싹 껴안고, 손을 풀지 않는 그녀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러나 루드비카는 그런 케시아를 매정히 떼어내기 보단 상냥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며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품에 끌어안아 다정히 속삭였다.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 어디에도 안가니까. 케시아, 당신의 곁에 쭉 남아 있을 테니까.”

“루드비카...”

이제는 안심이 됐을까? 코를 훌쩍이며 얼굴을 든 케시아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싱긋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떼어내고는 양 어깨를 잡아 식탁이 있는 곳으로 그녀를 밀어주었다.

“자, 배고프죠? 제가 몇 번 요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아침을 먹어야 든든히 힘도 나고 없던 기운도 나니까요.”

“요리?”

“네, 케시아. 당신을 위해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을 쏟아 부은 요리에요.”

방금 전까지의 불안에 떨던 모습은 어디에 갔는지 저를 위한 요리란 말에 케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제 앞에 가지런히 놓인 접시와 나무수저, 그리고 물이 가득담긴 컵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세팅해놓은 루드비카의 손짓을 케시아는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보기 바빴다.

“너무 오랜만의 솜씨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디 당신의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으응. 분명 맛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정성들여 만든 요리이니까. 분명.”

마지막으로 루드비카가 냄비를 식탁에 옮겨 직접 접시에 덜어주는 그 모습을 케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제 앞에 놓인 스튜가 담긴 접시를 본 순간, 케시아는 두 손을 모아 감탄을 비치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의 미소를 그려냈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케시아에겐 미각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다. 그저 꿈같았던 아침 식사가 끝내고 후식 겸 루드비카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여전히 부엌에서 벗어나지 않은 케시아는 평소보다 향이 진한 것 같은 차를 음미하기 바빴다. 언뜻 찻물의 색을 보면 루드비카의 핏빛 눈동자를 연상 캐하는 찻물의 색이었으나 그저 단순히 홍차의 색이 진하다고 가볍게 생각한 채, 케시아는 또 다시 한 모금을 목구멍에 넘기던 순간이었다.

“차 맛은 어떤가요?”

“당신이 끓여준 차라서 그런지 달고 무척 맛있어요. 다음에 또 마시고 싶을 만큼.”

“아아,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케시아는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다. 저를 보고 어째서인지 계속 말없이 웃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과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그를 볼 때까지, 케시아는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져가고 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쯤 이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한 모금을 전부 넘긴 순간, 케시아는 처음 들어보는 누군가의 낯설고도 경박한 웃음소리에 흠칫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큭큭큭, 하고 웃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웃음. 그 웃음소리는 경박한 것도 있지만 마치 이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아 케시아는 찻잔을 내리고 웃음소리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바보마냥 주변을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다 그 웃음소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루드비카에게서 나온 웃음소리임을 알게 된 순간, 케시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루드… 비카…? 대체 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움찔거리며 여전히 숨을 죽여 웃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이질적이면서도 낯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참을 수 없는지 결국 손을 떼고서 대놓고 배를 움켜잡으며 크게 웃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케시아는 어째서인지 뒷목이 서늘하면서 오싹해진 기분을 지워낼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루드비카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루드비카? 대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웃는지… 얘기를...”

그 순간, 한참을 배를 잡고 웃던 루드비카가 숨을 들이키곤 이제 진정이 되는지 양손에 깍지를 끼곤 거만히 다리를 꼬아 앉았지만 평소 케시아가 알고 있던 루드비카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조소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아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멍청하기 짝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자기가 무얼 먹었는지 무얼 마셨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주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좋은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개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개...?”

개라니? 지금 그의 고운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정녕 그가 실제로 뱉어낸 말일까?

그렇지 않은가? 귀가 맛이 가지 않은 이상, 저가 알고 있는 루드비카는 이런 식의 경박한 말투를 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케시아를 향해 루드비카는 피식 웃고는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소가 가득 담긴 입꼬리를 진하게 끌어올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정말이지 멍청하기 짝이 없다니까. 원래 그쪽 일가는 사람 말을 우습게 알아듣는 장식용 귀라도 가진 걸까? 응?”

“루드──! 커─억!!”

그때, 루드비카의 이름을 미쳐 다 부르기도 전에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호가 온 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케시아의 안색은 새파랗게 변할 만큼 제 목을 움켜쥔 채, 배에서부터 용암처럼 끓어 나온 핏덩이를 토해냈다.

“쿨럭! 커억!!”

또 한 번 다시 핏덩이를 토해낸 케시아는 그대로 몸의 중심을 잃고 이마를 식탁에 찍어버렸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식탁에서 떨어진 찻잔이 와장창 깨진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누구도 깨진 찻잔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여전히 배와 목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는 케시아를 지켜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이날만 기다린 오랜 희열과 잔혹한 쾌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눈치 채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았지. 당신이 먹은 아침요리와 방금 전까지 당신이 마신 차. 그런데 이상하지? 분명 당신이 일어나기 전까진 내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을 텐데, 어디서 그런 독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먹였을지 말이야.”

“쿨럭! 쿨럭! 쿨럭!!”

“이유는 간단해. 당신이 나를 되살리려 소환한 대악마 바알의 힘을 빌려, 악마의 피를 독으로 사용했지. 바알이 그러더군. 악마의 피는 인간에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고.”

“쿨럭! 쿨럭! 허─억!”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속이기 쉬운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지. 잠깐만 다정하게 굴었다면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그 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손으로 그 목을 꺾어버리고 싶었는지 몰라.”

간신히 고개를 든 케시아의 얼굴이 루드비카의 핏빛 눈동자에 비쳤다. 눈물이며 콧물이며 피로 흠뻑 적셔진 입술까지, 그야말로 보기 흉한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있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에 루드비카는 비틀게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7년 동안이나 나를 가지고 인형놀이를 한 소감이 어떻지? 즐거웠나? 아니 즐겁고를 떠나 제 욕심이 우선이었겠지. 인형처럼 당신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나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행복에 겨웠을까, 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역겹고 아주 치가 떨릴 정도야.”

“허──억! 컥──! 커──억!”

“아아, 눈치 따윈 개나 줘버린 케시아. 당신은 제 주제를 알고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 하나 때문에 나도… 헤세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아니, 당신 하나로 헤세가 갖은 고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끼익, 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곤란인 사람마냥 호흡을 제대로 토해내지 못하는 케시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올려다볼 수 있겠끔 식탁 위에 살짝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여전히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케시아를 향해, 정확히 속삭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그녀의 귓가를 대고 상냥히 속삭였다.

“대악마 바알이 그러더군.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바친 제물이 당신의 아비인 살아있는 심장과 땅에 묻힌 내 유골과 흙, 그리고 수많은 처녀들의 제물이라고. 참 신기하지? 한때는 한나라의 고귀했던 왕녀였던 이가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을까. 아무리 사람하나 살리려 했어도 그게 과연 과거의 왕녀로서 해야 할 짓이었을까? 누가보아도 사람이 아닌 괴물이 할 짓인데 말이지.”

“루── 흐── 히────. 허어── 억──.”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보이나, 루드비카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숨이 넘어가는 쇳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 루드비카는 그런 케시아를 보며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주듯 손끝을 움직여 그녀의 흘러내린 옆머리를 조심스럽게 귀에 넘겨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친절을 보여준 것인 마냥 루드비카는 매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거짓된 가면이 씌워진 아름다운 미소로 루드비카는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 누구보다 증오스러운 당신에게 내가 제일 고마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되살려준 것.”

“흐──어. 흐──허억──.”

“그것만큼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천박하기 그지없는 당신 따위를 그저 곱게 살려둘 생각 따윈 없으니까.”

“허──억! 크어──억!”

그때, 이 상황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케시아의 어깨가 크게 움직이고 호흡이 크게 울렸지만 여전히 케시아는 입이 굳어 말을 할 수도 호흡조차 버거워하고 있었다. 그저 눈만 움직여 저를 비웃고 있는 루드비카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을 뿐.

“아까 내가 말한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 악마의 피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인만큼 특히 당신의 온 몸에 퍼져 있는 독은 가장 최악이라 할 수 있지. 살아있음에도 산 것 같지 않은… 스스로라도 제 숨을 끊어내고 싶은 그런 독. 케시아, 당신은 현재 그런 독에 중독되어 있지.”

“허──억! 크어──억!”

“해독제조차 없는,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 호흡이 점점 가빠오고 장기가 굳어질 때마다 피를 토하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이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일 정도야.”

“커커──억! 허억──억!”

이런 걸 소리 없는 절망이자, 비명이라 해야 할까. 루드비카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머지, 더욱 진한미소를 그렸음에도 저를 향해 있는 그녀의 눈빛이 마뜩찮아 결국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부딪쳐 튕겨냈다.

하나의 신호음처럼 딱, 소리 나게 울려 퍼진 소리. 어느새 탁자 밑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문양이 빛을 뿜어내며 솟아나는 동시에 그곳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붉은 안개가 촉수처럼 넘실거리며 케시아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한편, 말은 할 수 없어도 눈을 통해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던 케시아는 속으로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쇳소리만이 전부인 거친 호흡만이 고요한 부엌을 울리고 있을 뿐. 이곳에서 케시아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토록 루드비카를 향해 들리지 않을 원망의 소리를 외쳤지만 케시아는 이 현실을 미치도록 부정하고 싶었다. 이것은 전부 지독한 악몽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제까지만 해도 상냥히 저를 온전히 받아준 루드비카가 이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 기대를 이미 일찌감치 저버린 루드비카는 나른하면서도 사람을 홀릴 듯한 미소를 보여주며 케시아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평생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을 이곳에서 홀로 고통을 느껴봐. 아무리 살려 달라 애원하고 소리쳐도 싫어도 들리지 않을 당신의 비명 따위,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테니까.”

“흐──억! 어어──억!”

“그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몸을 수천 번을 찌를 그림자의 바늘. 어디 이것까지 버틸 수 있다면 버텨보도록 해. 그리고 멀쩡히 버텨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한번쯤은 아량을 베풀어 얼굴을 맞대고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 물론 그 고통을 끝까지 버텨낸다는 전제하겠지만.”

“아으──윽! 허어──억!”

“아아,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과연 버틸 수나 있을까? 고통이 끝나도 결국 그 앞은 죽음뿐일 텐데 말이야.”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 또각 구두 굽 소리를 내며 점점 멀어져가는 루드비카의 뒷모습이 케시아의 두 눈에 비쳤다. 하지만 손을 뻗고 싶음에도 뻗을 수 없는 마비된 몸과 본격적으로 가시마냥 제 몸을 찌르는 고통과 더 한 고통을 배로 주는 그림자 바늘까지.

결국 케시아는 내적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가지마! 나를 버려두고 가지마! 나를 버려두고 가지마! 루드비카!!! 아아아아아아악──!!!’

낡은 문소리를 내며 음산하고도 굳게 닫힌, 어쩌면 영원히 그 누구도 찾지 않을 케시아의 집. 그리고 그것을 무심히 쳐다보던 루드비카는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졌다.

탕──!

고막을 울리는 산탄총의 격발소리. 한때, 윌리스 왕태자를 끌어내리고자 아클레아 상단에서 대량으로 구매했던 화승총은 결국 헤르세인의 승리를 이끌게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제국이나 왕국에서도 뛰어난 보급률을 자랑하던 총기는 격렬 방식이 다소 까다롭고 단점이 많이 부각된 이유로 화승총의 시대는 사라지고 어느새 보급률이 많이 퍼지기 시작한 머스캣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화승총처럼 비오면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 단점을 최대한 죽여 부싯돌의 격렬 방식으로 널리 보급이 시작된 머스캣은 무척이나 유용할 만큼 어느새 사브레 왕국의 무기들은 대다수 제국에서 수입한 머스캣으로 전부 뒤바뀐 상태였다.

물론 기사들과 일반 보병들이 검을 쓰는 건 여전했지만 무기하나가 바뀜으로서, 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함으로서 불안하던 사브레 왕국의 경계는 안전 단계로 접어든지 오래였다.

탕──!

다시 한 번 울린 총성. 그리고 조준에 맞춰 하늘에서 추락하는 새가 보이자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사냥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산탄총을 내려 목표물을 향해 뛰어가는 병사를 볼 수 있었다.

“오늘도 폐하께서 이기셨습니다.”

현재 헤르세인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흔한 초원 새를 사냥하기에 알맞은 왕실내의 사냥터였다. 그리고 평소 군주로서의 옷차림이 아닌 가벼운 사냥복 차림을 한 헤르세인의 모습은 요 몇 년 동안 실력을 꾸준히 가꾼 사냥꾼의 흔한 모습이기도 했다.

오래 들고 있기 무거운 산탄총을 담당병사에게 넘기고 답답했던 가죽장갑을 벗어낸 헤르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냥내기에 패배한 빈센트를 향해 한 마디 거들었다.

“일부로 봐주는 게 아니었더냐.”

“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 실력대로 폐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상당한 억울함이 느껴졌는지 빈센트가 풀이 죽은 얼굴을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빈센트의 그런 얼굴은 더 이상 헤르세인에게 통할 어리광이나 애교 같은 것이 되지 못했다. 언제나 어리기만 할 줄 알았던 어린 왕자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 이제는 성인의 모습이 된 빈센트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변성기를 거친 낮은 목소리로 제법 헤르세인에게 대꾸했다.

“또, 그런 못 미더운 눈으로 절 보시고… 정말 제 실력대로 폐하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보다 허기가 지는 것 같구나. 이만 천막으로 돌아갈까?”

피식, 하고 작은 웃음소리를 낸 헤르세인이 먼저 사냥터에 처진 천막을 향해 앞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빈센트가 머스캣 총을 시종에게 맡긴 뒤, 바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느긋하게 움직인 걸음에도 제법 빨리 도착한 천막. 그곳엔 이미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를 마친 라즐리와 시녀들이 있었다. 헤르세인은 겉옷을 벗을 필요 없이 바로 자리에 착석해 라즐리가 따라주는 물로 건조해진 목을 축이며 금방 맞은편에 앉은 빈센트를 향해 물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레이스 공작에게 듣기론 네가 어떤 가문의 여식에게 흠뻑 빠져있다고 하던데….”

“푸웁──!”

이제 막 목을 축이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 제법 얼굴을 틀어 비를 내린 빈센트의 모습은 재밌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아니면 찔렸던 것인지 조금은 벌겋게 열이 오른 빈센트는 소매로 대충 입가를 닦아내며 미간을 찡그렸다.

“도대체, 그레이스 공작은 왜 그런 헛소리를...”

“그레이스 공작이 괜한 헛소리를 할 위인은 되지 못하던데….”

“폐, 폐하.”

이제는 뭔가 애원하기까지 하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이 이상 더 놀렸다간 정말로 울기라도 할 것 같아 이쯤에서 작은 장난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 챈 빈센트가 가슴을 쓸어내리듯 안도의 숨을 쉬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모른 척 해주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식사에 조금 집중하기로 했다.

적당히 배를 채운 식사시간이 끝나고 소화 겸, 산책으로 말을 타기로 한 헤르세인과 빈센트는 초원을 달리며 평소에 보았던 시각이 아닌, 좀 더 높은 시각으로 적당한 곳에 멈춰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빈센트.”

“예, 폐하.”

“아까 내가 너에게 했던 얘기들 말이다. 나는 그 말이 그저 단순한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헛소리든 아니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네 마음이 있으면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고 네가 혼인을 바란다면 난 도와줄 생각이다.”

“폐하….”

세상물정 모를 것 같던 어린 동생. 하지만 지금의 빈센트는 더 이상 세상물정 모르기만 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눈 깜짝 할 사이, 세상을 알고 번듯한 성인 된 지금의 빈센트는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만날 나이이며, 한때 왕족으로서의 기준을 따지자면 이미 혼인을 진즉에 치렀을 나이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제 사랑의 아픔을 알기에, 이별을 알기에 헤르세인은 웬만하면 빈센트가 저처럼 가슴 아픈 사랑을 하지 않길 바랐다.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사랑도 혼인도 아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진 그런 사랑을, 혼인을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누이로서의 마음이었다.

“안 그래도 요즘 네 혼인문제를 은근히 걸고, 넘어지는 귀족들이 있더구나. 그러니 마음이 확실해지고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게 말해다오.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되어 줄 테니.”

“...폐하.”

“유일한 내 가족, 유일한 내 피붙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는 것 같구나.”

빈센트의 푸른 눈동자에 비친 헤르세인의 옆모습은 누가보아도 하나뿐인 제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떠나, 노을빛에 가려진 헤르세인의 모습은 왕으로서 제 가족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자비이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빈센트에게 대충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론 빈센트를 향해 빗발치는 상소문이 널리고 널린 상태나 다름없었다. 귀족들이 그토록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건지도 몰랐다. 아직 후계자가 없는 헤르세인이지만 후계자가 없기에 실질적으로 왕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빈센트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헤르세인의 사후 뒤에도 여전히 후계자가 없다면 다음 왕좌의 주인은 누가보아도 빈센트였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왕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백작으로서 새 삶을 시작한 빈센트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빈센트를 위한 헤르세인의 조치에 불과했다. 후의 빈센트를 가지고 반역을 도모할 뿌리의 잔당들을 철저히 뽑아내기 위해 속고, 또 속아내며 반역의 잔당 들을 전부 숙청했던 지난 과거.

새롭게 등용시킨 젊은 귀족들과 더불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면서 빈센트의 작위를 꾸준히 격상시킨 헤르세인은 작년을 기점으로 빈센트를 대공의 자리에 앉혔었다. 이로서 명실상부 헤르세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서열 2위. 때문에 몇몇의 고위귀족들이 아직까지 반려를 들이지 않은 빈센트의 옆자리를 노리며 제 딸들을 대공비로 만들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열 2위라 해도 대공인 빈센트를 움직이는 것과 혼인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헤르세인에게 있기 때문에 야망에 눈먼 귀족들이 움직인다 해도, 헤르세인의 허가 없인 혼인은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제외하고 빈센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혼인할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적극 지지해줄 마음이 있는 헤르세인은 언제나 빈센트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주고자 그 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오늘. 빈센트의 말이나 표정을 보아하니 그 시기는 곧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헤르세인이었다.

헤르세인은 느슨하게 풀고 있던 고삐를 다시 잡아 빈센트를 향해, 이번엔 말의 달리기 시합으로 내기를 걸었다.

“빈센트, 우리 내기 하지 않겠느냐? 누가 가장 먼저 빠르게 말을 몰아 천막에 도착할지 말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내기에 맛이 들렸는지 빈센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헤르세인은 조금 고민이 담긴 손끝으로 턱을 쓸어내리다, 곧 대답했다.

“그래… 내기는 그게 좋겠구나. 네가 몇 달 안으로 내게 네 짝을 데려온다는 것에.”

“폐, 폐하!”

“그럼, 시작할까?”

일방적인 내기임에도 헤르세인이 먼저 고삐를 당겨 이제는 능숙히 말을 몰자, 벌써 앞서 달리는 그녀의 모습에 빈센트는 고개를 저으며 어쩔 수 없이 그 내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저에 대한 한숨을 내쉬며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랴!!”

며칠 후, 스스로에게 내린 근신을 끝내고 집무실에 찾아온 클로드를 헤르세인은 덤덤히 맞이했다. 애초에 근신이란 명을 내린 것이 저가 아니었으나, 본인 판단 하에 제 심기를 거슬리게 했단 이유로 근신을 선택한 클로드의 모습은 그가 영락없는 라인하르트 공작가의 가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근신이라 하기엔 무안할 만큼 저택에서 편히 쉬었는지 오히려 전보다 얼굴 혈색이 좋아진 모습에 헤르세인은 클로드의 얼굴을 빤히 보며 입술을 뗐다.

“근신하는 동안 편히 쉬었나보군. 얼굴 혈색이 전보다 좋아진 걸 보면.”

“그렇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클로드는 작게 입꼬리를 올리며 헤르세인의 물음에 부정하진 않았다. 원래라면 근신동안 저택내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할 그의 계획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집사며, 하녀며 전부 클로드가 일에 미칠 수 없도록 철저히 휴식 환경을 제공한 덕에 클로드는 생각지 못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헤르세인만큼이나 늘 피곤에 시달리던 클로드였으나 이번엔 작정하고 쉰 덕분인지 몇 달이나 야근해도 너끈할 만큼 클로드는 무척이나 상태가 좋았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진 것과 별개로 이제 막 출근도장 찍은 사람치곤 벌써부터 일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한 클로드의 모습에 헤르세인도 자연스럽게 거들게 되면서 두 사람은 비어지지 않는 찻잔을 두고 오랫동안 의견을 대립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토론도 의견도 완전히 접어들고 이제야 다 식은 찻물로 목을 축인 클로드는 때마침, 무언가 생각났는지 찻잔을 내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수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폐하, 이제 케시아 왕녀에 대한 수색 명령을 완전히 거두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잊고 있었군.”

클로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저조차 까먹었을지도 몰랐다. 7년 가까이 진행된 케시아의 수색. 1, 2년 동안 수도는 물론 지방에도 병력을 풀어 행방불명된 케시아 왕녀를 어떡해서든 찾고자 했으나 헤르세인도 클로드도 심지어 길버트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케시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무지 보이지 않는 케시아의 행방에 헤르세인은 결국 수도에 집중된 수색 병력들을 해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케시아의 행방을 찾는 건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고작 한 사람을 찾기에 병력을 계속 푼다는 것은 왕실의 막대한 손실이었고 점차 안정되는 나라의 사정을 볼수록 병력자원도 만만치 않은 돈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수도를 시작으로 지방까지 수색 명령을 전부 거두어냈으나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에 헤르세인은 정말 극소수의 정예 병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왕국 각지에 풀어 아직까지도 작은 희망을, 미련을… 버려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 걸려버린 7년의 시간. 7년 가까이 찾아내지 못한 케시아를 생각하면 수색을 하는 그들이 문제인지, 정말로 꽁꽁 숨어버린 케시아의 문제인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할지 헤르세인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7년이나 찾아 헤맸어도 소식도, 행방조차 찾을 수 없는 케시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이제 확실히 선택해야할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손을 떼거나, 혹은 여전히 행방을 찾거나.

“...케시아.”

케시아. 그 이름의 석자만 들어도 분노가 일었던 과거. 하지만 지금, 그 감각이 무뎌진 건지 분노가 일어나긴 커녕 케시아란 이름은 더 이상 헤르세인에겐 아무런 감정조차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이름에 불과했다. 물론, 케시아의 모든 행동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제게 저지른 일들을 곱씹을 때면 없던 분노마저 다시 불씨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니까.

‘케시아, 이게 네가 바란 것이라면 그래… 인정하지. 7년 가까이 너를 찾아내지 못한 나의 패배임을.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쥐 죽은 듯이 어딘가에 꽁꽁 숨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 만약, 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네가 내 눈에 띄는 순간, 그땐 널 놓치지 않을 테니까. 지옥 끝까지 쫓아가 너를 끌어내, 네 어미가 받았던 고문 그대로 너에게 선사할 테니까. 그러니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렇게 평생을 꽁꽁 숨어 살도록 해. 아주, 아주… 영원히….’

헤르세인은 선택했다. 여기서 완전히 멈추고 아예 손을 떼기로. 그리고 그 결심과 선택은 곧바로 곁에 있던 클로드에게 전달되었다.

“각지에 퍼져 있는 정예수색 병들에게 전서구를 보내게. 케시아 왕녀에 대한 수색은 오늘부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6년 전. 한창동안 왕성의 안정을 되찾아가던 시기에 헤르세인은 왕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외교단을 개편했다. 본래라면 외교단은 오랫동안 외교를 맡은 고위 귀족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독점했으나, 그것을 갈아엎고 헤르세인은 특수 외교단이란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은 아클레아 상단주인 로렌드 그레이엄.

그에게 주었던 계약서대로 특수 외교단을 창립하는 동시에 외교권의 절반을 로렌드에게 넘긴 것은 물론, 왕실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특수 외교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로렌드는 아클레아 상단으로 하여금 많은 이익을 헤르세인에게 가져다주었다.

특히나 지지하던 세력을 포기하고 헤르세인의 세력으로 돌아선 알베르셋 후작과 레위니온 후작의 보조로 하여금 각국을 돌아 무수한 협상을 일궈낸 로렌드는 방패와 검밖에 들지 않았던 낡은 사브레 왕국의 병권을 강화시켰고 7년 전,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막심하게 피해를 입은 무역길을 다시 열어, 현재는 그 어떤 왕국보다 활발하게 무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한 달 전, 베르디올 제국과의 협상문제로 외교단을 이끌고 잠시 왕국을 떠났던 로렌드에게서 헤르세인의 뜻밖의 서신을 받았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먼저 서신을 읽은 헤르세인 대신, 한참 동안 서신을 읽었던 길버트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려 헤르세인에게 물었다. 하지만 길버트조차 이해되지 이상, 저 역시 서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눈가를 꾹꾹 누르며 메마른 입을 뗐다.

“혹시, 베르디올 제국 쪽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건가?”

“예,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르디올 제국은 무기사업 확장으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이야기만 퍼지고 있습니다.”

“분명 황제의 이름이...”

“리카르도 입니다. 리카르도 칼 라이언 엘레오노르.”

베르디올 제국에 관한 짧은 지식만 알고 있을 뿐, 리카르도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헤르세인은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르디올 제국을 몇 번이나 협상문제로 갔던 로렌드조차 황제의 얼굴이나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었던가. 현, 황제는 신비주의를 고수하는지 그 어떤 나라의 외교단조차 제대로 만났다는 언급조차 없어 황제에 대한 신부주의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들로 퍼져가고 있었다.

못생겨서 신비주의를 고집한다거나, 괴물이라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너무 겁쟁이라 대신들로 하여금 정무를 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설들과 뜬소문으로 리카르도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가지각색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저와 똑같이 아직까지도 반려를 들이지 않았다는 황제의 모습은 헤르세인조차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할 정도였다. 비교적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 왕국과 달리,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주인. 하지만 그런 제국의 주인이 뻔한 대신들의 성토를 알고 있음에도 반려들이지 않는다? 확실히 관심이 갈 이야기이지만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쓸데없는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헤르세인에겐 국력을 강화시킬 베르디올 제국과의 거래가 가장 큰 관심이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로렌드에게서 온 서신은 이해하기 힘든 말 뿐인 협상의 내용.

어느새 헤르세인의 시선은 다시금 책상 위에 펼쳐진 서신을 향해 닿고 있었다.

『로렌드입니다.

제가 다급히 서신을 보낸 건, 다름 아닌 베르디올 제국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급히 서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협상을 잘 끝내고 지금쯤이면 왕국 내에 도착할 날짜이나,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까지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꽁꽁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함께 동행 한 알베르셋 후작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국의 황제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으나,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협상이 되는 대로 다시 서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서구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염려마시고 조금 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베르디올 제국과 본격적으로 동맹을 맺은 건, 6년 전. 동시에 꼼짝하지 않던 황제를 움직여 다른 나라보다 빨리 머스캣 수입을 활발히 이룬 것이 바로 로렌드였다. 하지만 여태까지 협상에 차질이 없던 베르디올 제국이 무슨 이유로 협상을 하지 않는 지, 알 수 없었다. 오직 그쪽의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건, 현지에 있는 로렌드 뿐이기에 헤르세인은 그저 로렌드의 서신을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로렌드에게서 온 서신을 확인한 헤르세인은 제 눈이 글씨를 틀리게 읽지 않은 건가 의심이 될 만큼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그리고 서신과 함께 제국에서 보낸 젊은 기사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서신을 내려, 예를 갖춘 기사에게 냉담히 물었다.

“말하라. 베르디올 제국의 기사가 여기엔 무슨 일로 온 것이지?”

“황제폐하께서 사브레 왕국의 국왕께 전달할 하명이 있어, 이렇게 제국의 전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명?”

“그렇습니다.”

하명이라니. 지금 기사가 말한 하명은 말 그대로 황제가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과도 같았다. 그 말은 즉, 동맹국인 사브레 왕국을 제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비웃음과도 같아 헤르세인은 어디 한 번, 그 잘난 입이 어디까지 나불거리는지 지켜보자는 심산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사에게 다시 물었다.

“황제가 내게 하명할 것이 무엇이냐. 대답하라.”

“황제폐하께서는 앞으로 보름 뒤, 사브레 왕국을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전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방문의 목적은 6년이나 이어진 동맹국을 향한 믿음과 더욱 깊이 쌓을 친교의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황제폐하의 바람이시자. 더욱이 사브레 왕국이 원하는 협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자 하는 황제폐하의 뜻입니다.”

“...”

제국에서 보낸 기사의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다. 하지만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가 그것도 사신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보름 뒤에 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가 굳이 이곳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것도 황제씩이나 되는 자가 직접 타국으로 발을 들이민다는 것은 황제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동맹국이나, 중립국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목숨은 그 어떤 나라든 관심을 거둘 수 없는 목숨과도 같았다. 때문에 거액의 암살자를 고용해서 황제의 목을 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거기다 정복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황제가 직접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기에 황제가 움직인다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노리기 좋은 때이기도 했다.

머리가 아파왔다. 좋든 싫든, 황제는 기어코 사브레 왕국으로 발을 들이밀 생각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만에 하나 황제의 목숨이 여기서 위태로워진다면 베르디올 제국은 그것을 걸고 사브레 왕국을 압박할지도 모를 이야기였다. 하지만 황제가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오던 헤르세인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상대는 어쩌면 저보다 더 고아할지 모를 높은 자리에 앉은 제국의 주인. 그러나 기사에게 굳이 하명이란 말을 전달한 황제의 의도가 뻔히 보였기에 헤르세인은 이대로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었다. 비록 제국보다 약해보일지 모를 작은 왕국일지라도 제국과 동맹국인 이상, 허리를 낮출 이유도 황제를 향해 목소리를 낮출 이유도, 굴복할 이유도 헤르세인에겐 없었다. 그저 이름만 다르게 불릴 뿐인 왕이란 이름.

그러니, 겁낼 필요도 공포에 떨 이유도 없었다.

“제국에서 온 전갈이여, 그대의 이름을 대라.”

“저는 황제폐하를 가까이서 보필하고 있는 제2기사단의 단장이자 아돌리안 백작가의 소가주인 루카스, 라 합니다.”

“그럼 편히 아돌리안 경이라 부르겠다. 아돌리안 경은 들어라. 사브레 왕국은 엄연히 베르디올 제국과 손을 잡은 동맹국. 아무리 제국에 미치지 않은 왕국일지라도 사브레 왕국이 제국의 크기만 한 땅덩어리에 무릎을 굽힐 이유도, 몸을 숙여 예를 갖출 이유 따위도 없다. 그러니, 아돌리안 경은 똑똑히 내 이야기를 황제에게 전하라. 황제는 하명이 아닌, 나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똑같이 예를 갖춰 거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또한, 하명이란 말은 못들은 걸로 하겠다.”

“예. 황제폐하께 한 글자 틀리는 것 없이 국왕폐하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제국의 기사가 몇 초간의 침묵으로 저를 살피는 것 같았지만 금방 가면이라도 썼는지 제국에서 보낸 기사는 정중히 예를 갖추며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기사가 말한 보름이 지난 후. 예상대로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는 로렌드가 이끄는 외교단과 함께 제국의 수십의 기사들을 이끌고 오랫동안 감춰왔던 모습을 드러냈다.

차원이 다른 광활한 영토와 차고 넘치는 광산을 이용하여 무기개발로 황금의 제국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일으키고 있는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 현재 그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마냥 황제를 칭하는 호칭들은 다양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의 황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것일지도 몰랐다.

베르디올의 흑사자. 사자는 대대로 베르디올 제국의 상징이자 국기에도 국가에도 사자가 들어 갈 만큼 그야말로 베르디올 제국에선 사자의 존재는 빼놓을 수 없는 상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상징을 강하게 각인시킨 건, 현 황제인 리카르도 칼 라이언 엘레오노르.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로서 차기 황제로서 자라난 리카르도는 그야말로 타고난 군주 감이었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이목을 이끄는 그의 카리스마에 추종자들이 넘칠 만큼 리카르도는 그야말로 두 번 다시없을 황제 중의 황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복전쟁을 성인이 되어서 끝내고 노쇠한 황제를 대신해 조금은 이른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 앉은 그는, 곧바로 칩거하듯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일은 재상과 대신들에게 시켜 제국을 다스리게 명령했고 그는 무슨 말이 들리던, 어떤 소문이 퍼지던 결코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머리카락 한 올 조차 보이지 않던 황제가 무슨 이유인지 오랜 칩거 생활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사브레 왕국과의 교류와 협상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나 베르디올 제국의 사자가 노쇠한 사자일거라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베르디올 제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도 칩거하는 황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혹은 고위급의 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만나기 까다롭다는 소문에 어느새 부턴가 현 황제는 벌써부터 늙은 황제 취급을 당하거나 허수아비 황제로 조롱삼아 불리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쇠한 사자라 불리는 황제의 모습은 노쇠하긴 커녕 말 그대로 젊은 흑사자 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흑사자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태어날 때부터 칠흑의 머리칼을 가지고 태어난 그. 그리고 사람을 눈빛만으로 꿰뚫을 것 같은 에메랄드빛의 녹안은 진중하면서도 황제 특유의 권태로움이 담겨 있었다. 제 머리색과 똑같은 혈통 좋은 흑마를 이끌며 어느새 사브레 왕국까지 도착한 젊은 황제.

리카르도는 권태로움이 담긴 표정으로 저 멀리서도 보이는 왕성의 모습을 보곤 묵직한 목소리를 울렸다.

“이곳이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왕국인가? 생각보다 그저 그렇군.”

그의 눈에 비친 사브레 왕국의 모습은 큰 감동도 감흥조차 주지 못했다. 어린 시절, 정복전쟁으로 많은 왕국을 점령한 그였으나 그 어느 곳이든 리카르도의 눈엔 왕국의 모습은 다 비슷할 뿐이었다. 하지만 유일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왕녀의 신분으로, 여인의 몸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국왕의 존재.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어, 리카르도는 오지 않아도 될 수고를 무릎 쓰고 이곳까지 직접 온 것이었다.

거기다, 보름이 오기 전, 사브레 왕국으로 전갈을 보낸 루카스에게서 국왕의 답신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던가. 리카르도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폐하께선 사브레 왕국의 국왕을 우습게 보셔 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잔뜩 겁이라도 먹은 것이냐?"

"폐하께서 직접 겪어보셔야 압니다. 사브레의 국왕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오금이 저린 줄 아십니까? 어휴, 말도 마세요. 모습과는 다르게 북풍한설이라도 부는 줄 알았습니다."

웃긴 것과 별개로 루카스는 정말로 추위를 느끼는 건지 한동안 제복을 두껍게 입고 다니며, 리카르도에게 매번 충고 아닌 충고를 남겼었다. 그래서일까? 루카스 덕분에 보지도 않은 사브레 국왕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박혀버린 리카르도는 곧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할 그녀의 모습이 궁금하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별거 없을 국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왕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베르디올 제국에서 온 리카르도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헤르세인 요 며칠 동안 숙면을 포기하고 모든 대신들을 움직여 왕성을 재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제국의 황제와 첫 대면인 것도 있지만 상대는 어찌됐든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 빈틈을 보일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특히나 왕성의 경비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았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맞이하게 된 황제와의 첫 대면. 워낙 소문이 무성한 황제였기에 헤르세인은 당연하게도 나이가 저보다 많은 황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연배인지 아니면 조금 연상인지 모를 황제는 무척이나 젊었고 가까이 있는 시녀들조차 넋을 잃을 만큼 황제는 빼어난 용모를 지닌 사내였다.

“설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군. 일단 만나서 반갑소. 편히 리카르도, 라 불러주시오.”

“환영하겠소. 나는 물론,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동맹국인 황제를 환영하는 바이오. 베르디올 제국의 황제여.”

황제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던, 헤르세인에겐 중요하진 않았다. 그저 어서 빨리 무기 협상의 일을 마무리 짓고 본인의 제국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던지라 헤르세인은 제 소개대신 황제가 내민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으로 첫 인사를 간단히 끝냈다.

황제는 물론, 그가 이끌고 온 기사단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라즐리와 길버트에게 일을 분담시켜 그들의 안내를 맡겼고, 제국인들과 함께 왕성에 도착한 로렌드를 따로 불러 자세한 내막을 듣고자 했으나, 결국 헤르세인은 로렌드에게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송구합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무기협상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제국에 갔으나… 무슨 일인지 황제 쪽에서 먼저 거부하는 통에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왔을 때, 황제에게서 무언가 숨기는 것은 없었나?”

“…예. 저도 혹시나 해서 제국의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철저히 입단속을 시킨 것인지 아님 정말로 숨길만한 무언가가 없어서인지 알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송구합니다, 폐하.”

“그대가 알아낸 것이 없다면, 황제에게 직접 들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알았네. 그동안 타지에 나가 이만저만 고생이 심했을 텐데 며칠은 푹 쉬어두게. 황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대가 또 바삐 움직일지도 모를 테니.”

로렌드가 이제 막 자리를 피해 문을 연 순간, 때마침 라즐리가 볼일이 있어 왔는지 평소보다 조금 다급한 표정을 보인 채 헤르세인이 앉아 있는 곳까지 달려와 거친 숨을 들이키며 목소리를 냈다.

“폐, 폐하. 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국의 화, 황제폐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헤르세인은 라즐리와 다르게 표정을 드러내지도 그렇다고 얼굴을 일그러트리지도 않았다. 단지 너무 예상 밖의 행동이라 아주 살짝 고운 미간이 움찔했을 뿐. 헤르세인은 작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는 라즐리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그레이스 공작에게 내 말을 전하도록해라. 소수의 발 빠른 기사들을 조용히 움직여 제국의 황제를 찾아내라고.”

리카르도 현재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 사브레 왕국에 당도했을 때도 느낀 것이었지만 리카르도가 느낀 사브레 왕국은 감상은 이러했다. 제국보다 한참 아래인, 수수하면서도 재미가 없는 그런 작은 땅덩어리의 모습. 어린 시절부터 쭉, 말을 타고 광활한 대지를 달리며 정복전쟁을 벌인 탓일까. 정복전쟁으로 많은 속국을 만들어낸 왕국을 보아왔지만 베르디올 제국만큼 빛나는 땅을 본적이 없던 리카르도의 눈은 그만큼 콧대가 높아 있었다.

하지만 사브레 왕국과는 별개로 제 부하에게서 이야기로만 듣던 국왕 헤르세인의 모습은 리카르도의 흥미를 돋게 만들었다. 제 소개를 굳이 했음에도 본인의 소개는커녕 매정한 형식적인 인사만을 덩그러니 남긴 그녀의 모습은 언뜻 보면 오만하고도 건방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아왔던 속국의 국왕과 달리, 무례하지도 않고 나름 위치에 맞는 짧은 인사를 보여준 그 모습이 썩 나쁘지 않아 리카르도는 그 인사를 그냥 넘기고자 했다.

하지만 제 콧대만큼이나 부하의 콧대까지 높아진 건지 국왕이 자리를 떠난 틈을 타, 함께 보좌로 따라온 제1기사단의 단장, 빌헬름이 짐짓 표정을 굳히며 국왕의 행동을 지적했다.

"왜, 아무말씀도 없으십니까?"

"뭐가 말이지?"

"사브레의 국왕 말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폐하께선 기꺼이 이름까지 밝히셨는데 상대방은 그걸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무례하다면 무례할 수 있겠지만 딱히 기분 나쁘지는 않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속국의 같잖은 왕들과 달리, 오만할지라도 내가 내민 악수를 딱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이는 사브레의 국왕이 처음이란 뜻이다.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대뜸 내 얼굴을 보곤 대다수가 치욕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다."

한때는 끝이 없었던 정복전쟁. 그리고 주변의 왕국들을 함락시켜 속국으로 만들던 중, 대다수의 국왕들은 리카르도의 얼굴을 보고 굴욕과 치욕의 표정을 짓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제국의 속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반발을 한다, 쳐도 그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다.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새파란 핏덩이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의 왕국을 함락시켰다는 것이 그들에겐 대 굴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함락시킨 속국의 국왕들에게 몇 번이고 내밀었던 손.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손을 내밀기보단 새빨갛게 피로 물든 손에서 검을 놓지 않았던 과거의 시절. 리카르도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지금에야 인식할 수 있었다.

처음은 아니지만 여인의 몸으로 왕이 된 그녀의 손을 잡았던 제 손. 리카르도는 악수했던 제 손을 들어 올려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흐음.”

언뜻 차가움이 느껴지면서도 미미한 온기가 느껴진 것 같던 손의 감촉. 하지만 다시 한 번 잡을 그 손이 과연 처음과 똑같을지, 혹은 피로 물든 제 손을 잡을지 알 수 없었다. 이번 협상은 온전히 리카르도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을 뿐. 무기협상의 문제를 떠나, 리카르도가 이곳에 온 이유는 순전히 호기심과 재미에 불과했다. 오랜 칩거생활을 끝내고 이 왕국을 제국의 속국으로 함락시킬지, 혹은 동맹국을 유지하며 지켜보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섰을 때, 리카르도는 여전히 어딘지 알 수 없는 장소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아까와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휴식처처럼 정갈히 다듬어져 있는 정원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작게 휘파람 소리를 내며 이번엔 대놓고 주변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사용하지 않는 궁전인건가?”

벽을 타고 뒤덮인 덩굴이며 티타임을 하기 좋은 테이블을 빼곤 인적한명 없는 주변 정원의 모습은 언뜻 추위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정원에 활짝 핀, 하얀 꽃에 이끌려 리카르도가 한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간 순간, 피부가 오싹하게 느껴질 감정 없는 목소리가 그를 우뚝 멈추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무얼 하는지 직접 얘기를 듣고 싶군. 베르디올의 황제.”

“아, 이런…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으러 왔군.”

리카르도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바람결에 휘날리는 칠흑의 앞머리를 대충 쓸어 올렸다. 만약 헤르세인을 따라온 시녀나 하녀들, 혹은 공녀들이 있었더라면 분명 리카르도의 단순한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얼굴을 붉히며 시름시름 앓았겠지만 그의 얼굴이든 손짓이든 별다른 감흥이 없는 헤르세인에겐 어떤 흥미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다만, 그가 제 휴식처를 침범했다는 것만이 썩 불쾌해 헤르세인은 어서 그가 이곳을 떠나주길 바랐다.

“편히 쉴 수 있도록 베르디올 황제에게 최상의 침실을 제공했을 터. 헌데 황제치고 이 행동은 무례한 것이 아닌가?”

“무례라… 내가 워낙 무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누군가 날 강제로 침실에 넣어두면 빠져나오고 싶은 버릇이 있는지라. 내 행동에 문제가 되었다면 사과하지. 그런데...”

“...”

“내 소개, 잊은 건가? 베르디올의 황제 말고 편히 이름으로 부르게. 리카르도, 라고 말일세.”

베르디올의 황제든, 리카르도 이든 둘 중 무엇이든 헤르세인에겐 딱히 중요치 않았다. 그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왜 하필 찾아도 이곳에...’

길버트에게 전언하여 소수의 기사들을 움직여 헤르세인은 금방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저만의 공간을 침범한 초대하지 않은 손님 덕에 헤르세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분을 대놓고 표현하기에 상대는 제국의 황제. 헤르세인은 최대한 감정을 억눌러 숨을 작게 들이켰다. 그리고 호흡을 길게 뱉어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한가로이 꽃구경 따위를 하고 있는 황제에게 제 목소리를 냈다.

“차를 마실 공간이나 정원을 둘러보길 원한다면 다른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본궁으로──.”

“이 정원에 있는 꽃들은 그대의 취향인가?”

“…내게 그것을 묻는 이유가 뭔가, 베르디올의 황제.”

“이유? 이유라...”

언제 가까이 다가갔는지 리카르도의 손끝에는 하얀 장미꽃잎이 부드럽게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자태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힘 조절을 잘못한 탓일까. 아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제 손바닥 위로 흩어진 하얀 꽃잎들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피식 웃고는 살짝 숙이고 있던 고개를 반 정도 들어, 저를 보고 있는 헤르세인에게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런 볼품없는 하얀 장미보다, 어쩐지 사브레의 국왕은 제법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꽃이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지.”

“...”

“뭐, 타국에서 온 내가 남의 땅의 정원을 세세하게 따질 이유는 없겠지.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마음에 두지는 말게.”

그리곤 완전히 하얀 장미꽃에서 몸을 돌린 리카르도는 길쭉한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단, 다섯 발자국 사이를 남겨두곤 헤르세인의 눈앞에 멈춰 있었다. 다섯 발자국으로 벌어진 거리임에도 그가 팔을 뻗기만 하면 어쩐지 닿을 것만 같은 짧은 간격. 심지어 상당한 장신이기까지 해, 다섯 발자국이 아닌 두 걸음 정도면 바로 코앞까지 닿을 것 같은 거리에 헤르세인은 차분하게 머릿속을 정리했다.

황제의 성격이 이런 건지, 아니면 저를 놀리기 위함인지, 또 작은 나라의 왕이라며 비꼬기 위함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가 어떤 도발을 하던 어떤 식으로 조롱하던 무릎을 꿇어서도, 허리를 굽혀서도 안 되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헤르세인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렇게 황제의 어깨가 스칠 거리가 좁혀졌을 때, 나직이 입술을 뗐다.

“어떤 도발을 하던 내가 넘어가겠단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오.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칩거까지 끝마치고 머나먼 타국까지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적당한 선이란 게 있는 법. 그러니, 제 발로 협상하러 왔다면 이만 곱게 침실로 돌아가시오, 베르디올의 황제.”

조곤조곤하면서도 살짝만 건드리면 날카롭게 베일 그녀의 경고. 리카르도는 어느새 몸을 반대로 다시 틀어 길 안내할 기사를 두고 저 멀리 가버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리카르도로선 이런 대접과 경고는 정말이지 처음 겪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정복전쟁으로 함락시켜 속국으로 만든 대다수의 왕들에게 거친 언사를 듣거나 경고를 들은 적이 있지만 헤르세인, 그녀의 경고는 그야말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색다른 경험과도 같았다.

하지만 침실로 돌아가기 전, 리카르도는 저를 침실까지 안내할 기사를 불러 세워 제 궁금증을 단숨에 채우고자 했다.

“국왕의 이름이 무엇이지?”

“예? 국왕폐하의 존함은 제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숨이 끊어지고 싶지 않거든,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 말해라. 지금 당장.”

어쩌다 눈에 띄어 헤르세인과 함께 레인 궁까지 함께 온 말단의 기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보였던 황제는 단숨에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 목을 베어낼 정도의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말단 기사는 제 목숨이 중한 나머지 다시금 침을 삼키곤 어렵사리 주군의 존함을 알려주었다.

“헤, 헤르세인… 헤르세인 루 에른스트 베르제데스 2세… 이십니다.”

“흐음, 헤르세인이라. 제법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군.”

리카르도는 몇 번이고 입모양과 혀를 움직이며 헤르세인의 이름을 제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완전히 기억속에 각인시킨 리카르도는 마치 배부른 흑사자 마냥 만족어린 미소를 그리며 멀뚱히 저를 보고 있는 기사를 지나쳐, 원래는 잘도 기억하고 있는 제 침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베르디올 제국에서 온 황제와 기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한 환영식. 처음 말을 나누고 악수를 했던 간단한 인사가 아닌, 정식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루 동안 그들의 피로와 없애주는 것은 물론, 동맹국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당장에 시작되는 환영식이 아닌, 앞으로 이틀 뒤 진행될 거대한 환영식이기에 헤르세인은 전날, 회의장에 모인 모든 귀족들에게 주의 깊은 경고를 남겼다.

“그대들도 알고 있겠지만 어제 베르디올의 황제가 직접 이 왕국의 땅을 밟고 왕성까지 찾아왔소. 그러니 각자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이며 황제에게 향하는 그 어떤 뇌물도 접근도 금할 것이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을 어길시 단순한 형벌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번 이 일은 사브레 왕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오.”

무기거래에 대한 협상.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닌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권과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의 수입. 그리고 신식무기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대장장이들의 인력을 넓히기 위한 교육까지, 헤르세인이 리카르도와 거래할 목록들은 무척이나 많았다. 특히나 6년 전, 베르디올 제국과의 동맹으로 사브레 왕국은 머스캣을 주로 이용하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지만 헤르세인은 물론, 로렌드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아무리 제국과 손을 잡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맹이 이어질 수 있을지 미래를 아는 이는 없었다. 더욱이 수입만으로 의존하기엔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계속해서 머스캣 수입으로 지출하기엔 극심한 손해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무조건 제조권 확보와 광물의 수입, 그리고 대장장이들의 인력이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이 협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제국의 황제가 직접 몸을 움직여 왕성에 들어온 현재의 상황. 언제 어디서 황제의 목숨을 노리며 암살을 보낼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중점으로 가장 왕성의 경비와 왕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입국검사를 강화시켜 조금이라도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환영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

서류더미에 파묻힌 상태임에도 빠르게 깃펜을 움직인 헤르세인은 다음 서류를 손에 쥐어 상당한 속독으로 글씨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집무실에서 그녀를 돕고 있던 길버트가 갈증이 났는지 가볍게 물 한잔으로 목을 축이곤 서둘러 대답했다.

“환영식이 열릴 회장에는 차질 없이 준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

거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헤르세인의 시선이 날카롭게 길버트에게로 향하자, 길버트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로 일단 상황을 설명했다.

“환영식에서 연주를 할, 악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단 말인가?”

“예. 악단에서 중요한 피아노 연주자가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아직… 대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르세인은 왕위에 올라 장기집권을 시작한 후, 가장 불필요한 예상 삭감을 위해 왕실악단을 폐쇄시켰다. 물론 왕실악단의 폐쇄에 어느 정도 반발하는 귀족들이 있었지만 악단을 계속 이용할 만큼 헤르세인은 역대 선왕들과 다르게 불필요한 무도회나 연주회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무도회. 때문에 왕실악단을 폐쇄하는 대신 다채로운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도의 유명한 악단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지금까지 무도회나 연주회 때마다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인연이 이어진 만큼 의뢰를 부탁했던 악단에서 중요한 피아노 연주자가 빠진다면 다른 악단에게로 의뢰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악단에게 이번 환영식을 맡기기엔 당장 이틀 뒤가 환영식인지라 헤르세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환영식인데 코앞인데 피아노 연주자가 없으면 큰 일이 아닌가?”

“일단, 그쪽 악단을 후원하는 알베르셋 후작에게 다시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틀 뒤가 환영식이네. 그러니 그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주게.”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헤르세인에게 있어 피아노 연주자는 중요치 않았다. 악단에서도 연주곡에 있어서도 피아노 연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 또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이런 차질을 빗는 건 헤르세인에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 물론, 지금까지 무도회마다 불러낸 악단은 다름 아닌,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라비올라 쟌이 만들어낸 새로운 악단이었다.

그가 만들어낸 악단은 놀랄 만큼 헤르세인이 만족할만한 연주곡을 만들어냈었고, 또 듣기 좋은 연주를 보일 때마다 알베르셋 후작만큼이나 헤르세인 역시 그들의 후원을 어느 정도 보태고 있었다. 때문에 워낙 믿고 맡기는 악단이기에 이번에도 잘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만 하필 이런 시기에 피아노 연주가 그만두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악단에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헤르세인은 이번 환영식을 완벽히 성사시킬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다음계획을 생각해야만 했다.

피아니스트 라비올라 쟌이 만들어낸 칸탄테 악단.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젊은 지휘자 파블로스. 현재 파블로스는 지휘봉의 끝부분으로 제 이마를 쿡쿡 찌르며 습관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그가 이토록 불안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왕실의 환영식 연주회를 할, 중요한 피아노 연주자가 집안 사정으로 자리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원래라면 환영식까지 연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중, 노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는 결국 약속을 저버리고 오늘 새벽 지방으로 쪽지하나 달랑 놓고 간 채, 떠나가고 만 것이었다. 이 소식은 끝내 악단을 후원해주는 알베르셋 후작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파블로스는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주회는 끝장나거나 간신히 모면하거나. 하지만 누가보아도 모면하기는커녕 목이 댕강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파블로스는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어떡해서든 지원자를 찾고자 했다.

“예?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작께서 내게 그리 말했네. 당장 지원자를 찾지 못한다면 연주곡을 아예 다른 걸로 바꾸라고. 피아노가 없는 연주로 말일세.”

“하아... 이거 진짜 큰일이군요.”

알베르셋 후작이 조금은 무겁게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정작, 파블로스는 더욱 골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피아노 연주를 떠나 지휘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하자면 다른 연주곡으로 바꾼 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환영식에서 연주할 연주곡의 합이 오랫동안 맞추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당장 그 합을 깨버릴 만큼 연주곡을 바꾼다는 건, 무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지휘자로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할 상황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연주곡도 합을 맞춰둔 상태이긴 하나, 당장 이틀 뒤 열릴 환영식을 생각하면 오늘만 연습해도 부족할 시간이었다.

“피아노 연주할 사람만 나타나면 딱 좋은데...”

피아노 연주라 해도 다행히 독주곡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아노에 숙달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을 맞추는 건 금방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워낙 다른 악기들보다 피아노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이를 찾기가 어려운지라 여기저기 공고문을 띄어도 과연 지원할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더군다나 피아노 자체가 웬만한 집안이 아니면 연주하기가 힘든 그런 악기가 아니던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니 파블로스는 이쯤에서 포기해야하나 싶었다. 어느새 날도 저물기 시작한 하늘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로 피아노 연주할 대체 자를 찾지도 못한 채 다른 연주곡을 준비할 생각하니, 여태까지 연습해온 연주와 곡들이 파블로스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지휘자님! 지휘자님!!”

“무슨 일입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반쯤 넋을 잃으며 악보를 정리하던 파블로스는 호들갑 떨며 제 곁에 다가온 악단원을 향해 힘없이 물었다. 하지만 힘이 없는 파블로스와 달리,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다급히 파블로스에게 설명했다.

“피아노 연주자! 아, 글쎄! 피아노 연주할 지원자가 찾아왔어요!!”

“뭐, 뭐?! 뭐라고요?!”

“그러니까 빨리요!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악단원이 그를 일으키기도 전에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파블로스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1층으로 내려와 악단원이 말한 지원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호, 혹시, 공고문을 보고 오신 분인가요?”

“…예. 아직 지원자를 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아노 연주할 지원자가 왔다며 그 누구보다 호들갑을 떨던 파블로스였다. 하지만 공고문을 보고 찾아온 지원자를 본 순간, 어째서인지 파블로스는 쉽게 입을 열기가 힘들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린 무늬 없는 하얀 가면을 쓴 사내의 모습. 그리고 하얀 가면마냥 신기하게도 빛이 나는 것 같은 그의 은발은 보기 드문 머리색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보다 파블로스가 쉽게 입을 열기가 힘든 건, 바로 가면 속에서 유독 빛이 나는 붉은 눈동자 때문이었다.

석류석을 박은 듯한 붉은 눈동자는 잠깐 스쳤을 뿐임에도 정신을 몽롱하게 하면서 마치 어딘가에 이끌어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까지 만들었다. 매혹적이면서도 어쩐지 온몸이 소름 돋는 이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눈빛이 워낙 강렬하고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아 파블로스는 이미 홀린 듯이 남자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언제 1층에서 내려왔는지 악단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린 덕에 잠시 멍해있던 파블로스는 정신 차릴 수 있었다.

“지휘자님! 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분을 계속 서있게 하시고!!”

“아참, 이게 아니지. 공고문을 보고 오셨다고 하셨죠? 저, 혹시 가능하면 지금 당장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주 실력을 빨리 확인해서 합을 맞춰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연주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면 쓴 사내를 연주실까지 안내하며 어느새 두 사람은 연습용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파블로스는 지원자가 연주할 피아노 부분의 연주악보를 건넨 후, 상당히 설명했다.

“악보대로 연주만 잘 하시면 환영식이 끝나는 대로 사례금을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파블로스에게는 당장 피아노 연주자가 필요했고 그가 잘만 연주한다면 사례금을 두 배로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가면 쓴 사내는 조용히 악보만을 보다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간단히 손가락을 풀고는 파블로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뱉어냈다.

“사례금은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다고요?”

하얀 건반을 간단히 두드리는 평범한 음. 그때까지만 해도 가면 쓴 사내의 모습은 단순히 건반을 두드리는 평범한 모습에 불과했다. 하지만 평범하게 건반을 두드리던 손가락이 강렬하게 건반을 누른 순간, 파블로스는 제 눈앞에 있는 사내가 상당한 실력을 가진 연주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저 악보대로 치는 연주임에도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이 연주하는 유연한 손가락. 또,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눌려지며 피아노에서 울리는 건반의 음은 마치, 다른 연주곡을 듣게 하는 것처럼 색다르기까지 해, 파블로스는 오랫동안 악단에서 합을 맞춘 전 피아노 연주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새 순식간에 끝나버린 깔끔한 연주. 파블로스는 손뼉을 치며 가면 쓴 사내의 출중한 실력에 감탄했음을 솔직히 평했다.

“설마, 이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실력은 아니니, 너무 칭찬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오랜만에 연주를 해보는 거라 혹시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손가락이 완전히 굳지는 않았나봅니다.”

가면 쓴 사내는 여전히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마치 제 손가락을 신기한 물건 보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이상은 망설일 수 없는 상황. 파블로스는 이미 사내의 연주를 듣자마자 그가 아니면 환영식 연주회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다. 솔직히 욕심을 더 붙이자면 그가 악단에 남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상대방은 환영식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파블로스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내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합격인가요?”

“…예?”

“왕성에서 열릴 환영식 연주회… 제가 가도 상관없는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물론이죠! 오히려 제 쪽에서 환영입니다! 그리고 사례금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순 없죠. 세배를 쳐서라도 꼭 드리겠습니다!”

세배까지 쳐준다고 말했음에도 어째서인지 사내는 돈 욕심이 없어보였다. 정말로 피아노에만 관심이 있는지 이번에는 검지손가락으로 대충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구경하던 파블로스는 문득 개인적인 호기심이 일어 사내에게 질문을 건넸다.

“저, 근데 가면은 왜 쓰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벗으시는 편이...”

“아아, 가면 말인가요?”

그때, 장난스럽게 건반을 가지고 손장난을 치던 사내는 완전히 건반에서 손을 떼어 제 얼굴을 가린 가면을 하나의 얼굴처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행동 같은 건 절대로 없는 것처럼 사내는 파블로스에게 고개를 돌려 가면을 가리키곤 별거 아닌 이유마냥 웃음기를 담아 대답했다.

“얼굴에 흉한 화상이 있어서요.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해… 웬만하면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 화상자국을 볼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 그런 이유가… 제가 실례된 말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파블로스는 사연 있는 그의 가면에 더 이상 질문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단순한 가면이라 생각했지, 설마 그런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앞으로 환영식까지 합을 맞출 악단들에게도 주의를 해줘야겠다, 생각하며 파블로스는 마음을 고쳐먹고 목을 가다듬었다.

“흠흠, 그럼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틀뿐이지만 지급 될 돈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이름을 묻지 않았네요. 혹시 이름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파블로스를 보는 가면 속의 붉은 눈동자는 마치, 기회를 사로잡은 것처럼 매혹적이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내는 저를 멍하니 보고 있는 파블로스에게 제 이름을 알려주었다.

“로잔… 로잔입니다. 편히 불러주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무사히 연주회가 끝날 수 있길 바라며.”

이상하게도 의미심장하게 들린 그의 잔잔한 목소리와 말. 하지만 파블로스는 금방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다. 악단원 모두가 고대하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왕성에서 열릴 연주회. 그것도 감히 고개를 들어 볼 수 없는 왕의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로잔이라 불린 그도 당연히 저렇게 눈웃음을 짓고 있지만 바로 이틀 뒤 연주회를 눈앞에 둔 것이기에 단순한 긴장감이라 생각하며 파블로스는 서둘러 계약서 작성을 위해 움직였다.

환영식이 열릴 당일. 칸탄테 악단원들은 자신들의 연주를 펼칠 악기들을 준비하며 이미 준비된 마차에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사이, 사교성이 뛰어난 로잔 덕분에 이틀 전, 우중충했던 악단의 분위기는 많이 활기차있었다. 언변도 뛰어난 탓인지 저마다 연습은커녕 로잔에게 말을 붙이려는 악단원들 때문에 파블로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나타남으로서 정말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과도 같은 존재. 아니, 축복이라 해도 부족할 정도였다. 악단원들과 처음 맞춘 합임에도 어찌나 잘 따라오고 이해력이 좋은지 오히려 악단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준 덕분에 파블로스는 로잔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싶기까지 했다.

“로잔씨, 긴장했어요? 오늘따라 유독 조용하네요?”

왕성으로 향하는 마차. 그리고 로잔과 함께 동석하여 이동 중인 파블로스는 마차의 창밖을 보며 유독 조용한 로잔의 모습에 의아했다. 고작 이틀뿐이지만 저가 보아온 로잔의 모습은 상당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파블로스의 호기심이 담긴 질문에도 아주 잠깐 침묵을 유지하던 로잔은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창밖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보며 마치 제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저곳이… 왕성이군요.”

“예? 네, 왕성이죠. 사브레 왕국에 설마 왕성이 또 있겠어요?”

파블로스는 로잔이 단순히 농담 삼아 뱉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면 가면 속에 가려진 로잔의 입술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줄곧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절대로 볼일이 없는 파블로스로선 로잔이 뱉는 말들이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4차원 적인 말임을 생각하며 어느새 긴장이 되는지 자꾸만 헛기침으로 파블로스는 목을 가다듬고자 했다.

“흠흠, 아무튼 로잔씨. 이제 왕성으로 도착하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조심?”

“음, 로잔씨는 일단 왕성에 처음가보니 신기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일단 도착하면 왕성을 구경할 시간은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먼저 가는 곳이 우리가 연주할 연회장이니까요.”

“연회장...”

가면속의 로잔의 입술이 중얼거리듯 나직이 울렸지만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파블로스는 로잔에게 왕성에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왕성구경은 우리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남는 자유시간이 있어요. 그때 조금이나마 시간이 되면 연회장 주변을 구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예술을 하는 악단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곳 없이는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리고 웬만하면 높은 분들은 되도록 안 마주치는 편이 좋고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상한 분에게 엮이는 순간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요. 아시죠? 신분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현재, 칸탄테 악단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평민들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어느 정도 먹고살만한 집안을 갖춘 남작가문 정도가 제일 높은 신분이지만 그래봤자, 그들도 결국 이름만 있을 뿐인 신분 없는 남작가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평민들의 직업 중에서도 가장 봉급이 많으면서도 고위직에 해당되는 직업이 악기를 다루는 악단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웬만한 끈기나 재능, 또 후원이 없으면 악기를 다루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 악단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물론 예전에야 먹고살기 빠듯할 정도였으나 국왕이 바뀌고 예술계 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알베르셋 후작과, 레위니온 후작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던 예전에 비하면 먹고살 정도의, 또는 후원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예술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

더욱이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타국에서조차 알아줄 정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라비올라 쟌이 만들어낸 칸탄테 악단은 당시 획기적이었고 신분차별 없이 평민도 재능이 있다면 악단원에 소속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왕실 연주회에 참여나 오페라 극장에서 연주할 기회까지 주는 덕에 현재 칸탄테 악단은 다른 악단들과 다르게 많은 이름이 알려진 악단이기도 했다.

재능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악기를 잡고 배울 기회가 있는 칸탄테 악단. 하지만 피아노나 바이올린만큼은 그 기회가 한정적이라 할 수 있었다. 악기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악기로 취급받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특히나 이 두 개의 악기는 잘 사는 고위귀족이 아니면 취미로도 갖지 못할 고가의 악기이기에 더욱이 피아노가 더 상당했기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재능 있는 자나, 어느 정도 숙달된 연주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이틀 전, 피아노 연주를 할 지원자를 찾기 위한 공고문을 수도에 띄웠음에도 파블로스는 안심할 수 없었다. 피아노 연주자가 정말 소수인 것도 있지만 피아노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파블로스는 알베르셋 후작을 통해 몇몇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전부다 거절.

가장 감정 이입이 되기 쉬운 악기이면서도 가장 치기 쉬운 악기. 하지만 가장 까다로우면서 가장 연주곡에 따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악기이기에 파블로스가 고개를 숙여 부탁한 피아니스트들은 대부분 거절하기 바빴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피아니스트들은 독특하게도 제 실력에 대한 자존심들이 높았고 합주가 아닌, 거의 독주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아무리 가기 힘든 왕실 연주회라 할지라도 피아니스트들은 제 이름이 걸린 독주회가 아니면 악단에 들어가 아주 잠깐 연주할 뿐인 합주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다.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가.

그런데 그 마음고생을 단번에 치유해주듯 로잔의 등장은 파블로스에게 이뤄말 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다만 연주회 당일 되어서 일까? 분명 이틀 전까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었으나 막상 왕실에서 연주할 로잔의 모습을 떠올리니 파블로스는 로잔이 쓰고 있는 가면이 은근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역시 가면 벗는 건 무리… 겠죠?”

“가면을 벗길 바라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국왕폐하께서 가면에 신경 쓰시거나 벗으라고 말하신다면 로잔씨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얼굴에 난 화상들…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마치 화상자국을 쓰다듬듯 쓰고 있는 가면을 만지작거리는 로잔의 모습에 파블로스는 다시금 안타까움이 들었다. 목소리를 보나, 눈빛을 보나 그는 아직까지 한창의 젊은 사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화상하나로 평생 가면을 쓴 채, 그 불편함을 죽을 때까지 감수한다는 것이 파블로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켰다. 너무나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되려 이런 행동들이 로잔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 파블로스는 조심스럽게 로잔을 살펴보던 찰나였다.

“도착했네요. 왕성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언제 도착했는지, 진즉에 멈춰 있는 마차의 조용함에 파블로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 밖으로 내려가자 그 뒤를 이어 로잔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 밖으로 내릴 수 있었다. 창문에서만 멀찍이 보았던 왕성의 풍경. 하지만 바로 눈앞의 실물이 드러난 순간 가면 속에 가려진 로잔의 눈빛이 무수한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로잔씨! 이쪽이에요! 이쪽!”

파블로스는 물론 다른 악단원들이 손을 번쩍 들어 로잔에게 손짓했다. 언제 챙겼는지 모를 악기가방을 울러 매고 벌써 연회장으로 앞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로잔은 한 발, 또 한발 긴 다리를 움직여 최종목적지인 연회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직까지는 한창 연회장이 준비 중일 시간. 그때까지 리카르도는 황제로서의 위엄을 갖추고자 처음 입고 왔던 단순한 제복이 아닌, 베르디올 제국을 상징하는 황제의 제복과 망토를 걸침으로서 대략적인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특별히 앞머리까지 세심히 넘긴 리카르도는 이른 아침부터 연한 와인을 즐기며 이제 막 안주거리인 과일을 손에 집으려던 찰나였다.

“폐하.”

“빌헬름, 상당히 늦었구나.”

“저는 폐하의 보좌관도 겸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좌관이자 기사단장인 신분이지 폐하의 심부름 노릇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때 당시 내 명을 수행할 사람이 그대 밖에 없었던 것을.”

유리잔에 담긴 자수정 빛의 와인을 동그랗게 흔들며 겸사겸사 손목 운동까지 하던 리카르도는 이내 인내심이 없었는지 다시금 와인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곤 빌헬름을 대답을 재촉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으니 대충 그대가 알아본 대로 대답하라.”

“후우…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브레의 국왕에 관한 어린 시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가 빌헬름에게 시킨 것은 다름 아닌 헤르세인에 관한 뒷조사였다. 처음에는 그저 여느 왕국의 왕들처럼 관심을 두려하지 않았으나 며칠 전, 이름 모를 정원에서 그녀를 만난 뒤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리카르도는 헤르세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했다. 물론, 그쪽 조사에 있어 탁원한 암부들을 데려왔다면 쉽게 일이 풀렸겠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그의 암부들은 제국에서 바삐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때문에 그나마 발이 빠르고 정확히 일을 하는 빌헬름에게 헤르세인에 관한 조사를 전부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역시 제 수하답게 빌헬름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그녀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을 마치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상세히 설명했다.

“대략 과거는 이렇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믿기가 힘들었지만 현 국왕의 성장 과정을 보자면 이렇게까지 나라를 바꾼 것도 타고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직계혈통의 무기가 있기에 왕녀시절, 미동조차 하지 않던 대귀족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승리를 쟁취하고 지금의 자리에 앉은 거겠지요.”

“운이 좋았다는 건가?”

“뭐, 제가 느끼기엔 운이 따르기도 했고 능력 면에 있어서도 타고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다른 건?”

리카르도의 또 다른 질문에 곰곰이 제 턱을 쓸어내리며 진중히 미간을 좁히던 빌헬름은 마침 무언가 떠올랐는지 아주 짧게 감탄사를 뱉어내곤 자신의 주군과 한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폐하와 똑같이 아직까진 반려를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려?”

“예, 얼핏 주위에서 들린 말로는 얼마 전 사브레의 국왕이 국서를 올해 안으로 들이겠다는 선언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국서라...”

리카르도에게도 마찬가지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려의 자리일지도 몰랐다. 어딜 가나 끊임없는 상소문으로 저를 괴롭히던 대신들을 생각하면 기가 찼으나 그들의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없기에 리카르도는 칩거 와중에도 제 옆자리를 차지할 반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국서와 황후. 엄연히 단어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겠지만 결국, 황제든 국왕이든 빈자리를 메울 반려가 필요한 것은 똑같은 것이었다.

특히나 리카르도에겐 서로의 마음이 맞는 혼인 따윈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서 자란 것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피가 튀기는 전장에서 자라온 리카르도에겐 반려의 자리는 자신의 힘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권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으나 아직 미혼의 딸을 가진 대신들을 생각하면 리카르도의 눈엔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았다.

가문의 힘은 있으나 제 한마디만으로 굴복할 것 같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저만 기다릴 미래의 황후를 생각하면 리카르도는 어쩐지 뒷목이 뻐근해질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여인을 멀리한 것도 아니지만 정략혼인에 있어서 리카르도는 제 주제를 잘 아는 그런 여인을 더 선호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감정을 가지고 괜한 감정소모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 리카르도는 아직 다 비워내지 않은 와인잔을 내려 제 할 일을 끝마치고 편히 자세를 풀고 있는 빌헬름을 불렀다.

“빌헬름.”

“예, 폐하.”

“만약 내가 사브레의 국왕과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갑자기 든 생각이다. 어차피 베르디올 제국도 사브레 왕국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동맹국이니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사브레 왕국을 생각하면 왕끼리의 혼인도 썩 나쁘지는 않아 보일 텐데? 나에게도 사브레의 국왕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할지는...”

그의 말처럼 서로의 이익이 될 혼인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몰랐다. 빌헬름이 보기에도 리카르도의 성정을 생각하자면 제 주군과 어울린 황후는 제국 내에서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황제와 어울릴만한 가문은 차고 넘쳤고 황제의 힘이 되어줄 대귀족 역시 넘치다 못해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녀들이 곱게 키워진 탓인지 전장에서 자라온 리카르도의 가끔씩 튀어나오는 불같은 성정을 견뎌낼 만한 공녀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녀대신 혼인을 하지 않은 사브레의 국왕이라면?

첫인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빌헬름이 지켜본 바의 사브레의 국왕은 베르디올 제국에서 보아온 온실속의 공녀들과 다르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왕과 왕의 혼인이기에 제 나라의 이득이 될 만한 의견 충돌은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빌헬름은 리카르도의 의견에 결국 고개를 젓는 것으로 끝냈다.

“심사숙고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과 왕의 혼인. 이보다 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결국 서로의 이득뿐인 혼인. 폐하께서 사브레 왕국을 속국으로 편입하지 않는 이상, 두 분의 혼인은 결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담을 퍼붓는 군.”

“악담이 아니라, 폐하께 말씀드리는 충언입니다.”

진중한 빌헬름의 충언에 리카르도는 피식 웃음이 세어 나왔다. 어차피 그것을 진짜로 실행할 계획도 진심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기에 빌헬름의 진중한 충언이 리카르도에겐 뜻밖의 웃음을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싹 지워 내버릴 또 다른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린 순간, 리카르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전부 비워내곤 진하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드디어, 환영식의 시작이군.”

환영식이라 해서 특별히 준비한건 없었다. 평소처럼 입던 어두운 색의 의복이 아닌 조금 더 색이 입혀진 짙은 보라색 계열의 의복. 헤르세인은 적당히 제 자신을 가꾸고서 환영식이 열릴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연회장에 들어서기 전, 바로 복도에서 마주친 리카르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담담히 인사를 건넸다.

“베르디올의 황제를 위한 환영식이니 부디, 즐겁게 즐겨줬으면 좋겠군.”

“사브레의 국왕이 그렇게 바란다면, 언제든.”

“문을 열라.”

각국을 대표하는 두 왕이 아주 잠깐 실속 없는 인사를 건넨 것뿐임에도 두 사람을 각기 따르던 이들은 어쩐지 오한이 든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나 여유롭게 미소를 그리고 있는 리카르도와 달리, 그를 마주한 순간부터 안 그래도 없었던 표정에 더한 차가움을 덧붙인 헤르세인의 모습은 한겨울과도 같았다.

끼이익, 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을 만큼 활짝 열린 연회장의 거대한 문.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갈 것도 없이 헤르세인과 리카르도는 함께 연회장으로 입장했다.

본격적인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간단한 목축임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린 헤르세인은 오늘 위해 자리에 참석해준 귀족들과 또 머나먼 타국에서 온 베르디올 기사들을 위해 환영식의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 모인 대신들과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준 베르디올 제국 기사들을 위해. 또, 가장 힘든 발걸음을 해준 베르디올의 황제를 위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는 바이오. 사브레 왕국의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려 아름답게 빗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서 부디 그동안의 고생을 잊고 오늘만큼은 포도주에 취할 환영식을 즐겨주길 바라오.”

헤르세인이 먼저 와인 한 모금 마시는 것을 시작으로 리카르도 역시 가볍게 와인 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셔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영식.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회장의 소리는 사람들의 떠들썩함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음은 물론, 오늘 하루 작정하고 즐길 요량인지 평소엔 열리지 않을 연회인지라 귀족들도 와인 잔을 들어 분위기에 흠뻑 취하기 바빴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식을 즐기는 동안, 첫 한 모금 이후, 그 이상으로 술잔에 입을 대지 않던 헤르세인은 무심히 회장 내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무슨 일인지 와인 병을 들어 올려 제게 내민 리카르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손을 들어 그의 술을 거부했다.

“미안하지만 더 마실 생각은 없소.”

“술을 싫어하는 군. 아까 전의 한 모금으로 더 이상 술잔에 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술을 즐기는 편도, 좋아하는 편도 아니오.”

“그럼, 뭘 즐기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헤르세인은 살짝 미간을 좁혔다. 자신의 술 취향을 그가 왜 궁금해 하는지 그렇다고 이유를 캐묻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유를 묻는 순간, 한도 끝도 없을 저의 대답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즐기는 건 아무것도 없소.”

“아무것도 없다라… 사브레의 국왕은 참 재미난 말을 하는 군.”

여전히 흥미어린 눈으로 헤르세인을 흘끔 보던 리카르도는 그녀에게 내민 와인 병을 거두어 이미 반 정도 채워진 와인 잔에 한가득 와인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전부 마셔버린 리카르도는 또 다시 와인을 채워 넣으며 나른한 자세로 와인 잔을 집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나를 베르디올의 황제라 불러주는 군. 이름으로 불러 달라 청했는데도 말이지.”

“베르디올 제국과 동맹국이긴 하나, 별 이유도 없이 제국의 황제에게 편히 이름으로 부를 생각은 없소.”

“…그렇군. 그럼, 이유를 만들면 이름으로 불러 줄 텐가? 헤르세인.”

그 순간, 아무것도 마신 것이 없으나 목구멍에 뭐라도 걸린 것처럼 헤르세인은 제 숨이 턱하고 막혀졌음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아까부터 줄곧 정면을 향해 두고 있던 시선. 하지만 옆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고개를 돌려 리카르도를 쳐다보았으나 헤르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곱게 나오지 못했다.

“벌써부터 취했군, 베르디올의 황제.”

“그런가? 하긴… 아침부터 낮술을 하긴 했지. 하지만 솔직한 표현이라 생각해줬으면 하는군. 나는 술의 힘 따위에 빌려 이것저것 캐묻는 성격이 아니니.”

“...”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다 했나? 만약 내가 사브레의 국왕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 그럼 이유가 되나?”

“그게 대체 무슨──.”

그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연주회가 시작되려는지 연주회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알베르셋 후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침으로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국왕폐하, 그리고 황제폐하. 이제 환영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연주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악단은 제가 오랫동안 후원하고 실력도 출중하다 할 수 있는 칸탄테 악단의 연주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연주를 처음들이시는 황제폐하를 위해 오랫동안 악단에서 준비한 연주이니 부디, 그들의 연주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때마침 타이밍이 좋게도 알베르셋 후작이 나서준 덕분에 헤르세인은 열린 입술을 닫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헛 나올 뻔한 머릿속을 문장들. 만약 알베르셋 후작이 아니었다면 엉뚱한 말까지 뱉어냈을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아주 작게 한숨 돌리며 더 이상 리카르도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베르디올 황제를 위해 환영식인 이상,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충은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그때까지 머리를 더 차게 식힐 생각으로 연주회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알베르셋 후작이 지휘자로 보이는 사내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 보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주회에 앞서 지휘자가 헤르세인과 리카르도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 자신과 악단들을 소개했다.

“이곳에 연주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영광을 주신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휘자 파블로스 이며, 국왕폐하와 황제폐하께 음악을 받칠 연주자들은 칸탄테의 악단원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휘자가 나뭇가지보다 가는 지휘봉을 들고서 헤르세인과 리카르도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등을 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펼쳐진 악단원들을 살핀 그는 몇 차례 호흡 후, 넓게 펼친 팔과 손목을 섬세히 휘둘렀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히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된 연주회. 그렇게 연주회는 제1악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바이올린의 떨리는 현으로 시작된 연주회. 그 누구도 흐트러진 호흡 없이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파블로스의 손끝을 따라 하나둘 연주가 합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생김새도 음색도 전혀 다른 악기들이 다양한 음색을 들려주며 하나의 악보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했다. 연주가 중반부로 갈수록 계속 연주가 없던 피아노 소리까지 뒤늦게 본격적으로 덧 입혀지자 어느새 차분하면서도 정적의 연주를 돋보이게 한, 첫 번째 연주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연주.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플루트들의 주 무대라 할 수 있는 연주가 시작되자 첫 연주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빠른 템포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일정한 음으로 현을 튕기거나 툭툭 끊어내는 바이올린의 음색은 그야말로 듣는 귀로 하여금 일품이었으며 그 뒤를 웅장하게 받치는 첼로의 음색, 그리고 한 마리의 새소리처럼 울리는 플루트의 음색은 듣는 마치 하나의 숲, 또는 자연을 느끼게 하는 신비한 음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순식간에 두 번째 연주가 끝나고, 이어서 시작된 세 번째 연주.

이번 연주는 악단원들이 가장 혼을 싫은 연주이자 대망의 연주라 할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이었다. 첫 번째 연주와 다르게 세 번째의 연주는 관현악 악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해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함을 돋보이게 하는 합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클라리넷과 플루트, 그리고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등 현악기와 관악기의 조합은 여전히 최고라 할 만큼 수준 높은 실력을 뽐내며 파블로스의 지휘에 강약을 조절하며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웅장함의 선율을 만들어냈다. 또 다시 파블로스의 손짓에 따라 관현악기들의 소리가 점차 느려지고 소리가 작아졌을 때, 파블로스의 지휘봉이 또 다른 신호를 보내며 오랫동안 기다린 피아노 연주의 시작을 알렸다.

피아노 건반의 특유 맑으면서도 청아하게 울리는 음색. 피아노의 우아한 선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동시에 독특한 기교로 연주자의 손이 매끄럽게 움직일수록 파블로스는 지휘봉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관현악을 연주하는 악단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동시에 지휘봉에 집중하고 있던 악단들은 한 음절, 한 음절, 타이밍에 맞춰 이틀이라 할 수 없는 피아노와의 뛰어난 합을 선보였다.

파블로스의 손짓에 따라 미세하게 바뀌는 강약조절.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호흡까지. 연주는 점점 절정에 치달았고 파블로스의 손동작이 커지면서 온 몸을 흔들 만큼 파블로스는 온전히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완전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파블로스는 팔을 강하게 그리고 절도 있게 두세 번 끊어내는 것으로 지휘는 물론 칸탄테 악단들이 선보인 연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고요한 침묵. 그러나 한 사람의 경쾌한 박수를 시작으로 어느새 칸탄테 악단원들을 향한 박수소리가 하나의 연주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연주. 파블로스는 연주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쁨에 아주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드디어 끝났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불안했던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운 피아노 연주자로 인해 파블로스는 잠도 못 잘 만큼 불안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로잔. 비록 가면 쓴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가진 엄청난 실력 덕분에 파블로스는 안심하고 피아노 연주를 맡길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저를 잘 따라 와준 로잔 덕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던 연주회.

파블로스는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모든 연주가 끝났다고 생각한 귀족들과 서서히 주변 정리를 하던 악단원들 역시, 갑작스럽게 들린 피아노의 일정한 음에 장내는 어느새 쥐 죽은 듯이 고요해져 있었다. 한 사람을 향해 있는 모두의 집중된 시선. 그리고 일어나긴 커녕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장난치듯 건반을 누르는 로잔의 모습. 파블로스는 로잔이 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알 수 없으나 당장 그를 말려야만 했다.

“로, 로잔씨? 대체 지금 무슨 일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전에 어서 그를 피아노에서 이끌어내려 했으나 파블로스는 끝내 로잔을 피아노에서 이끌어낼 낼 수 없었다. 로잔을 붙잡기도 전에 손가락을 유연하게 풀던 그가 작정을 하고 건반을 누르며 혼자만의 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댕, 댕, 댕 하고 울리는 피아노 건반의 소리. 그리고 모두의 이목이 로잔에게로 집중된 상황. 파블로스는 이도저도 꼼짝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로잔의 행동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휘자인 그가 기억하는 연주회의 독주 같은 건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로잔이 벌인 독주의 무대를 또 하나의 마지막 연주회라 생각했는지 자리에 어정쩡히 서 있던 귀족들이 다시금 하나둘씩 자리에 앉으며 경청하는 자세로 모습을 바꾸자 파블로스는 저도 모르게 상석에 있는 국왕과 황제에게로 흘끔 시선을 옮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국왕과 황제 역시 관심이 가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로잔의 피아노 독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다행이도 두 왕은 무엇하나 노기어린 기색을 띄우지 않았기에 파블로스는 안심이 됐지만 자꾸만 스물 스물 피어오르는 긴장이 피를 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가 말리는 기분과 다르게 건반을 내리치는 로잔의 동작은 어쩐지 조금은 격했고 마치, 제 마음의 격동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로잔의 독주는 너무도 음울하고 격정적이었다.

‘그보다… 이 독주곡은 누구의 연주곡이지? 설마… 로잔이 만든 자작곡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율이며 건반을 내리찍는 듯한 그의 강렬한 손끝은 마치 잠재된 광기를 보는 것만 같았다. 마치 연주에 미치고 미쳐버려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는 느낌? 하지만 강렬하면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어둠이 보이는 것 같아 파블로스는 이상하게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지워낼 수 없었다. 음은 더 음울해지고 건반을 치는 속도는 정반대로 빨라질수록 파블로스도 악단원들도 희한하게 소름은 돋지만 로잔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로잔이 연주하는 곡은 누가 들어도 어둡고 광기에 들어찬 곡임이 틀림없는데 정작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 표현이 너무 상반되어 어떻게 제대로 느낌을 표현해야할지 입이 열리지 않으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지도 몰랐다.

마치 천사의 탈을 뒤집어 쓴 악마가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가면 쓴 얼굴임에도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그의 연주는 집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며, 건반을 두드리는 그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자 마치 어둠에 미쳐버린 쾌락과도 같았다.

쾅─! 쾅─! 콰앙──!

손가락에 힘을 실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피부를 오소소 소름 돋게 하는 희열의 선율. 모두가 침을 삼키며 로잔의 모습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가장 흥분이 치솟으면서도 연주의 절정이 치달을 때 거친 호흡을 하며 손가락 전부, 건반을 찍어 누른 로잔의 모습은 눈을 뗄 수 없는 최고의 장면이었다.

칸탄테 악단들이 연주한 고요함보다 더 길면서도 을씨년스러운 침묵. 하지만 그 누구도 미처 박수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로잔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난 로잔만이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을이지고 한창 무르익어 달이 떠서야 완전히 끝나버린 환영식. 환영식의 연주회를 무사히 끝낸 칸탄테 악단. 그리고 그들을 지휘했던 파블로스 역시 알베르셋 후작이 마련해준 환영식 자리에 참석해 어색한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귀족들과 타국의 황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 과연 자신들이 끼어도 되는 곳인지 눈치가 보였으나 오히려 연회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연회장으로 다시 자리를 마련해준 알베르셋 후작 덕분에 파블로스도 악단원들도 그제야 마음 편히 연회를 즐길 수 있었다.

모두가 연회를 사이좋게 즐기고 있을 동안, 파블로스와 로잔, 두 사람은 술에 입을 대기는커녕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가먼저 말을 꺼내는 시합이라도 하는지 침묵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던 파블로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로잔씨,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악단원들처럼 기분 좋게 술잔을 나누고 이 상황을 즐기면 그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파블로스는 지휘자인 입장인 이상,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로잔의 독주가 완벽히 끝났다고 해도, 로잔은 연주회에 없던 독단적인 행동을 벌였고 파블로스는 물론, 함께 있던 악단원들까지 말리지도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만약, 로잔의 독주가 엉망진창으로 끝났다면 지휘자로서의 체면보다 칸탄테 악단에 대한 명성에 금이 가는 첫 실패 무대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때문에 파블로스는 솔직히 말하자면 로잔에게 화가나있는 상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파블로스가 로잔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들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내 멋대로 일을 벌여서. 하지만 내겐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는데요?”

“내 독주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파블로스는 미간을 좁히며 로잔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 자신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벌인 피아노의 독주.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로잔의 실력이나 재능을 생각하면 특히나 이런 자리에 저를 후원해줄 귀족들의 눈에 띄게 된다면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해한다, 쳐도 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칸탄테 악단원들의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었다.

언질만 해줬어도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알베르셋 후작을 통해 독주의 자리를 마련해줬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화가 나고 로잔에게 많은 실망을 한 파블로스는 더 이상 이야기를 붙일 생각도, 그에게 다시 칸탄테 악단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로잔씨, 당신의 마음은 잘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실망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우리 악단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힘을 썼을지도 모를 테죠. 아무튼… 고생했어요. 사례금은 내일 바로 지급 할 테니, 시간되시면 여유 있게 찾아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파블로스가 완전히 곁을 떠나려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로잔의 목소리가 파블로스 불러 세웠다.

“파블로스씨, 잠깐만요.”

“로잔씨, 저는 할 말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파블로스의 눈을 정확히 마주한 로잔의 붉은 눈동자에서 아주 잠깐 이질적인 힘이 실렸다. 그리고 사탕이 녹듯이 매혹적인 눈웃음을 짓는 가면 속의 눈동자에 감화가 되었는지 방금 전까지 표정을 찡그리며 감정을 드러냈던 파블로스의 얼굴은 부드럽게 펴져 어느새 어쩔 수 없다는 그의 한숨이 세어 나왔다.

“후우, 로잔씨, 당신이란 사람은 진짜... 알았어요. 화가 나긴 하지만, 누가보아도 당신의 독주는 정말이지 훌륭했어요. 정말로 그것만 아니었다면, 또! 독주까지 망쳤다면! 저 엄청 실망했을 겁니다.”

“그럼... 봐주시는 건가요?”

어쩐지 묘한 질문하는 로잔의 목소리에 파블로스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그리고 봐주는 것은 오늘 뿐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다음에 또 그런다면 정말로 화낼 겁니다?!”

“그 말은, 저를 이미 칸탄테의 악단원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크흠흠, 누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아무튼! 고생했어요!”

제 할 말을 다 마쳤는지 아까보다는 한결 풀어진 표정으로 파블로스가 투덜투덜 거리며 술을 즐기고 있는 악단들 곁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홀로 구석진 곳에 남겨진 로잔의 붉은 눈은 아주 잠깐 파블로스에게 향해 있다가, 아무런 미련 없이 제 손에 들린 황금빛의 액체가 담긴 샴페인 잔에 시선의 방향을 틀었다.

“설마 했는데 마력이란 것이 정말로 통하긴 통하는 군.”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중얼거림. 가면 속의 그의 입술이 반듯하게 올라갔는지 삐뚜름하게 올라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했는지 만족어린 눈으로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샴페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로잔은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그대로 놓아 이제 막 자리를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작은 연회장의 문이 열리면서 알베르셋 후작이 들어왔다.

“모두 수고했네! 정말 수고해주었어! 국왕폐하께서도 베르디올의 황제폐하께서도 무척이나 만족하신 연주였다네. 그리고 지금 즉시 자네들은 나를 따라 국왕폐하께서 계신 회의장으로 가야할걸세.”

“예? 저희가 그곳에는 왜...”

영문을 모르겠다는 파블로스의 목소리가 조용해진 회장을 울리자, 알베르셋 후작은 크게 손뼉을 치며 파블로스는 물론, 모든 악단원들을 향해 외쳤다.

“폐하께서 자네들을 노고를 생각해 선물을 준비하셨네! 그러니 어서 서두르게!”

자신들을 위한 선물이라니.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취기조차 순식간에 가라앉을 만큼 알베르셋 후작의 말은 그야말로 입이 저절로 벌어질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되지 않아서 일까? 여전히 모두가 눈을 멀뚱히 깜박이며 엉거주춤하고 있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베르셋 후작이 다시 손뼉을 침으로서 그들의 정신을 제자리로 되찾게 만들었다.

“자! 어서들 정신 차리고 서둘러 따라오게! 폐하께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네!”

아무래도 행동이 필요했는지 알베르셋 후작이 파블로스를 팔을 잡아 함께 작은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그 뒤를 따라 악단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이 모두 빠져나가고 거의 혼자 남게 된 로잔은 눈빛은 오직 회장 문밖의 너머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을 향해 희열을 담아 빛내고 있었다.

환영식이 끝나고 참석한 귀족들은 저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리카르도와 제국의 기사들 역시 각자 마련된 침실로 시종과 시녀들의 안내에 따라 돌아갔지만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녀들이 정리하고 있을 큰 연회장이 아닌, 회의장으로 들어가 높은 계단위에 있는 왕좌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칸탄테 악단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마침, 알베르셋 후작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폐하, 명하신대로 칸탄테 악단을 데려왔습니다.”

“수고했소, 후작.”

언제나 그들의 연주만 들었을 뿐, 의뢰비를 알베르셋 후작을 통해 지급하기만 했던 헤르세인은 이번 기회를 삼아 그들에게 진심으로 수고가 담긴 선물을 보답하고자 칸탄테 악단을 후원하는 알베르셋 후작에게 부탁을 했다. 그리고 무사히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준 알베르셋 후작에게 고맙다는 작은 눈짓을 하며, 어느새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헤르세인은 목소리를 냈다.

“내가 알베르셋 후작에게 부탁하여 그대들을 부른 까닭은 이번 환영식에서 훌륭히 연주를 해준 그대들의 노고와 실력을 치하하고자 함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칸탄테 악단을 통하여 적지 않은 연주회를 부탁했으나 이번만큼은 그대들에게 직접 나의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이곳까지 그대들을 부른 것이지. 그럼, 칸탄테 악단을 이끄는 대표가 누구이지? 어서, 앞으로 나오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파블로스가 조심히 허리를 피고 헤르세인이 있는 계단과 거리를 좁혔다. 왕좌 아래로 길지 않은 계단이 있었으나 오직 국왕만이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파블로스는 적당한 거리에서 제자리에 멈춰. 다시금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헤르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칸탄테 악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가?”

“예, 지휘를 맡고 있는 파블로스 안리입니다. 폐하.”

“긴장할 것 없다. 정말로 칸탄테 악단을 위해 내 고마움을 전하고자 부른 그대들을 부른 자리이니.”

“하해와 같은 영광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헤르세인은 작게 손짓하여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라즐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둥글게 말려 있는 오래된 하나의 종이가 놓아진 금박의 판을 들고서 라즐리는 파블로스의 앞에 멈춰 섰다.

“이것은 대체...?”

“왕실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악보이다.”

“아, 악보 말입니까?”

“그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했지. 사람이라면 무릇 돈을 좋아하기 마련이겠지만 알베르셋 후작이 그러더군. 예술인에겐 돈보다 예술로서 가치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런데 때마침 오랫동안 방치해둔 창고를 정리하니 그런 것이 나왔더군.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봤자 장식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그것을 또 다른 예술로 보여줄 그대들에게 선물을 한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음악이 그대들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들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파블로스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움직여 헤르세인이 말한 악보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리고 실크로 묶인 리본을 풀어 둥글게 말린 악보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파블로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파블로스가 들고 있는 악보는 고전파 작곡가인 베르지안의 미완성곡이라 할 수 있는 에일리오의 월광이라는 악보였다.

언제나 소문으로만 무성했을 뿐인 미완성곡의 존재. 그런데 그 미완성곡이 설마 왕실 창고에 오랫동안 묵혀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던 파블로스는 이 악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다, 어쩌면 국가의 가보가 될 수도 있는 이 귀중한 것을 그저 선물로서 내어준 헤르세인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폐, 폐하… 이것을 어찌 감히...”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갖고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장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러니 이제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다. 물론, 악보뿐만이 아닌 금화도 두둑이 챙겨줄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거라.”

제 손에 들린 악보만으로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주해본 적이 없는 미완성의 악보를 그것도 한 나라의 국왕에게 선물로 받아서 일까. 지휘자로서의 욕심과 예술인으로서의 욕심이 파블로스를 들끓게 만들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악보를 연구하고 또 악보를 가지고 악단원들과 연주를 하며 합을 하루라도 빨리 맞춰보고 싶은 파블로스였다.

“폐, 폐하께서 내리신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도면 제 할 일을 전부 마친 것 같아, 헤르세인은 피곤해진 몸을 일으켜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우연히 고개를 돌리면서 저도 모르게 부딪친 시선. 헤르세인의 시선은 정확히 똑같이 저를 보고 있는 가면 쓴 사내를 향해 있었다.

‘저 사내는 아까 피아노를 연주한...’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훌륭한 연주에다 워낙 기억에 남을 인상이었기에 헤르세인은 가면 쓴 사내의 모습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제국 내에서도 보기 드문 긴 은발,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음에도 가면 속에 뚜렷이 빛나던 붉은 눈동자.

하지만 헤르세인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붉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몽롱하면서도 어쩐지 제 정신을 어디론가 이끌어내는 것 같은 기묘한 기분. 이질적이면서도 그 기묘한 이끌림에 헤르세인은 여전히 그의 눈동자를 마주한 채로 목소리를 내었다.

“잠깐.”

아주 짧게 나온 목소리임에도 회의장 내에 강렬히 울렸는지 조금은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가면 쓴 사내를 향해 다시금 목소리를 내었다.

“가면 쓴 자여, 내게 할 말이 있는가?”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헤르세인은 스스로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질문이었고 그것을 주워 담기에는 모두가 들어버린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은 가면 쓴 사내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한쪽 무릎을 꿇어 아주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인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감히, 폐하께 청이 있습니다.”

청이라니? 아무리 대귀족이라 해도 함부로 왕에게 청을 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얼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일반 평민일지도 모를 그가, 감히 한 나라의 국왕에게 청을 한다? 만약 이곳에 귀족들이 모여 있었다면 목소리를 높여 그를 비난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귀족들이 매번 입을 모아 이것저것 회의에서 해달라는 간청이 아닌, 가면 쓴 사내의 청이 기분 나쁘기는커녕 호기심을 일으키기기까지 해, 헤르세인은 여전히 표정은 없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청이라… 좋다. 내게 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원합니다.”

“...시간?”

“예, 폐하와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을 감히 청하고 싶습니다.”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 해야 할지, 둘 중 무엇이 되었든 헤르세인은 고를 수 없었다. 가면 너머의 붉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면 마치, 그 눈동자가 저를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겠끔 꼼짝없이 붙잡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신기하게도 마음을 이끌게 했다.

‘고작 한 모금에 취한 건 아닐 테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이없는 청에 단순히 넘어갈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기분이 조금씩 들뜨기 시작한 헤르세인은 이내 그의 청을 허락했다.

“좋다, 독대를 허락한다. 단, 내게 독대를 청한 만큼 나를 납득시킬 이유를 잘 설명해야할 것이다.”

“예, 폐하.”

알베르셋 후작의 말림이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완전히 둘 만 남게 된 커다란 공간. 헤르세인은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저만을 보고 있는 사내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자, 그대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전에… 가면을 쓴 이유가 무엇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만, 이유가 없다면 내게 독대를 청한 만큼 가면은 벗어야할 것이다. 설마, 이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나와 독대를 하려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헤르세인은 전혀 이상함도 수상함도 느끼지 못했다. 계속되는 묘한 들뜸에 그저 사내의 가면을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놓고 있던 건지도 몰랐다.

“제가, 가면을 벗음으로써 감히 폐하의 용안을 마주해도 괜찮으신 겁니까?”

“그래, 상관없다. 헌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군. 가면을 쓰고 있음에도 그대의 눈은 줄곧 나를 보고 있지 않았는가.”

“예, 줄곧 폐하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폐하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의 이 모습을... 떨리는 이 두 눈으로 처음 본 것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가면을 움켜쥔 그의 손에는 상당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저를 오랫동안 속박한 족쇄를 풀어버리듯 오랫동안 본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로잔… 아니 루드비카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핏빛의 눈동자. 그리고 이제는 흰 장미의 꽃처럼 변해버린 은발까지.

아무리 눈동자 색과 머리색이 바뀌었다 해도, 잊을 리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찌 모를 수 있을까. 그토록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내였는데. 그토록 절절히 제 마음을 다 바친 사랑이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잊을 리 없었다.

하지만 꿈이 아니고서야 믿기 힘든 일이 지금 헤르세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거… 짓말... 어떻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헤르세인은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독한 악몽인지 그리움으로 변해버린 환상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루드비카가 직접 현실로 이끌어주듯 헤르세인은 틀림없이,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오직 그에게만 허락된 이름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헤세...”

“...”

“헤세...”

“...루카.”

일생의 단 한명 뿐인 연인, 그리고 두 번 다시없을 온전한 자신의 사랑. 그는, 지금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사내는 루드비카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7년 전의 화려한 붉은 장미로서가 아닌, 하얗게 물든 가장 아름다운 흰 장미의 모습으로 색이 바뀌어 버린 채,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